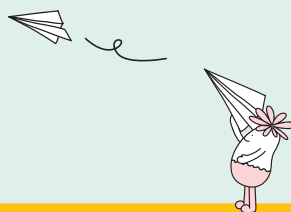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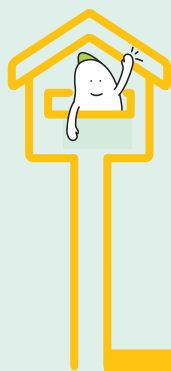


완벽한 자율학습서

완자

자습서 정답친해

중등국어 1-2



갈래 펼치기



소설

● 본문 006쪽

1 (1) × (2) ○ (3) ○ 2 ⑤ 3 내적 갈등

1 (1) 소설은 사실 그대로가 아닌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이다.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기록한 글은 소설이 아닌 수필이다.

(2) 소설은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3)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숙의 과정을 주로 담고 있는 것은 성장 소설이다.

2 소설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는데, 그중 결말은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단계이다.

오답인 이유 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절정' 단계에 해당한다.

②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는 것은 '발단' 단계에 해당한다.

③ 인물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은 '전개' 단계에 해당한다.

④ 갈등과 긴장감이 심화되는 것은 '위기' 단계에 해당한다.

3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느냐, 인물이 다른 인물, 사회, 운명, 자연과 갈등하느냐에 따라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뉜다.



완자샘의 풀이

내적 갈등의 예를 생각해 볼까?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서로 반대되는 생각으로 갈등하는 거니까.



시

● 본문 007쪽

1 (1) ○ (2) × (3) × 2 (1) 운율 (2) 외형물 (3) 시인 자신 3 ③

1 (1)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운율이 있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 말의 가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2) 시의 말하는 이는 시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인물이나 사물, 또는 시인 자신이다. 시의 말하는 이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완자샘의 풀이

말하는 이가 겉으로 드러난 시의 예를 들어볼까? '윤동주'의 「서시」의 한 구절이야. '임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나', 즉 시인 자신으로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반면 '김종삼'의 「목화」의 한 구절을 보자.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를 알기 어렵지? 이 시처럼 말하는 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해.

(3) 시어는 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시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함축적 의미가 중심이 된다.

2 (1) 시는 서정 문학의 한 갈래로, 시인의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내용이 서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쓰여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진다는 특징이 있다.

(2) 외형물은 겉으로 규칙적인 리듬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운율로, 주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작품에서 나타난다. 시조는 4음보, 민요는 3음보와 같은 규칙적인 리듬을 지닌다.

(3) 시의 말하는 이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인물이나 사물로 설정하는데, 때로는 시인 자신이 말하는 이가 되기도 한다.

3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 문학의 갈래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소설'이다.



수필

● 본문 008쪽

1 (1) ○ (2) × (3) × 2 경수필, 중수필 3 ③

1 (1) 수필은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갈래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수필의 특성이자 매력이다.

(2) 수필은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글쓴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학 갈래이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형식은 수필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3) 수필은 기본적으로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다. 글쓴이가 체험하지 않은 허구적 사건을 바탕으로 쓰는 갈래는 소설이다.

2 수필은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눌 수 있다. 일상생활의 경험을 가볍게 쓴 것은 경수필이고, 사회적 문제나 시사적 관심거리를 논리적으로 쓴 것은 중수필이다.

3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갈래이다. 이처럼 수필의 주된 내용은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이기 때문에, 수필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개성적인 가치관을 파악하고 독자 자신의 가치관과 비교해 보면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인 이유** ①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사용할 방법으로 적절하다.
 ② '시'를 읽을 때 사용할 방법으로 적절하다.
 ④ '희곡'을 읽을 때 사용할 방법으로 적절하다.
 ⑤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사용할 방법으로 적절하다.

수필과 소설의 비교

참고 자료

	수필	소설
차이점	형식에 제한이 거의 없음.	구성 단계가 명확함.
	글쓴이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함.	작가가 창조한 공간에서 허구의 인물에게 일어나는 가상의 사건을 바탕으로 함.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글쓴이가 직접 서술함.	인물의 행동이나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냄.
공통점	• 줄거리 된 산문 문학임. •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을 줌.	

시나리오

본문 009쪽

- 1 (1) 영화 (2) 장면 (3) 희곡 2 (가) 대사, (나) 장면 표시
 3 ④

- 1 (1)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 상영하기 위하여 만든 대본을 말한다.
 (2) 시나리오는 장면(Scene)을 단위로 구성된다. 각 장면에는 S#(Scene Number)라는 장면 번호가 붙는다. 장면은 같은 인물이 동일한 공간 안에서 벌이는 사건의 광경을 이른다.
 (3) 시나리오는 희곡과 마찬가지로 극 갈래에 속하지만, 희곡에 비해 시간, 공간, 등장인물의 수 등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 희곡은 무대 위라는 장소의 제약과 상연 중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희곡과 시나리오

참고 자료

	희곡	시나리오
목적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함.	드라마나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함.
제약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음.	제약이 거의 없음.
내용 단위	'막'과 '장'으로 이루어짐.	'장면(S#)'으로 이루어짐.

- 2 (가) 제시된 글은 대사에 대한 설명이다. 대사는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이나 혼잣말로,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나) 장면 표시는 장면의 극중 순서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장면의 번호를 말하며, 'S#(Scene number)'로 표시한다.

- 3 시나리오는 '발단-전개-절정-하강-대단원'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는 '대단원'이며, '하강'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는 단계이다.

설화

본문 010쪽

- 1 (1) × (2) ○ (3) ○ 2 전설 3 ②

- 1 (1) 흥미와 교훈을 위주로 전해 오는 이야기는 민담이다. 한편 신화는 한 민족 안에서 전승되는 신적 존재나 영웅에 관한 이야기이다.
 (2) 우주나 국가 등이 증거물로 제시되는 것은 신화의 특징이다. 한편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바위, 나무 등)이 제시되며, 민담은 증거물이 없다.
 (3) 신화의 주인공은 신 또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신성한 업적을 이루고 신격화된다.

설화의 유형에 따른 전승자의 태도

참고 자료

신화	신성하고 숭고하다고 믿음.
전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음.
민담	재미를 중요시함.

- 2 설화의 유형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하며 비범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전설'이다.
 3 설화는 문학 작품이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먼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구전되는) 구비 문학이다. 설화는 구전되어 오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내용이 고쳐지거나 더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작가가 창작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설화의 특성 중 '비현실성'에 해당한다.

- ③ 설화의 특성 중 '서사성'에 해당한다.
 ④ 설화의 특성 중 '구전성'에 해당한다.
 ⑤ 설화의 특성 중 '민중성'에 해당한다.

설명하는 글 / 주장하는 글

본문 011쪽

- 1 (1) ○ (2) × (3) × 2 사실성 3 ③

- 1 (1) 설명하는 글의 '처음(머리말)' 부분에서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글을 쓴 목적이나 동기를 제시하며, 이어지는 글에서 설명할 대상을 소개한다.

토의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

- 토의 목적이 여러 사람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함.
-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해야 함.
- 토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



면담

본문 0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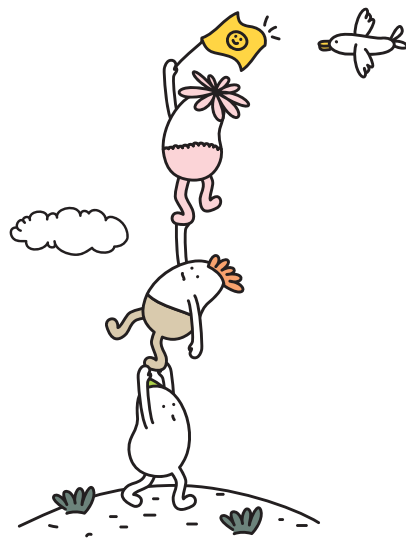
1 면담 2 (1) ○ (2) × 03 ③

1 특정 인물이나 주제에 대해 다양한 목적으로 면담자와 면담 대상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주고받는 대화의 방식을 '면담'이라고 한다.

2 (1) 면담을 준비할 때에는 필기 도구, 녹음기, 사진기 등 면담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겨야 한다.

(2) 면담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는 있지만, 면담 준비 단계에서 면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이렇게 준비한 질문들을 면담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면담 대상자는 답변을 준비하여 면담에 대비할 수 있다.

3 면담할 때에 면담자는 면담 대상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면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담을 짧게 하는 것보다는 면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는지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2) 설명하는 글의 '가운데(본문)'에서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사실이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단계는 '끝(맺음말)'에 해당한다.

(3) 설명하는 글의 '끝(맺음말)' 부분에서는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과제, 독자에게 당부할 말 등을 제시한다. 한편 글을 쓴 동기를 밝히는 단계는 '처음(머리말)' 부분에 해당한다.

2 설명하는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해 독자를 이해시키는 글이므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사실성이 있다.

3 주장하는 글은 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정확해야 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함축적이거나 비유적일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갈래는 시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주장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해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쓴 글이다.

④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과 의견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아야 한다.

⑤ 주장하는 글의 논리가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야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토의

본문 012쪽

1 (1) 사회자 (2) 청중 2 L-C-Γ-ε 3 ⑤

1 (1)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한다. 또한, 토의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청중과 토의자 간의 질의 응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2) 토의 참여자인 청중은 토의자들이 발표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토의자 간의 논점의 차이를 판단하여 토의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역할을 한다.

2 토의는 일반적으로 토의가 필요한 문제들을 탐색하고 이중 하나를 골라 논제의 형태로 진술하는 '논제 정하기(L)',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토의 내용 마련하기(C)', 각자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토의하기(Γ)', 토의 과정과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토의 내용 정리하기(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3 토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공동체에 연관된 문제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 협력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한편 상반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한 것은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비판적으로 듣고, 매체로 표현하고

(1)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

소단원 평가

029~031쪽

- 01 ④ 02 ④ 03 주장과 근거 사이의 연관성이 떨어
지므로 ㉠은 타당하지 않다. 04 ⑤ 05 ⑤
06 하나의 사례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이
다. 07 ② 08 ④ 09 ③

01 (가)의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모든 장면을 해
외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영화가 정말 재미있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영화를 보러 갔으나 영화가 재미가 없어 실망하
고 있다. 학생은 연예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믿을 수 있
는지,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따지며 비판
적으로 들었다면 영화를 볼지 말지 더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
이다.

02 '수미'는 청소년 연예인의 80%가 방송 일 때문에 학교 수
업에 빠진 적이 있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이 연예인이 되면 학습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과 관련 있는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
연'은 청소년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의 장점이 아니라, 연예
인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근
거로 들고 있으므로, 주장과 연관성이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수미'는 논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으며, '소연'은 반
대하고 있다.

② '수미'는 신문 기사에 나온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소연'은 자
신이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고 있다.

③ '수미'와 '소연' 모두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⑤ (나)는 토론에 해당하므로, '수미'와 '소연'은 모두 상대방을 설득하
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토의자가 의견을 제안할 때 유의해야 할 점

-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자신의 제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견을 제안해야 함.
-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의견을 제안해야 함.

03 **서술형** ㉠에서 배우는 영화가 정말 재미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모든 장면을 해외에서 촬영했음
을 들고 있다. 모든 장면을 해외에서 촬영했다고 해서 영화가

무조건 재미있는 것은 아니므로 ㉠에 드러난 주장과 근거 사
이에 연관성은 떨어진다. 즉 ㉠은 주장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를 내린 이유를 썼다.	☐
타당성을 평가했으나 그러한 평가를 내린 이유는 쓰지 못 하였다.	☐

04 '소연'은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서 잠시 방황하던 한
중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에 감동을 받아 예전
처럼 성실한 학생이 되었다는 내용을 본 것을 근거로 연예인
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이
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진다. 한편 '소연'의 말에는 대상의 성격이나 모습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① 사회자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라
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수미'는 청소년 연예인의 80%가 방송 일 때문에 학교 수업에 빠
진 적이 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
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준서'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수미'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음을 근거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주장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④ '영재'는 진로와 관련된 강연을 듣고, 강연자들이 말한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말을 근거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강
연자는 대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영재'
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토론에서 주장을 펼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
는 것이 아니라 신문 기사, 책,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활
용해야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어.

05 '영재'는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한 강연
자의 말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
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06 **서술형** '정우'는 자신의 친구가 연예인이 되었다고 자
기를 무시하였다는 사례를 들어 청소년 시기에 연예인이 되
면 인성이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연예계에 진출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사례
를 두루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일반화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정우'가 주장한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하나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 냈다는 내용을 썼다.	☐
사례의 친구가 청소년 연예인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썼다.	☐

07 이와 같은 담화의 종류는 ‘연설’이다. 연설은 한 명의 연설자가 여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공적인 말하기이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연설자의 태도

- 연설을 하게 될 시간적·공간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연설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연설의 목적에 맞는 주제와 제목을 정해야 한다.
- 주제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해야 한다.
- 연설의 목적·주제·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설문을 작성해야 한다.
- 작성된 연설문을 가지고 실제 연설을 하듯 연습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08 이 연설의 연설자는 첫 번째 공약으로 의형제·의자매 제도를 실시할 것임을 내세우고 그 근거로 같은 반 친구들의 단합이 잘되어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임을 들고 있다. 두 번째 공약으로 건의함을 설치할 것임을 내세우고 그 근거로 세 명의 학생이 건의함을 설치해 달라고 했음을 들고 있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아침 식사를 제공할 것임을 내세우고 그 근거로 아침 식사는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됨을 들고 있다. 이때 연설자는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을 뿐, 우리 학교 학생 대부분이 아침을 먹고 오지 못한다는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 공약으로 학생 자치회를 활성화할 것임을 내세우고 그 근거로 많은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것임을 들고 있다.

09 이 연설문의 연설자는 예의를 갖추고, 학생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드러내며 연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세운 네 개의 공약 중에서 타당성을 갖춘 것은 네 번째 공약인 ‘학생 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뿐이다. 첫 번째 공약은 근거와 주장 사이에 연관성이 없으며, 두 번째 공약은 적은 사례를 일반화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세 번째 공약은 학생회장의 수준에서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이기에 타당성이 없다.

오답인 이유 ① 연설자는 낙타와 같은 섬김의 자세로 학생들과 소통하여 희망 중학교 학생회의 전통을 이어 가고 싶다는 다짐과 네 가지 공약을 내세워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② 연설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인사말을 적절히 활용하며 예의를 갖추고 있다.

④ 연설자는 청자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⑤ 연설자의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 아직 부족합니다.’라는 말은 학생 회장이 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낸 말이다.

(2) 인터넷 매체로 표현하기

소단원 평가



01 ⑤ **02** ② **03** 온라인 대화는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표정이나 몸짓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림말을 통해 감정을 전달한 것이다. **04** ⑤ **05** ① **06** ②

01 (가)는 누리집 게시판이고, (나)는 온라인 대화이다. 누리집 게시판과 온라인 대화는 인터넷 매체에 속한다. 인터넷 매체는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스러운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인터넷 매체에서는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사진)이나 소리가 들어간 파일도 첨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첨부한 문서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② 블로그, 누리소통망(SNS)과 같은 인터넷 매체에 좋아하는 가수의 동영상과 그에 대한 설명, 가수의 사진 등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문자,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의 혼합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하이퍼링크 등의 기능을 통해 정보의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

④ 누리소통망(SNS)에 정보를 올리면 거의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매체는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간의 제약 없이 전달할 수 있다.

02 ‘순대빌라’는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비하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말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작성자는 ‘번지의 제왕’의 댓글에 답변할 때 높임말을 사용하여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

③ ‘백살 공주’는 ‘미녀와 가수’의 질문에 작성자 대신 답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미녀와 가수’는 게시물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인 몇 개 조가 예선을 통과하는지, 1학년도 참가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⑤ ‘번지의 제왕’은 예선 결과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여 작성자가 그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글을 수정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03 **서술형** <보기>와 같은 표현은 그림말이다. 온라인 대화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문자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몸짓이나 표정 등을 활용하여 감정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대화의 사용자들은 몸짓이나 표정을 기호로 표현한 그림말을 통해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그림말을 사용하였음을 서술하였다.	☐
사용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

이모티콘

기호 글자. 컴퓨터 통신에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을 합성한 말이며, 키보드에 있는 각종 기호와 문자를 조합하여 만든다. 예를 들어 웃는 얼굴은 :) 또는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왼쪽으로 돌려 보면 웃는 얼굴이 나타나게 된다. 1980년대에 카네기 멜론 대학 학생인 S. 펠만이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04 (가)는 문자 메시지, (나)는 전자 우편, (다)는 누리소통망(SNS)이다. (가)의 문자 메시지는 (나)의 전자 우편에 비해 길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줄인 말을 쓰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등 간략히 쓰는 경우가 많다. (나)의 전자 우편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받는 사람 계정만 추가하면 하나의 내용을 동시에 여러 명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다)의 누리소통망(SNS)은 사용자들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정보가 공유되며, 자신이 속한 집단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올린 정보를 접하기도 쉽기 때문에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에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05 (가)와 (나)는 같은 내용을 각각 문자 메시지와 전자 우편을 통해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때 (가)의 문자 메시지는 길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항목을 나누어 간략하게 작성하였고, (나)의 전자 우편은 길이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줄글로 작성하였다.

오답인 이유 ② (가)는 분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꼭참석바람'과 같이 높임말을 쓰지 않았지만, (나)는 '반드시 참석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높임말을 사용하였다.

③ (가)와 (나)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④ (가)와 (나)는 모두 김유진·정상호 학생이 행복 중학교 학생 가요제 예선을 통과했으며, 본선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같은 대상에게 같은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지만 글의 상세한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이는 (가)는 문자 메시지고 (나)는 전자 우편으로, 각 매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06 '왕자 탄 백마'는 다른 학생들의 공연 동영상과 비교, 그들이 심사위원과 친해서 예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댓글로 달았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누리소통망(SNS)에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인터넷 사용 태도이다.



완자쌤의 풀이

누리소통망(SNS)은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고, 확산되는 범위도 넓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 또 특정 인물을 비하하거나 개인 정보를 올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3) 책 읽고 영상으로 표현하기

소단원 평가



068~069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③ **05** 이야기 판(스토리보드) / 촬영할 장면과 순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촬영 및 편집의 방향을 공유할 수 있다. **06** ② **07** ② **08** ① **09** ④

01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은 '계획하기 - 기획안 작성하기 - 시나리오 작성하기 - 이야기판(스토리보드) 작성하기 - 촬영하기 - 편집하기 - 감상하고 평가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시나리오 작성하기(ㄷ) → 이야기판 작성하기(ㄴ) → 촬영하기(ㄱ)이다.

02 (가)는 어떤 영상을 만들기 위해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며, (나)는 영상 제작 기획안으로, (가)에서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정우'가 대본을 쓸 사람과 연기할 사람 등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정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모두 구성원 외에 특별히 출연할 다른 사람을 섭외하자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① '나라'가 '단편 영화'를 만들자고 이야기하였다.
② '나라'가 '중학생의 첫사랑'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자고 하였다.
③ '준서'의 말을 통해 이 영상이 학교 영상제에 출품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나라'가 영상을 볼 대상이 우리 학교 학생, 즉 중학생임을 말하였다.

03 영상 제작 기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목, 기획 의도, 갈래, 촬영 시간, 주요 내용, 역할 분담, 제작 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기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시나리오와 이야기판은 기획안을 만든 이후에 작성한다.
④, ⑤ 어떤 촬영 기법이나 영상 언어를 사용할지는 시나리오나 이야기판을 작성할 때 추가한다.

04 (다)의 갈래는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대본이다. 주로 배우의 대사를 적은 글이기 때문에 스크립트(script) 혹은 대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촬영할 장면을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은 이야기판(스토리보드)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시나리오

시나리오라는 용어는 원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의 설명서를 뜻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영화의 각본을 일컫는 말로 자리 잡았다.

연극에서는 희곡 또는 극본이라고 하고, 텔레비전에서는 보통 극본이라고 하며, 다큐멘터리에서는 구성안이라고 부른다.

05 서술형 (다)는 시나리오이고, <보기>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판(스토리보드)으로 장면 내용, 촬영 방법, 대사, 음악, 효과음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야기판을 작성하면 촬영할 장면과 순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촬영 및 편집의 방향을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야기판(스토리보드)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썼다.	☐
이야기판의 필요성 두 가지를 모두 썼다.	☐

이야기판(스토리보드)

촬영될 화면의 상황과 구도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 줌으로써 연출자의 의도를 시각화하고, 제작진 전원이 촬영 현장에서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야기판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제한된 틀 안에서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06 '수민'의 역할은 '미술'이다. 영상을 제작할 때 미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영상의 내용에 어울리는 촬영 장소를 미리 섭외하고 의상과 소품 등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

- 오답인 이유** ① '연기'를 맡은 사람이 할 일이다.
 ③ '촬영'을 맡은 사람이 할 일이다.
 ④ '편집'을 맡은 사람이 할 일이다.
 ⑤ '시나리오'를 맡은 사람이 할 일이다.

07 시나리오에서 'E.(Effect)'는 효과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효과음이란 장면을 실감 나게 보여 주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영상의 청각적 요소이다.

- 오답인 이유** ① 영상 화면(촬영으로 찍은 화면)에 대한 설명이다.
 ③ '대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 ⑤ '자막'에 대한 설명이다.

08 <보기>에 나타난 영상 촬영 방법은 카메라를 대상에게서 아주 멀게 하여 전체 경치가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으로, '롱샷(long shot)'이라고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촬영한 시각 이미지는 인물과 경치가 모두 담긴 ①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인 이유** ② 클로즈업 샷(close-up shot)의 예이다.
 ③ 하이 앵글(high angle)의 예이다.
 ④ 로 앵글(low angle)의 예이다.
 ⑤ 웨이스트 샷(waist shot)의 예이다.

09 다음에 제시된 설명은 '감독'의 역할이다. 감독은 연기,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④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인 이유** ① 시나리오 부문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② 촬영 부문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③ 연기 부문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⑤ 편집 부문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대단원 평가



076~081쪽

- 01** ② **02** ② **03** ② **04** ④ **05** ⑤
06 순대탕라 /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상대방을 비하하였다.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였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다. 등 **07** ① **08** ⑤
09 ② **10** (가)는 문자 메시지고, (나)는 전자 우편(이메일)인데, 각 매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11** ③
12 ③ **13** ④ **14** ③ **15** ①
16 ㉔: 클로즈업함(또는 클로즈업 솟으로 촬영함), ㉕: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 **17** ⑤ **18** ④ **19** ④
20 ④ **21** ② **22** ② **23** ② **24** ②

01 이 토론의 참여자들이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가 이 토론의 논제임을 알 수 있다.

02 '수미'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으며, '정우'는 '청소년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여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하자는 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영재'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으며, '지민'은 '저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하자는 논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수미'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최근 자신이 읽은 신문 기사의 내용을 들고 있다. '수미'가 읽은 신문 기사가 정확히 어느 언론사의 몇 월 며칠 자 기사인지 밝힌다면 토론 참여자와 청중들은 '수미'가 제시한 근거를 더 신뢰할 수 있다.

04 '정우'는 연예인이 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친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 청소년 연예인으로 확장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정우'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연예인이 된 친구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② '정우'는 연예인이 된 자신의 친구와의 경험을 드러내었으며, 구체적인 경험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정우'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⑤ '정우'가 자신이 겪은 사례를 일반화한 것은 문제이지만, 청소년의 인성 발달이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과 관련이 없다는 점으로 '정우'의 주장을 지지하려면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05 이 글은 누리집 게시판에 작성된 공지 사항과 이에 대한 댓글이다. 인터넷 매체는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널리 전달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06  이 글에서 '순대될라'는 작성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미녀와 가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반말을 사용하였으며, 오히려 '못생긴 것들'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비하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댓글의 글쓴이를 '순대될라'로 정확히 지적하여 썼다.	☐
댓글에 드러난 문제점을 두 가지 이상 썼다.	☐

댓글

댓글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읽는 이의 감상을 즉각적으로 짧게 표현한 글을 말한다. 댓글은 게시된 글 바로 밑에 달리기 때문에 글쓴이 외에 다른 사용자들도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다. 댓글은 즉각적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글이 대부분이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 때문에 욕설이나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도 많다.

07 외국어는 '밀크(milk)', '무비(movie)'처럼 국어로 정착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말을 의미한다. 이 대화에서는 '홈피'나 '레알'처럼 외국어를 바탕으로 한 줄인 말이나 신조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 대화에서 다양한 외국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8  ② '근데난', '노래를못해서'처럼 띄어쓰기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나타난다.

③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의 줄인 말인 '솔까말', '강력 추천'의 줄인 말인 '강추' 등이 사용되었다.

④ 온라인 대화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문자 중심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표정이나 몸짓 등을 활용하여 감정을 전달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ㅠㅠ', '^^', '(͡° ͜° ͜°)'와 같은 그림말을 사용하였다.

⑤ 온라인 대화 등 인터넷 상에서 글을 쓸 때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줄인 말이나 신조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08 이 온라인 대화의 참여자들은 '홈피', '꿀잼', '솔까말' 등 어법에 맞지 않는 줄인 말이나 신조어를 남용하고 있다. 이렇듯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남용하면 표준어와 맞춤법에 혼란이 생기고 언어 파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화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09 (가)는 문자 메시지고, (나)는 전자 우편이다. 문자 메시지는 내용을 신속하게 전하거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전달할 때 주로 이용하므로 간결성을 위해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전자 우편의 특성

- 인터넷 공간에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길이의 제약이 없음.
- 하나의 편지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음.
- 자신이 받은 편지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음.
- 전 세계의 누구에게나 무료로 보낼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도 두루 사용됨.

10  (가)와 (나)는 모두 가요제 예선 통과를 알리기 위해 작성된 글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이 다르다. (가)는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전달할 때 주로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이며, (나)는 대체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전자 우편이다. 즉 (가)와 (나) 각 매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이 다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가)는 문자 메시지, (나)는 전자 우편(혹은 이메일)임을 정확하게 썼다.	☐
(가)와 (나)의 매체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썼다.	☐

11 인터넷 매체는 문자뿐만 아니라 소리, 사진, 영상 등의 혼합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③의 블로그에서 노래 가사(문자)와 안무 동영상(영상), 배경 음악(소리)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완자샘의 풀이

전반적인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인터넷 매체가 이용되는 모습을 보고 인터넷 매체의 어떤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해.

12 사진의 구조는 사진의 사진을 통해 설명하거나, 동영상을 통해 자전거를 직접 보여 주며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양한 자전거 동호회 누리집의 주소 링크는 자전거 타기 활동을 함께 할 사람을 찾는 친구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적절하다.

13 영상 언어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촬영기로 촬영한 화면, 자막은 시각적 요소이고, 대사, 효과음, 음악, 해설은 청각적 요소이다. 따라서 종류가 다른 하나는 자막이다.

14 (가)는 시나리오이고, (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촬영할 장면을 장면 내용, 촬영 방법, 대사, 음악 등 구체적으로 나타낸 이야기판이다. 배우가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동작은 (가)의 '오른쪽 구석 가장 앞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처럼 시나리오에서도 지시문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이야기판으로 바꿀 때 새로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시나리오에서 'S# 5'로 표현되었던 장면이 이야기 판에서 'S# 5-1~4'로 나누어 제시되었고, 각각의 장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이야기판에서 각 장면의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⑤ 이야기판에서 배경 음악이나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시나리오에서보다 더 많은 편집 요소들을 추가하였다.

15 'S# 5-1'에 해당하는 촬영 방법을 보면 '반 전체 분위기가 드러나게 촬영함.'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반 전체의 풍경이 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촬영기를 대상에게서 멀게 하여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촬영하는 '롱 샷(long shot)'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6 **서술형** <보기>의 장면 그림을 보면 '민우'의 가슴이 화면에 가득 담기도록 촬영기와 '민우'의 가슴을 가까이해 두고 촬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은 '클로즈업 샷(close-up shot)'이다. 한편 (가)를 보면 'E. 민우의 빨라진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린다.'에서 효과음(E.)을 통해 빨라진 심장 소리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으므로, 효과음으로는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들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㉓에 클로즈업의 촬영 방식을 사용해야 함을 썼다.	☐
㉔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제시해야 함을 썼다.	☐

17 ㉔에서 민우의 가슴이 뛰는 모습을 하트 모양으로 표현한 것은 시각적 요소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청각적으로 나타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S#(scene number)'는 해당 장면이 몇 번째 장면인지 알려 주는 장면 표시 번호이다.

② ㉔은 배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시하는 지시문이다.

③ 내레이션은 장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해설)이기 때문에 시청자는 들을 수 있지만 극중 인물들은 들을 수 없다.

④ ㉔은 배경 음악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심리를 나타낸다.

18 촬영기를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 놓고 촬영하는 기법은 '하이 앵글(high angle)'이라고 하며, 주로 대상을 작게 느껴지게 하거나 전체를 조망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보기>에서는 시각을 해서 선생님께 혼나는 '민우'가 주눅이 든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19 촬영을 맡은 사람은 시나리오와 이야기판을 바탕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촬영상을 받았다면, 극중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거나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를 조정하는 등의 일을 했을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연기'를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다.

② '미술'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다.

③ '시나리오'를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다.

⑤ '감독'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다.

20 친구와 함께 책을 읽고, 읽은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드는 일은 크게 '함께 책 읽기 과정'과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하기'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함께 책 읽기' 과정은 '책 선정하기 - 모둠 구성원과 함께 책 읽기 - 책 읽기 경험 나누기'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하기' 과정은 '계획하기 - 기획안 작성하기 - 시나리오 작성하기 - 이야기판(스토리보드) 작성하기 - 촬영하기 - 편집하기 - 감상하고 평가하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㉔에는 '책 읽기 경험 나누기'가, ㉔에는 '영상 편집하기'가 들어가야 한다.

21 모둠 구성원들이 함께 책을 읽으려 할 때,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을 추천 받거나(ㄷ), 인터넷 검색을 통해 책 소개 글이나 서평을 찾아봄으로써 책을 선정할 수 있다(ㄱ).

오답인 이유 ㄴ. 모둠별로 독서 일지를 쓰는 것은 책을 읽은 이후에 하는 일이므로, 이미 책 선정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ㄷ.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를 때에는 무작위로 뽑기보다는 미리 주제나 분야를 선정하거나, 추천받은 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22 이 글은 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최준서' 학생이 한 연설이다. 이와 같은 설득적인 말하기를 들 때에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한다고 해서 주장이 옳다거나 근거가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

23 <보기>의 '소연'은 청소년의 연에게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연예인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주장과 근거 사이의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타당하지 않다. 한편 (나)에 나타난 '준서'의 주장 역시 의형제, 의자매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반 친구들의 단합이 잘되는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⑤ (가)와 (마) 문단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다.

③ (다) 문단에서 세 명의 학생이 건의함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 곳곳에 건의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적은 사례를 학생 전체의 사례로 일반화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④ 학생 수준에서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24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서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올바른 인터넷 사용 태도로 보기 어렵다.

악성 댓글

인터넷상의 댓글 중에서 고의적인 악의가 드러나는 비방성 댓글을 '악성 댓글' 또는 '악플'이라고 한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자살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약하며 읽기

학인 문제

● 088~097쪽

1 089쪽	1 ②	2 ①	3 ④	4 흰모래 마을
2 091쪽	5 ①	6 ③	7 ②	
3 093쪽	8 ⑤	9 ④	10 지혜롭다. / 현명하 다. 등	11 ④
4 095쪽	12 ⑤	13 ③	14 사계절	15 ④
5 097쪽	16 문제, 해결	17 ②	18 ③	

1 이 글은 신화로, 신화에는 현실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이 나타난다. 이 글에는 '아득한 옛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또한 원천강은 신관과 선녀가 지키고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갈 수 없는 멀고 먼 곳이라고 하였으므로 신성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아득한 옛날과 신성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한 민족 사이에 구전(口傳)되어 오는 이야기(설화)로, 설화 중에서도 그 민족 사이에 전승되는 신적 존재와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인 신화에 해당한다.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오늘이'가 세운 업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의 성장 과정과 여행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④ 이 글은 우리 민족 안에서 전승된 제주도 신화 「원천강본풀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전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범위 내에서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⑤ 이 글의 주인공은 비범하고 신적인 존재인 '오늘이'로, 부모님을 찾아 길을 떠난 '오늘이'가 다양한 대상을 만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부탁을 해결하면서 사계절을 전하는 선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다.

신화의 특징

-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존재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움.
- 우주, 인류, 자연 현상, 국가가 처음 생겨난 원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음.
- 한 민족의 범위 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민족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줌.

참고 자료

2 하늘에서 학이 날아와 '오늘이'를 돌봐 준 것과, '오늘이'의 부모님이 신관과 선녀라는 것에서 '오늘이'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하고 신성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3 '백씨 부인'은 꿈속에서 '오늘이'의 부모님을 만나, 그들이 신관과 선녀가 되어 원천강을 지키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오늘이'에게 원천강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멀고 먼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백씨 부인'

이 원천강에 직접 다녀간 것은 아니다.

4 **서술형**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원천강에 가는 길을 묻는 '오늘이'에게 '백씨 부인'은 남쪽으로 흰모래 마을을 찾아가 별충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도령한테 길을 물어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오늘이'가 원천강에 가는 길을 알기 위해 들러야 할 장소를 2어절로 쓰면 '흰모래 마을'이다.

5 글을 요약할 때에는 글의 전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에서 '오늘이'는 '집-흰모래 마을 별충당-연화못-청수 바다 모래밭'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이 글은 '오늘이'가 이동하는 공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6 연꽃 나무는 '오늘이'에게 맨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연꽃 나무는 맨 윗가지에만 꽃이 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장상'이 밤낮 별충당에 앉아서 글만 읽어야 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② '오늘이'가 부모님을 찾아서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만난 대상('장상'이라는 도령, 연꽃 나무, 큰 뱀)에게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는 데서 알 수 있다.

④ 다른 뱀은 여의주를 하나만 물고도 용이 되어 올라가는데 큰 뱀 자신은 여의주를 셋이나 물고서도 용이 못 된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⑤ '오늘이'는 원천강을 찾아가는 길에 다양한 대상을 만나는데, '장상'은 왜 밤낮 별충당에 앉아서 글만 읽어야 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지를, 연꽃 나무는 왜 맨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지를, 큰 뱀은 왜 여의주를 세 개나 물고서도 용이 못 되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7 '오늘이'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혼자 원천강을 찾아가며 '장상', 연꽃 나무, 큰 뱀 등을 만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오늘이'의 모습은 내성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오답인 이유 ①, ③ 부모님이 계신 곳을 알자마자 바로 길을 떠나는 모습에서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부모님을 찾아 홀로 낯선 길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독립심이 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⑤ 처음 만나는 대상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모습에서 상냥하고 친절함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완자뽀의 풀이

'오늘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이'가 한 말과 행동에 주목해야 해. 이야기에서는 인물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하니까 말이야.

8 하늘나라 선녀들이 두레박에 큰 구멍이 뚫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퍼낼 수 없다고 하자 ‘오늘이’가 땡땡이땡글을 으깨어 뭉쳐서 구멍을 막고 나서 송진을 녹여서 틈을 막았기 때문에 선녀들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낼 수 있었다. 즉, ‘오늘이’가 돌아오는 길에 선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준 것이다.

9 ‘오늘이’와 함께 원천강을 찾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 선녀들’로, ‘매일이’는 ‘오늘이’와 함께 가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③ ‘매일이’와 ‘선녀들’은 원천강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오늘이’가 길을 원천강 가는 물어봤을 때 알려 주고 있다. ② ‘매일이’는 하늘에서 벌을 받아 매일 글을 읽게 되었고, ‘선녀들’은 천하궁에서 물 길는 일을 소홀히 한 죄로 우물물을 푸게 되었다. ⑤ ‘매일이’는 매일 글을 읽고 있는 신세를 언제 면할 수 있는지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며, ‘선녀들’은 우물물을 다 퍼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두레박에 구멍이 뚫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퍼낼 수 없는 어려움을 ‘오늘이’에게 말하고 있다.

10 **서술형** [A]에서 ‘오늘이’는 선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오늘이’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11 ㉔의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는 ‘선녀들’과, ㉕의 우물에서 슬피 울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㉖의 ‘오늘이’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저희’는 모두 ‘하늘나라 선녀들’로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오답인 이유 ㉑ 길가 외딴 별충당에서 글을 읽는 ‘한 처녀’는 ‘매일이’다. 따라서 ㉑과 ㉖은 모두 ‘매일이’를 가리키며, ㉕은 ‘오늘이’이다.

12 이 글은 ‘오늘이’가 부모님을 찾아 원천강에 도착하여 부모님을 만나고, 원천강에 오면서 부탁받은 일들을 들어주기 위해 다시 길을 돌아갈 때까지의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므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요약해야 한다. 따라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완자샘의 풀이

먼저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을 선지에서 찾아봐. 혹은 반대로 중심 내용이 아닌 세부 내용으로만 요약한 문장,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요약한 문장 등을 제외시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13 ‘오늘이’의 부모님은 자신들을 찾아온 ‘오늘이’를 감싸 안으며 “너를 낳던 날 옥황상제께서 우리를 불러 이곳을 지키라 하니 어느 명령이라 기억할까?”라고 하였다. 따라서 ‘오늘이’의 부모님이 ‘오늘이’를 남겨 두고 원천강에 오게 된 것은 옥황상제의 명령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4 **서술형** ‘원천강’의 내부에는 네 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의 문을 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이 나타난다. 또한

‘이 세상 사계절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원천강의 네 개의 문이 사계절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15 ‘오늘이’는 부모님과 함께 원천강을 구경한 후 “여기에 오는 길에 부탁받은 일이 많으니 이제 돌아가렵니다.”라고 말했고, 부모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일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어 길을 나선다. 즉 ‘오늘이’는 부탁받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서고 있다.

16 **서술형**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오면서 ‘장상’, 연꽃 나무, 큰 뱀, ‘매일이’와 같은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이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17 ‘오늘이’는 큰 뱀에게 세 개의 여의주 중 두 개를 뺏아서 여의주를 하나만 물면 용이 될 수 있다는 해결 방안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큰 뱀은 여의주 두 개를 뺏아서 ‘오늘이’에게 주었다. 따라서 큰 뱀에게 여의주를 두 개 더 주었다는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오늘이’는 ‘매일이’와 함께 길을 떠나서 ‘장상’과 인연을 맺어 줌으로써 ‘매일이’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③ 연꽃 나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뒷가지에 핀 꽃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연꽃 나무가 준 꽃을 ‘오늘이’가 받아 주었다.

④ ‘오늘이’는 ‘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상’처럼 홀로 글만 읽어 온 비슷한 처지의 처녀와 결혼을 하면 된다는 방법을 알려 주었고, ‘매일이’와 ‘장상’을 짝지어 주었다.

⑤ 큰 뱀의 문제는 여의주가 세 개나 있는데도 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오늘이’는 큰 뱀에게 용이 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18 전에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온 ‘오늘이’는 ‘백씨 부인’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뱀한테서 받은 여의주 한 개를 드린다. 이때 ‘백씨 부인’이 ‘오늘이’에게 서운해하는 장면이나, ‘오늘이’가 ‘백씨 부인’을 위로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확인 문제

● 102~105쪽

- | | | | |
|--------|-----|---------------|-----|
| 1 103쪽 | 1 ③ | 2 ④ | |
| 2 105쪽 | 3 ⑤ | 4 ㉔: 비, ㉕: 우산 | 5 ③ |
| | 6 ⑤ | | |

1 이 글은 ‘마을학교’의 개념을 ‘누가 주도하는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무엇을 위해 활동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대상(‘마을학교’)의 개념을 여러 개의 측면(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마을학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을 뿐, 시간에 따른 ‘마을학교’의 변화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묘사로, 이 글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주로 '마을학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대상이나 그것과의 공통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방법인 비유적 표현을 제시된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2 이 글의 ㉒에 따르면, 최근에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현대 사회에서 무한 경쟁에 지쳐 서로 도우며 살던 옛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3 사에 따르면 '마을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며, 마을 자체가 학교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마을과 학교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한 것(⑤)은 '마을학교'가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4  아에서는 '마을학교'의 역할을 '비'와 '우산'에 비유하여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을에 큰 우산을 씌우면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비를 덜 맞거나 피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처럼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비)을 막아 주는 것이 바로 '마을학교'(우산)라고 하였다.

5 글쓴이는 '코메니우스'의 말을 '마을학교'에 적용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학교'이고 우리가 사는 마을 자체가 '마을학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글쓴이는 '코메니우스'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6 글의 마지막 부분에 글쓴이의 '마을학교'에 대한 기대가 제시되어 있다. 글쓴이는 '마을학교'가 현대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소단원 평가

116~119쪽

01 ①	02 ②	03 ④	04 ②	05 ④
06 ④	07 ③	08 ③	09 ④	10 ⑤
11 ⑤	12 '마을학교'는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막아 준다.	13 ①	14 ②	

01 이 글의 갈래는 신화로, 신적 존재의 탄생과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이 글의 주인공 '오늘이'는 옥처럼 고운 외모와 학이 돌봐주는 모습, 부모가 신관과 선녀인 점 등에서 신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관과 선녀가 되어 원천강을 지키고 있는 '오늘이'의 부모님을 '백씨 부인'이 꿈에서 만난 것이나, '오늘이'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인 원천강에 가야 하는 것 등 비현실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

오답인 이유 드, 이 글은 우리 민족 사이에 말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 설화(신화)로, 글을 쓴 주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르, 이 글(신화)에서는 '아득한 옛날'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사람이 갈 수 없는 신성한 장소인 '원천강'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난다. 즉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02 이 글은 '이야기'로,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글의 전개 방식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 장소의 변화, 핵심 문제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도 있다. ②와 같이 사건을 둘러싼 세부적인 정보들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보다는, 사건에 대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오늘이'는 부모님을 찾으러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만난 '장상'에게 문제를 부탁받고 이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다. 그러므로 문제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③ 이 글은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오늘이'는 '집(들)'에서 '흰모래 마을 별충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⑤ 이 글은 '오늘이'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원천강을 찾아가는 이야기(설화)로, 이야기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03 '장상'은 자신이 별충당에 앉아서 글만 읽어야 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오늘이'에게 원천강에 가면 자신의 사연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오늘이'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 '오늘이'의 부모님은 신관과 선녀가 되어 원천강을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어린 '오늘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네가 오늘 우리를 만났으니 오늘을 생일로 삼고 이름도 오늘이라 하자꾸나."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름이 '오늘이'인 까닭이 나타나고 있다.

⑤ (다)에서 '장상'은 '오늘이'에게 연화못을 찾아가 연못가의 연꽃 나무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였다.

04 원천강을 지키는 인물은 '장상'이 아니라 '오늘이'의 부모님이다. '장상'은 흰모래 마을의 별충당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밤낮으로 글만 읽어야 하는 도령이다.

오답인 이유 ① '오늘이'를 보살피기 위해 하늘에서 학이 날아온 것은 '오늘이'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보여 준다.

③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원천강으로 홀로 바로 출발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이'는 용감한 성격이다.

④ '장상'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준 것으로 보아 '오늘이'는 친절하다.

⑤ 신관과 선녀는 하늘나라에서 신을 모시는 신성한 존재이다.

05 글의 줄거리를 쓰기 위해서는 글을 요약해야 하고, 글을 요약할 때는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글은 '오늘이'의 공간 이동과 시간의 흐름, '오늘이'가 겪는 사건, '오늘이'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오

늘이'와 '백씨 부인'의 관계는 주된 내용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06 '오늘이'는 연꽃 나무에게 윗가지에 핀 꽃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면 가지마다 꽃이 핀다고 알려 주었고, 연꽃 나무가 윗가지에 핀 꽃을 꺾어서 '오늘이'에게 주자 다른 가지에도 꽃이 피어났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오늘이'는 큰 뱀에게 여의주를 하나만 물면 용이 될 수 있다고 알려 주었고, 뱀은 여의주 세 개 중 두 개를 '오늘이'에게 주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③ 연꽃 나무가 탐스러운 꽃을 피운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결과이다. 연꽃 나무가 윗가지에 핀 꽃을 꺾어 '오늘이'에게 주자 가지마다 탐스러운 꽃이 송이송이 피어났다.

⑤ '장상'은 길을 떠나지 않았고, '오늘이'가 데리고 온 '매일이'와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

07 (가)에는 '오늘이'의 부모님이 '오늘이'에게 원천강을 구경시켜 주는 장면이 나타난다. 원천강에 있는 네 개의 문을 여니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이 펼쳐졌다. 즉 원천강의 네 개의 문은 사계절을 상징함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가)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08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설명하는 글은 대상에 대한 주요 정보를 요약하고,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 관련된 문단끼리 묶어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ㄴ은 주장하는 글을 요약할 때, ㄷ은 이야기를 요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09 이 글은 '마을학교'의 개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을학교'의 역할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통계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왜 갑자기 마을일까?'라는 의문문을 통해 마을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 (나), (다)에서 '마을학교'의 개념을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 '마을학교'의 활동 공간의 예로 찻집, 도서관, 식당, 놀이터 등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라)에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비'에, '마을학교'를 '우산'에 비유하여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10 (가)에서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이후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는 '우리'가 아닌 '나', '협동'이 아닌 '경쟁'이 되었다고 하였다(④). 그리고 (나)~(다)에서 '마을학교'를 이끌어 가는 주체, '마을학교'의 활동 공간, '마을학교'의 운영 목적, '마을학교'에서 하는 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다(①, ②, ③). 이 글은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마을 주민들이 겪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A]는 '마을학교'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 설명한 문단이다. ㉠, ㉡, ㉢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부분이고, ㉣는

일반 학교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할 때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는 '마을학교'가 어떤 공간인지 설명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삭제할 수 없다.

12 **서술형** (라)에 따르면, '비'는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이며, '우산'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막아 주는 '마을학교'이다. 따라서 '마을학교'의 역할은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막아 주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비유적 표현인 '비'와 '우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
사실적 표현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썼다.	☐

13 이 글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장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글쓴이의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다.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주장하는 글의 개념과 특성

• 개념: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쓴 글

• 특성

주관성	글쓴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뚜렷이 나타남.
명확성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남.
체계성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성에 따라 논리 전개와 짜임이 뚜렷함.
타당성	주장하는 까닭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근거를 제시함.
설득성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4 주장하는 글은 대체로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성된다. 이 글은 농장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 해결,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 경제적 이익 생성 등을 들고 있다. (가)에서 농민 노천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장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천 시장'과 '농장 시장'을 거꾸로 진술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의 글쓴이는 농촌 경제를 살리고, 먹을거리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농장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③ 농장 시장은 소비자가 직접 농장으로 가서 수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농장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농장 시장의 농산물은 소비자가 농장에서 직접 거두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농장 시장을 활성화하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농장 시장은 유통 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농장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하기

소단원 평가

138~139쪽

- 01 ② 02 ② 03 ⑤ 04 ① 05 ⑤
06 요리 예술사 07 ③ 08 ③ 09 ⑤
10 ②

01 면담은 특정 대상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나 의견을 나누는 말하기로, 면담을 할 때 반드시 계획된 질문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므로 면담 대상자의 대답을 들으면서 생긴 궁금증에 대해 보충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③ 면담은 '면담 준비하기-면담 진행하기-면담 정리하기'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면담 준비하기에서는 면담의 목적과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담 약속을 정한 후 질문지를 작성한다. 면담 진행하기에서는 면담 대상과 만나, 준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 면담 정리하기에서는 면담한 내용을 면담의 목적에 맞게 정리한다.

④ 면담의 목적에는 정보 수집, 상담, 평가, 설득 등이 있는데, 면담의 목적에 따라 질문할 내용이 달라진다.

⑤ 면담은 특정 대상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02 면담의 목적에는 설득, 상담, 평가, 정보 수집 등이 있다. 동아리의 새로운 회원을 뽑기 위한 면담에서는 면담 대상이 동아리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⑤ 설득을 위한 면담이다.

③ 상담을 위한 면담이다.

④ 정보를 얻기 위한 면담이다.

03 면담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먼저 면담 대상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면담을 할 때에는 면담 대상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담할 때의 유의점

- 면담을 하는 까닭과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
- 주제나 목적에 어긋난 질문을 하지 않는다.
- 면담 대상이 말하기 편한 분위기를 만든다.
- 면담에 필요한 질문과 자료를 사전에 준비한다.
- 면담의 목적을 면담 대상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면담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둔다.
- 질문은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면담 대상의 대답은 진지한 태도로 경청한다.
-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고, 메모 대신 녹음한 후에 돌아와서 정리해도 된다.
- 녹음이나 사진, 촬영 시에는 미리 면담 대상에게 허락을 받는다.

참고 자료

04 면담할 때의 질문은 면담의 목적에 맞아야 한다. <보기>의 면담은 면담 대상인 지호 어머니에게 친구들과 자주 다투는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지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오답인 이유 ②, ③ 다른 친구들이나 면담 대상이 겪었던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질문이다.

④, 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으므로 적절한 질문이다.

05 제시된 대화에서 '나라'가 면담을 하면서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 역할을 나눠 보자고 하고 있다. 이로 보아 친구들은 일대일 면담이 아니라 다대일 면담을 진행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면담을 준비하거나 면담을 진행할 때 모둠 구성원이 힘을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하여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지민'이 잡지에 나왔던 요리 예술사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자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② '지민'이 면담을 하면 인터넷이나 책에서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③ '나라'가 면담을 하면서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자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④ '준서'가 먼저 그분(면담 대상)께 허락을 받자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06 **세줄형** '지민'은 "잡지에 나왔던 요리 예술사님을 찾아가서 면담하면 어떨까?"라고 하였고, 이에 '준서'는 "좋은 생각이야."라고 하며 친구들과 함께 면담을 준비하고 있다.

07 '정우'가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자, '지민'은 요리 예술사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자고 하였다(②). 이에 '준서'는 면담 대상인 '요리 예술사'에게 전자 우편을 보내서 면담 허락을 받자고 하였다(④, ⑤), 이때 '나라'는 면담하기 전에 질문을 미리 정리하자고 하였다(①). 한편 '면담 결과 분석'은 면담을 진행한 후에 면담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시된 대화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인 준비 단계이므로 전자 우편에 면담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완자쌤의 풀이

제시된 대화의 내용을 볼 때 모둠 구성원들은 면담을 준비하고 있어, 면담을 요청하는 전자 우편을 쓸 때는 먼저 면담의 목적을 밝히고 면담 대상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면담 대상이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단다. 면담을 요청할 때는 꼭 전자 우편과 같은 글을 써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야. 전화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연락할 수 있지. 다만 면담 대상자와 연락할 때에는 예의를 지켜야 해.

08 '나라'와 '정우'는 면담 대상인 '요리 예술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자 우편을 보냈던 것은 면담을 하기 전에 면담 허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면담이 전자 우편을 통한 면담이라는 ㉠은 적절하지 않다.

면담을 잘하기 위한 요령

- 면담 대상이 말하기 편한 분위기를 만든다.
- 겸손한 자세로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면담을 하는 까닭과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
- 면담 주제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 밝은 표정으로 상대와 눈을 맞추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 가벼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상대가 주저하는 내용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우회적으로 묻는다.
- 면담 대상이 꺼리는 내용은 일단 피하고 넘어간다.
- 면담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린다.
- 면담 대상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신경을 쓴다.
- 최대한 집중하여 경청한다.
- 녹음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록도 함께한다.

참고 자료

09 이 글의 '나라'와 '정우'는 '요리 예술사'를 만나 면담하면서 요리 예술사가 하는 일, 요리 예술사의 활동 영역, 요리 예술사가 된 계기, 요리 예술사가 되는 방법 등을 질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문 내용을 볼 때 이 면담의 내용은 면담의 목적인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유명한 요리 예술사에 대한 내용은 이 면담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오답인 이유 ① 요리 예술사는 어려서부터 요리를 좋아해서 대학에서도 요리를 전공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요리와 관련된 일들을 했는데, 그때의 경험을 통해 요리 예술사란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면서 요리 예술사가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② 요리 예술사는 요리를 아름답게 표현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요리 예술사가 하는 일을 알려 주고 있다.

③ 요리 예술사가 되기 위해 관련 학원, 전공 학교를 다니거나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고, 음식이나 식재료와 관련된 공부를 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서 요리 예술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④ 요리 예술사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광고나 잡지, 드라마, 영화 속의 음식 모양새 꾸미기, 행사 음식 기획이나 새로운 식단 개발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한다고 하면서 요리 예술사의 활동 영역을 알려 주고 있다.

10 이 글은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면담한 내용이다. 따라서 질문에는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면담 대상자의 답변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다. ②의 '요리 예술사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은 어디인가요?'는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을 알기 위한 질문과는 거리가 멀다.



완자뱀의 풀이

면담에서 질문을 만들 때에는 무엇보다 면담의 목적을 먼저 떠올려야 해. 이 면담은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면담이므로, 이 직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을 찾으면 돼.

대단원 평가



150~155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①	05 원천강
06 ②	07 ④	08 ①	09 ③	10 ⑤
11 ④	12 ⑤	13 ①	14 ⑤	15 ④
16 ④	17 ②	18 ③	19 ④	

20 음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요리를 더욱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다.

01 이 글에는 중심인물인 '오늘이'와 주변 인물인 '큰 뱀', '매일이'가 등장하고 있다. '오늘이'는 이들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주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오늘이'는 원천강을 지키는 신관과 선녀가 된 부모님을 만나러 여행길에 오른다. 이 과정을 통해 '오늘이'도 하늘나라 선녀가 되므로 이 글은 '오늘이'의 성장 과정과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이 글은 설화 갈래 중 신화에 속하는데, 비범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하며 신성성과 상징성을 띠고 있다.

⑤ 이 글은 부모님을 찾아 길을 떠난 '오늘이'가 사계절을 전하는 선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신화이다. 이 이야기는 제주도 신화 '원천강본풀이'의 내용으로, 서사 무가에 기원을 두고 있다.

02 '오늘이'는 부모님을 만나 별충당에서 매일 글을 읽어야만 하는 벌을 받은 '매일이'가 그러한 신세를 면할 방법을 알아와라며, '매일이'를 이끌고 길을 떠난다. '오늘이'와 '매일이'는 '큰 뱀'의 등에 타고 수만 리 물길을 건너 청수 바닷가에 이르지만, 여기에서 둘이 헤어진 것은 아니다. '매일이'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했으므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곳까지 같이 갈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큰 뱀'은 '오늘이'에게 여의주를 세 개나 물고 있어도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 달라고 하였다.

② '매일이'는 하늘에서 벌을 받았는데, 이는 별충당에 매일 앉아 글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③ '큰 뱀'은 '오늘이'의 말을 듣고 물고 있는 여의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뱉어서 '오늘이'에게 주었다. 여의주를 하나만 물게 되자 '큰 뱀'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게 되었다.

④ '매일이'는 '오늘이'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는 선녀들에게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면 그들이 알려 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선녀들은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3 (가)에서 '오늘이'는 '큰 뱀'과 '매일이'를 만나 그들의 문제를 듣게 된다. '큰 뱀'은 다른 뱀은 여의주 하나만 물고도 용이 되는데, 자신은 여의주를 셋이나 물고서도 용이 못 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매일이'는 언제까지 별충당에서 매일 글을 읽는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나)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낸 '오늘이'가 '큰 뱀'에게는 여의주를 한 개만 물어야 한다고 알려 주고 있고, '매일이'에게는 자기와 함께 가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있다.



완자샘의 풀이

(가)와 (나)는 동일한 이야기의 일부분이므로 (가)와 (나)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해. 등장인물이 모두 같으므로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찾아야 하지.

04 이 글은 이야기이므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요약하거나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방법은 주장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② 긴 이야기를 간추려 줄거리 위주로 요약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다.

③ 이 글은 이야기이며,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이다.

④ '오늘이'가 이동하는 장소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이다.

⑤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만난 대상들에게서 부탁을 받고, 원천강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들의 부탁을 해결해 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이다.

이야기의 요약 방법

-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전개될 때
-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의 변화가 사건 전개에 중요하게 작용할 때
- 사건 전개를 중심으로 요약하기: 각 사건이 앞뒤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며 전개될 때
- 인물의 업적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전기문이나 자서전처럼 인물의 업적을 중심으로 다룰 때
- 문제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단계별로 문제가 제시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구조일 때

참고 자료

05 **서술형** '오늘이'는 부모님, 이름, 성, 나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에서 살아가다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된다. (나)로 보아 '오늘이'가 부모님을 찾으러 '원천강'에 가는 중임을 알 수 있고, (다)에서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부모님을 만났음을 알 수 있다. (라)로 보아 '원천강'은 하늘나라 선녀가 돌보는 초월적 공간이자 신성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06 이 글의 '오늘이'는 이름과 성, 나이도 모른 채 들에서 홀로 살아가는데, 하늘에서 학이 날아와 돌봐 주어 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오늘이'의 초월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른이 되어서는 옥황상제의 부름으로 하늘나라 선녀가 되어 원천강을 돌보며 사계절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으므로(㉡) 여기에서도 초월적 면모가 나타나고 있다.

오답인 이유 ㉠ '오늘이'는 처음 만난 선녀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그들이 우는 이유를 묻고 있다.

㉡ '오늘이'가 지혜로운 인물이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려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오늘이'는 자신이 받은 부탁을 들어주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7 (나)에서 '마을학교'는 행정 관청의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라)에서 '마을학교'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은 마을 주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였으므로, 교육 프로그램은 행정 관청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만든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나)를 보면, '마을학교'에서는 누구라도 이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이웃에게 배우는 학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②, ⑤ (라)를 보면 '마을학교'에서는 마을 주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한 주민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다가 축제와 같은 행사를 벌이고, 더 나아가 마을 사업으로 확장한다고 하였다.

③ (라)를 보면, '마을학교'에서는 함께 학습하던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공동육아를 시작하고, 이를 발전시켜 어린이 집이나 학교를 세우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08 이 글의 (가)는 '마을학교'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을, (나)~(라)는 '마을학교'의 개념을, (마)는 '마을학교'에 대한 글쓴이의 기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의 문단끼리 묶으면 '처음-(가)', '가운데-(나), (다), (라)', '끝-(마)'로 나눌 수 있다.

09 (다)의 첫 문장에서 '마을학교'가 '무엇을 위해 활동하는가'라고 언급하며 '마을학교'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마을학교'가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의 중심 내용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학교' 정도가 적절하다.

10 (다)에서 제시한 '마을 주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 마을 축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학교 세우기, 마을의 문화 예술 공간 만들기' 등과 같은 '마을학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활동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활동'으로 포괄하여 요약하고 있다. 이는 요약의 방법 중 일반화의 방법이다.

참고 자료

요약의 개념과 규칙

① 요약의 개념: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등의 규칙에 따라 글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요약의 규칙

- 선택: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심 문장을 찾는다.
- 삭제: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 예로 든 내용은 지운다.
- 일반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은 그것들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바꾼다.
- 재구성: 중심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든다.

11 제시된 글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담겨 있는 주장하는 글이다.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인물의 주요 활동과 업적을 고려하여 요약하는 방법은 전기문이나 자서전에 적절하다.

② 육하원칙은 역사 기사, 보도 기사 따위의 문장을 쓸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의미하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를 이른다. 이러한 육하원칙에 따른 주요 내용을 고려하여 요약하는 방법은 기사문에 적절하다.

③ 설명 대상과 그것에 대한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방법은 설명하는 글에 적절하다.

⑤ 인물, 사건, 배경 등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방법은 이야기에 적절하다.

12 (다)에서는 요즘 국내산이 아닌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면서 시장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파는 농산물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가 농장에서 직접 농산물을 거두어 들이는 농장 시장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장 시장으로 인해 시장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파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한 ⑤는 이 글의 내용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마)에서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고,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하기에 농민 노천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져서 믿을 만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농장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는 농산물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농장 시장의 농산물은 소비자가 농장에서 직접 거두어 들인 것이기 때문에 농장 시장은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13 (나)는 농장 시장이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다)는 농장 시장이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라)는 농장 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나)~(라)는 공통적으로 농장 시장의 이점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묶어 '본론'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14 정우가 전자 우편에 함께 보낸 '면담 질문지'에는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다른 질문들은 요리 예술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에 해당하나 ⑤와 같이 '요리 예술사들이 즐겨 하는 취미 활동'은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15 '정우'는 '언제가 좋을지 선생님께서 편하신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맞추어 찾아가겠다고 하

고 있다. 즉 '정우'와 면담 대상은 이전에 시간을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약속했던 시간이 정확하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정우'는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싶어서 면담을 요청한다는 면담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면담에서 '정우'가 질문할 내용으로 면담 질문지에도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면담 대상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면담 허락을 구하고 있다.

⑤ 면담 대상자가 질문지를 읽고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 이 글은 '정우'와 '나라'가 요리 예술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한 내용이다. '정우'와 '나라'는 요리 예술사를 만나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다수의 청중에게 한 방향으로 소통하는 말하기는 강의나 강연이다.

②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말하기는 주장하는 말하기나 건의하는 말하기이다.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 협력하는 말하기는 토의이다.

⑤ 면담은 면 대 면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17 이 글의 '정우'와 '나라'는 요리 예술사와의 면담을 통해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요리 예술사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고 있다.

18 '나라'가 요리 예술사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순간을 묻자, '요리 예술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요리를 보고 좋은 반응을 보일 때라고 하였다. 요리 예술사는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③은 알맞지 않은 내용이다.

19 면담을 진행한 후에는 이를 목적에 맞게 정리해야 하는데,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촬영해 두지 않으면 면담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면담 대상자의 답변을 경청하며 대화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녹음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록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

20 **서술형** '요리 예술사'는 '요리 예술사가 되는 방법'에 대한 답변으로 음식이나 식재료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요리 예술사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한 답변으로 호기심, 색감과 요리에 대한 기본 감각, 꾸준히 노력하는 열정과 성실성, 다양한 식재료의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식재료의 색, 질감, 맛 등의 특성이나 요리 방법을 알면 음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요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①처럼 말한 까닭 두 가지를 썼다.	☐
~수 있다.'의 문장 형태로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01 ①	02 ①	03 정우	04 ④
05 (가): 온라인 대화, (나): 문자 메시지	06 ⑤	07 ②	
08 ④	0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②	14 ②	15 ⑤
16 ③	17 ④	18 ④	19 ②
20 ④	21 ④	22 ①	
23 ②	24 ④	25 ②	

01 이 토론에서 ‘수미’는 많은 청소년 연예인들이 방송 일 때문에 학교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는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미’가 일반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② ‘소연’은 연예인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근거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정우’는 청소년 시기에 연예인이 되면 인성이 쉽게 변할 수 있음을 근거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준서’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수미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음을 근거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지민’은 청소년들이 연예계로 활발하게 진출하여 청소년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함을 근거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02 이 토론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진행된 것이다. 이 토론의 청중들은 토론자들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들어야 한다. 한편 본문은 토론자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므로, 이 내용으로 토론자가 자신의 주장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주장하는 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 근거와 주장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판단한다.
-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가 없는지 판단한다.

03 **서술형** 이 토론의 토론자 중, 친구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는 사람은 ‘정우’이다. ‘정우’는 연예인이 된 자신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했지만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례를 청소년 연예인 전체로 선불리 일반화하여, 청소년 시기에 연예인이 되면 쉽게 인성이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타당성이 떨어진다.

04 이 토론에서 ‘준서’는 ‘수미’가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근거로 ‘수미’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여 주장

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준서’에게 비판적으로 듣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05 **서술형** (가)는 친구들과 인터넷상에서 나누는 온라인 대화이며, (나)는 휴대 전화를 활용한 문자 메시지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가)가 온라인 대화임을 썼다.	☐
(나)가 문자 메시지임을 썼다.	☐

06 (가)는 온라인 대화이며, (나)는 문자 메시지이다. 온라인 대화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 모두 시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② (가)와 (나) 모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이다.

③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동시에 여러 명이 소통할 수 있지만, 문자 메시지는 동시에 여러 명이 소통하기 어렵다.

④ (가)와 (나) 모두 문자, 그림말,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

쌍방향성	일대일 혹은 일대다의 방식으로 서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비선형성	그물망처럼 정보가 연결되어 있어 정해진 순서 없이 이곳저곳으로 자유롭게 정보 검색이 가능함.
복합성	문자, 음성,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정보를 처리함.

07 (가)의 윤희는 ‘술까말(술직히 까놓고 말해서)’, ‘ㅇㅈ(인정)’, ‘강추(강력 추천)’ 등 어법에 맞지 않는 줄인 말이나 낱말의 초성자만을 사용하여 표현한 말, 신조어 등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윤희’는 비속어(‘놈’, ‘멍청이’ 등)를 사용하지 않았다.

③ ‘윤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표현(‘짱깨’, ‘검둥이’ 등)은 쓰지 않았다.

④ ‘윤희’는 문자와 그림말(^^)만 사용하고 있다.

⑤ ‘윤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신조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면 하나의 공식적인 단어로 인정받기도 한다.

08 (나)는 학생 가요제 예선에 통과하였으니 예비 소집에 꼭 참석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며, 예비 소집의 일시와 장소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보기>는 학생 가요제 예선에 통과하였다는 내용과 본선 예비 소집의 일시와 장소를 비롯하여 본선 예비 소집에서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선 예비 소집에서 할 일을 더 자세히 알려 주는 것은 (나)가 아니라 <보기>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⑤ (나)와 <보기>는 유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나)는 내용을 짧게, <보기>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휴대 전화로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와 컴퓨터로 주고받는 전자 우편이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줄글로 쓴 <보기>와 달리 (나)는 '일시', '장소' 등 항목을 나누어 내용을 전달하였다.

③ (나)는 '가요제예선통과'처럼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편 <보기>는 '학생 가요제 예선을 통과했음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처럼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09 이 만화에서는 학교 가요제에서 공연한 영상이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오면서 그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누리소통망(SNS)은 인터넷 매체이므로, 방송 매체를 통해 유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방송 매체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오답인 이유 ① 학교 가요제의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 공연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누리소통망에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③ 10분 전에 올라온 학교 가요제 공연 영상 게시 글에 각각 8분 전, 6분 전에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렸다.

④ 그림을 보면 영상에 찍힌 당사자는 물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모두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공연 영상을 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누리소통망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공연 동영상과 다른 학교 학생들, 연예 기획사 관계자,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10 이 만화의 내용을 보면, 학생 가요제 영상이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오자, 해당 학교의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또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만들어진 정보는 소속 집단 안에서만 공유된다는 내용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

②, ③ 학교 가요제 영상이 바로 누리소통망(SNS)에 올라가 널리 공유됐듯이,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면 정보는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며 그림, 소리, 영상 등이 혼합된 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

⑤ 만화에서 사람들은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온 정보를 새로 공유하기도 하고, 댓글을 달아 영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에서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11 이 만화의 '왕자 탄 백마'는 학생 가요제에서 공연한 친구들이 심사위원과 친해서 예선을 통과하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댓글로 달아 상대를 비방하고 있다. 이는 ⑤와 같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이다.

12 영상의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야기판을 작성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대사나 동작, 촬영 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쓰며, 이야기판 작성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에 한다. 이야기판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영상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의 정보를 정리한다.

참고 자료

영상 제작 과정

계획하기	영상의 주제와 갈래, 시청 대상 등을 정한다.
기획안 작성하기	영상의 제목, 기획 의도, 주요 내용, 역할 분담, 제작 일정 등을 정리한다.
시나리오 작성하기	대사나 동작, 촬영 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쓴다.
이야기판 작성하기	영상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의 정보를 정리한다.
촬영하기	시나리오와 이야기판을 바탕으로 영상을 찍는다.
편집하기	촬영한 영상에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추가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감상하고 평가하기	완성된 영상을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눈다.

13 (가)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작성한 시나리오이다. ②와 같이 화면 상황과 구도를 나타낸 문서는 이야기판이다. 이야기판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화면의 상황과 구도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시나리오를 구체화시킨다.

오답인 이유 ① 시나리오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각본이다.

③, ⑤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로는 대사, 지문, 장면 표시, 해설 등이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통해 인물의 현재 상황이나 심리 등을 전달한다.

④ 시나리오에서는 촬영과 편집을 위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가)에는 'S#(장면 표시 번호)'과, 'NAR(해설)', 'E(효과음)' 등이 나타나고 있다.

14 (가)는 시나리오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야기판이다. 이야기판은 촬영될 화면의 상황과 구도를 그림으로 보여 주면서, 시나리오의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나)에 시나리오 용어를 자세하게 풀이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S# 5'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나)에서는 'S# 5-3'과 'S# 5-4'로 잘게 나누고 있다.

③ (나)에는 '번호', '장면 그림', '장면 내용, 촬영 방법',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과 같은 편집 요소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제시되고 있다.

⑤ (나)에서는 (가)와 달리 '민우'의 표정, 앉아 있는 모습, 가슴 클로즈업 등과 같은 촬영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완자쌤의 풀이

(나)는 (가)의 일부분을 이야기판으로 작성한 거야.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서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일치하는 선지를 하나씩 지워 나가자.

15 (나)는 이야기판(스토리보드)이다. 이야기판은 장면을 세분화하여 표현한 그림과 장면 내용, 촬영 방법,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촬영할 장면과 순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데, 이야기판을 통해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촬영이나 편집의 방향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이야기판은 효율적인 작업을 돕는 역할을 한다.

16 촬영한 영상에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넣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편집의 역할이다. <보기>의 학생은 이야기판을 보면서 나중에 영상에 녹음한 대사를 넣어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편집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답안·이유 ① 감독은 연기,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을 한다.

② 촬영은 시나리오와 이야기판을 바탕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일을 한다.

④ 미술은 촬영 장소를 미리 섭외하고 의상과 소품 등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

⑤ 시나리오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장면과 그 순서, 배우의 행동과 대사 등을 글로 표현하는 일을 한다.

17 글을 요약할 때, 글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이 다르다. (가)는 이야기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가)의 경우, 문제 제시('장상'에게 부탁받은 일)와 문제 해결('장상'의 문제 해결)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도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나)는 마을학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설명하는 글은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④와 같이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요약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18 (가)에서 '오늘이'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원천강을 찾아가려고 한다. 가는 길을 모르는 '오늘이'는 처음에 남쪽 흰모래 마을 별충당을 찾아가서 '장상'에게 길을 물어본다. 이에 '장상'은 연화못의 연꽃 나무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였다. 즉 '오늘이'는 처음에 연화못의 연꽃 나무에게 간 것이 아니라, 흰모래 마을 별충당의 '장상'을 찾아가는 것이다.

19 '오늘이'는 부모님을 찾아 홀로 낚시고 머나먼 길을 떠나는 용기 있는 인물이다. 또한 여행길에서 처음 만나는 대상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오늘이'는 용감하고 친절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완자샘의 풀이

이야기에서 인물의 성격은 서술자가 직접 말해 줌으로써 파악할 수도 있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파악할 수도 있어.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오늘이'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성격을 파악해야겠지?

20 (가)의 '장상'은 밤낚 별충당에 앉아서 글만 읽어야 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문제에 처해 있었다. 부모님을 만난 후 다시 '장상'을 찾아가 '오늘이'는 '장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번 간 글만 읽어 온, 처지가 비슷한 처녀를 만나 배필로 맞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처녀가 어디에 있냐는 말에 '오늘이'는 이에 부합하는 '매일이'를 데려왔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였다.

21 (나)의 첫 번째 문단은 최근에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현상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무한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마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2 ㉠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마을학교가 행정 관청의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이며, 마을 주민이 마을학교를 이끌어 가는 주체라는 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에는 '마을학교를 누가 주도하는가?'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3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담의 목적과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담 약속을 정한 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

▶답안·이유 ①, ③ 면담은 정보를 얻기 위한 면담, 평가를 위한 면담, 설득을 위한 면담, 상담을 위한 면담 등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면담을 하느냐에 따라 질문할 내용이 달라진다.

④, ⑤ 면담은 면담 대상을 직접 만나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방식이기 때문에, 면담 대상의 경험을 들으며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4 이 면담의 목적은 요리 예술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해야 한다. 요리 예술사가 휴일에 무엇을 하는지는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과 관련한 질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요리 예술사

'요리 예술사'는 '푸드 스타일리스트(food stylist)'를 순화한 말이다. 요리 예술사는 식사나 광고 촬영을 위해 음식이나 각종 식기를 배열하여 테이블 공간을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일을 한다.

25 이 면담에서 '정우'는 ㉠ '요리 예술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면담을 하려고 하니 진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통해 면담 대상인 '요리 예술사'에게 요리 예술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는 면담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답안·이유 ① ㉠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예의를 갖춰 인사한 것이다. ③ ㉢은 면담 중 녹음이나 촬영을 하기 위해 미리 면담 대상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다.

④ ㉣은 면담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⑤ ㉤은 '요리 예술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01 ①	02 ②	03 ②	04 ②	05 ⑤
06 ③	07 ⑤	08 ⑤	09 ㉠-㉡-㉢-㉣-	
㉤-㉥-㉦	10 ①	11 ③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④	17 ①	18 ①
19 ③	20 ④	21 마을학교		22 ③
23 ③	24 ②	25 요리 예술사 일을 하시면서 힘		

든 점은 무엇인가요?

01 <보기>의 '학생'은 텔레비전 속 '영화배우'의 말을 믿고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영화가 재미없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장이 담긴 말은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비판적인 태도로 들어야 함을 조언할 수 있다.

02 제시된 글은 학생들의 토론 답화이다. 학생들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각자 근거를 들어 주장을 말하고 있다. 토론자 중 '수미'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만 말하고 있을 뿐, 사회자의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다.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

- 논제의 범위와 토론 방식을 설명함.
- 토론의 순서에 따라 공평하게 진행함.
- 토론자가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줌.

참고 자료

03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할 때에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 이 글의 '소연'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내용을 근거로, 연예인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소연'이 제시한 근거와 주장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지만, '소연'이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① '수미'는 신문 기사의 통계 정부 발표 내용을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③ '정우'는 연예인이 된 한 친구의 사례만으로 청소년 시기에 연예인이 되면 인성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성급하게 이끌어 내고 있다.

④ '영재'는 진로와 관련된 강연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준서'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수미'의 의견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주장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04 의형제·의자매 제도를 시행하자는 공약과 같은 반 친구들의 단합이 잘될 것이라는 근거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보기>의 학생은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을 하고 있다.

05 인터넷 매체에는 인터넷 게시판, 댓글, 온라인 대화, 블로그, 전자 우편, 누리소통망(SNS) 등이 있다. 이러한 매체들은 문자 정보는 물론 소리,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

① 인터넷 매체는 정보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

② 인터넷 매체는 화자와 청자가 대면한 상황에서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매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다.

③ 인터넷 매체에서 특정 계층이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인터넷 매체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으며, 대부분 따로 정해진 형식은 없다.

06 인터넷 매체 중 '블로그'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시사 평론, 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개인 출판, 개인 방송도 만들 수 있는 매체다. 또한 블로그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다. 개인적인 목적에 한정하거나 비밀스러운 내용을 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07 <보기>를 통해 문자 메시지와 전자 우편의 내용과 형식이 다를 수 있다. (가)와 (나)는 모두 독자인 학생들에게 가요제 예선 통과를 알리는 글로, 본선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나)를 통해 예비 소집에서 안내된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08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는 어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쓰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한편 감정 전달을 위해 그림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09 **서술형**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영상의 주제와 갈래, 시청 대상 등을 정하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획안을 작성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야기판을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촬영한다. 촬영한 영상에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추가하여 편집하고, 완성된 영상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며 평가한다.

10 영상 제작 기획안에는 영상의 제목, 기획 의도, 영상의 갈래, 상영 시간, 주요 내용, 역할 분담, 제작 일정 등을 정리한 내용이 들어간다. 영상을 평가하는 기준은 완성된 영상을 감상하고 평가할 때 필요하다.

11 (가)는 시나리오이고, (나)는 이를 이야기판으로 작성한 것이다. 시나리오가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이라면, 이야기판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면 상황과 구도를 나타낸 문서이다. (나)의 '장면 내용, 촬영 방법'에서 알 수 있듯, 이야기판은 시나리오보다 구체적인 촬영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시나리오와 이야기판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작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촬영과 편집이 이루어진다. (가)와 (나)의 'S#(장면 번호)'에서 할 수 있듯, 둘 다 장면을 단위로 한다.

④ 일정한 줄거리가 없거나 사실성을 강조하는 일부 영상은 시나리오 없이 이야기판만을 작성하여 촬영하기도 한다.

⑤ (나)의 '장면 그림'에 나타나듯, 이야기판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추가하고, 각 장면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촬영 및 편집의 방향을 공유할 수 있다.

12 <보기>에서처럼 어머니께 혼이 난 학생이 작게 느껴지도록 하여 주눅이 든 심리를 표현하려면 촬영기를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 놓고 촬영하는 '하이 앵글(high angle)'의 방식이 효과적이다.

오답인 이유 ① 촬영기와 대상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은 주로 대상이 처한 상황과 큰 움직임을 동시에 전달할 때 사용한다.

② 촬영기를 대상보다 낮은 위치에 놓는 것은 주로 대상을 위엄 있게 느껴지게 하거나 대상의 움직임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④ 촬영기와 대상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하면 대상이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일부가 화면에 크게 보일 수 있다.

⑤ 촬영기를 대상의 눈높이와 수평을 이루게 놓는 것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한다.

13 영상을 제작한 후 평가할 때에는 감독, 시나리오, 촬영, 연기, 미술 등 각 부문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미술 부분을 평가하려면 내용과 어울리는 장소를 섭외했는지, 상황에 맞는 의상과 소품을 준비하였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영상 안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이 글은 부모님을 찾아 길을 떠난 '오늘이'가 사계절의 소식을 전하는 선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신화이다. 국가의 기원을 다루는 신화도 있지만, 이 글은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아이였던 '오늘이'가 부모님을 찾아가는 여행을 거친 후 어른이 되고 하늘나라 선녀까지 되는 성장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② 하늘에서 학이 날아와 '오늘이'를 돌봐 주고, 연꽃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③ '오늘이'는 선녀가 되어 원천강을 돌보고 사계절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④ '오늘이'가 부모님을 찾아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15 '오늘이'가 원천강에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 중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일부분이다. 따라서 '오늘이'와 '오늘이'의 부모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중심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16 (라)에서 '오늘이'의 부모님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이'를 떠나오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오늘이'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로 인해 부모님과 다시 헤어지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7 (다)에는 두레박에 큰 구멍이 뚫려서 물을 퍼내지 못하는 선녀들의 문제 상황이 나타난다. 이에 '오늘이'는 땀방울을 으깨어 문쳐서 구멍을 막고 나서 송진을 녹여서 틈을 막는다. 이처럼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주인공인 '오늘이'의 지혜로 해결되고 있다.

18 (나)에서 '마을학교'는 행정 관청의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이라

고 하였다. 따라서 관청이 '마을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② '마을학교'는 마을 주민이 주도한다(나).

③ '마을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라).

④ 무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던 옛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마을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가).

⑤ '마을학교'에서 마을 주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한다(다).

19 설명하는 글을 요약할 때에는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이 글에 '마을학교'의 주제, 개념, 활동 내용, 지향점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으나, '마을학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글을 요약할 때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0 설명하는 글을 요약할 때에는 설명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인 '처음-가운데-끝'에 따라 글을 나누고, 각각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1 **서술형** 이 글은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비'에, 그 어려움을 막아 주는 '마을학교'를 '큰 우산'에 비유하여, '마을학교'가 우리의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막아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2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면담의 목적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 그런 뒤에 면담 대상에게 면담을 허락 받고 면담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하며, 면담 질문도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면담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면담을 하기 전이 아니라 면담이 다 끝난 후에 하는 활동이다.

23 '나라'는 '요리 예술사'의 대답을 들은 뒤 "음식 모양새 꾸미기보다 음식이나 식재료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군요.", "강한 체력이 필요하더니 미처 몰랐어요."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대답을 요약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경청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지로 볼 수 있다.

24 이 글은 요리 예술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면담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목적의 면담은 마을 신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면담인 ②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⑤ 평가를 위한 면담이다.

③ 상담을 위한 면담이다.

④ 설득을 위한 면담이다.

25 **서술형** '정우'의 질문에 '요리 예술사'는 요리 예술사의 일이 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일이 규칙적이지 않으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의 힘든 점을 물어보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질문을 썼다.	☐
의문문의 형식으로 썼다.	☐
면담 대상에게 예의를 갖추어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썼다.	☐

(1) 언어의 본질

확인 문제

● 173~178쪽

- | | | | |
|-----|-----------|-----|------|
| 1 ③ | 2 언어의 사회성 | 3 ⑤ | 4 시간 |
| 5 ① | 6 ③ | 7 ④ | 8 ④ |

1 언어는 말소리에 뜻을 담아 의사를 전달하는 인간의 의사 소통 수단이다. 이때 말소리와 뜻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소리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2 **선술형** 말소리와 뜻은 처음에는 자의적으로 연결되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지면 그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 한다. 제시된 글에서 사람들이 '민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민지'가 '은하수'로 약속된 말을 멋대로 '사랑강'으로 바꿔 부르며 언어의 사회성을 어겼기 때문이다.

3 '눈'이라는 말을 개인이 마음대로 '코'로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진 말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볼 수 있다.

4 **선술형**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고, 뜻이 변하기도 하며, 새로운 말이 생기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5 '컴퓨터', '누리꾼', '인공 지능', '공정 무역'은 모두 현대에 와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나타나면서 새로 생긴 말이다. 그러나 '즈믄'은 과거에 사용하였으나 현대에 와서 사라진 말이다.

6 언어의 창조성은 새로운 낱말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낱말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지만 이는 일정한 의미를 가진 낱말을 문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사용할 때마다 낱말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한다면 언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을 어리게 되므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7 언어의 자의성은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마음대로 연결되는 특성을 말한다. 표준어로 '다슬기'라고

부르는 대상을 모두 똑같이 '다슬기'라고 부르지 않고 강원도에서는 '골배'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말소리와 뜻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③ '누리꾼'은 과거에 없었지만 현대에 새로 생긴 것이고, '즈믄'은 과거에 있었지만 현대에 사라진 말이다. 이를 통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은하수'라는 말의 어원을 설명하고 있다. ⑤ 언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므로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확인할 수 있다.

8 같은 대상의 이름을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지역 방언이 나타나는 이유는, 말소리와 뜻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④는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주는 예에 해당한다.

소단원 평가



186~187쪽

- | | | | |
|------|------|------|------------|
| 01 ① | 02 ⑤ | 03 ④ | 04 언어의 창조성 |
| 05 ③ | 06 ② | 07 ⑤ | |

01 언어의 자의성이란 동일한 대상을 '은하수', '밀키 웨이(Milky Way)', '갤럭시(Galaxy)' 등으로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마음대로 연결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완자샘의 풀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해. 이와 반대로 '자의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따라서 말소리와 뜻이 반드시 하나의 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즉 마음대로 연결되는 것을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이라네.

02 (나)의 내용에 따르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사회성을 지닌다. 이 언어의 사회성 때문에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마음대로 '학교'를 '책상'으로 바꾸어 "책상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다.

03 우리말로 [나비]라고 부르는 대상을 프랑스에서는 'papillon[파피용]'으로 부르는 것은 말소리와 뜻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므로 언어의 자의성의 예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③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말의 예, ②는 새로 생긴 말의 예, ⑤는 뜻이 변한 말의 예이므로, 모두 (다)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준다.

04  이미 알고 있는 낱말인 ‘바람’을 활용하여 ‘바람이 분다.’, ‘공에 바람을 넣다.’처럼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 ‘누리집’, ‘블로그’처럼 그에 맞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내는 것은 모두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05 ‘닉’이 페니 팬트리 가게에서 산 펜의 가격은 45센트이다. 이후 차례로 ‘데이브’, ‘크리스’, ‘피트’, ‘존’, ‘자넷’이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펜을 샀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만 가격은 나와 있지 않다. 가게 아주머니가 친구들에게 색깔을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프린들’이 펜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하고 팔았음은 알 수 있으나, 가격을 올려서 팔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답안·이유 ① (다)에서 ‘선생님’은 ‘닉’에게 펜이란 말의 어원이 라틴어 ‘피나’임을 설명하고 있다.
 ② (가)와 (나)에서 ‘닉’과 친구들은 가게 아주머니에게 펜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프린들’을 달라고 하고 있다.
 ④ 친구들이 가게에서 펜을 ‘프린들’이라고 부르면서 산 이유는 ‘닉’이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⑤ ‘닉’이 페니 팬트리 가게에서 ‘프린들’을 산 이후로, ‘데이브’, ‘크리스’, ‘피트’, ‘존’, ‘자넷’이 가게를 다녀갔다.

06 (가)에서 ‘닉’은 언어의 뜻과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이해하고 ‘펜’이라는 말을 ‘프린들’이라고 자의적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 만일 ‘닉’이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다면, ‘펜’ 이외의 호칭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반드시 ‘펜’이라고만 불렀을 것이다.

▶답안·이유 ① (다)에서 ‘닉’은 “말이란 건 원래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말이라고 해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근거로 들어 ‘프린들’이 문제 없는 말임을 주장하고 있다.
 ③ (가)에서 ‘아주머니’가 ‘닉’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닉’이 사회적으로 약속되지 않은 단어인 ‘프린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닉’이 씨익 웃은 것은 ‘프린들’이 이제 펜을 가리키는 어엿한 낱말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적어도 가게 안에서는 ‘프린들’이 볼펜을 지칭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생겨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⑤ 만약 ‘프린들’이라는 새로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프린들’이 펜을 지칭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되고, 원래 있었던 말인 ‘펜’이 사라진다면,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생기고, 변하고, 사라진다는 특성인 언어의 역사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07 (다)에서 ‘선생님’은 ‘프린들’ 문제가 너무 커진 것 같지 않냐고 물으며, 그 문제가 학교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선생님’은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하고 기준에 사회적으로 약속된 말인 ‘펜’ 대신에 약속되지 않은 단어인 ‘프린들’을 사용하는 ‘닉’의 행동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소단원 평가

202~205쪽

- 01** ③ **02**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 **03** ③
04 ④ **05** ④ **06** ① **07** ②
08 유미, 슬기 /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방해가 됐다. 등 **09** ③ **10** ⑤ **11** ③ **12** ④

01 토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사소통하는 과정으로, 협력적인 말하기 방식이다. 주제에 대한 찬반 논쟁은 토의가 아니라 토론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토의와 토론의 비교

참고 자료

	토의	토론
차이점	• 협력적인 의사소통 과정임. • 공통의 문제를 최선의 방안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활동임.	• 경쟁적인 의사소통 과정임. •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임.
공통점	어떤 문제에 대한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 과정임.	

02  이 토의는 학교 축제 기간에 열리는 장터에서 우리 반이 무엇을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때 낼 토의이다. 논제는 ‘사회자’의 첫 발언에서 명확히 제시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제시된 글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 썼다.	☐
논제를 한 문장으로 썼다.	☐

완자쌤의 풀이

토의를 시작할 때 ‘사회자’는 토의자와 토의 논제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역할을 해. 이때 토의 논제나 토의 방식에 따라 토의의 배경이 되는 문제를 설명해 주기도 하지.

토의 논제의 진술 방식

토의 논제는 의문문의 형태로 진술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충간 소음(×)**

충간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03 ‘정우’는 먹거리 가게를 제안하는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중 마지막 근거로 친구들의 배도 채워 주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가 먹거리를 선생님들께 팔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우'의 말로 보아 오히려 먹거리는 선생님들보다는 학교 친구들에게 파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4 토의에 참여하는 토의자들은 토의가 협동적인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알고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에는 근거를 들어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즉 토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 가는 말하기이므로, 재치 있고 감동적인 말하기로 청중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최선의 결론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모으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토의자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② 토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토의자가 토의 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할 경우 토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 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토의에서 사회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의자의 발언 기회와 시간을 조절해야 하며 토의자 간의 의견 조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토의자는 이러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이 토의는 패널 토의이므로 이후 토의자 간, 또 토의자와 청중 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토의자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이 지닌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05 제시된 글에서는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라는 토의 논제에 제안된 의견인 벼룩시장, 먹거리 가게, 사진 찍기 체험장에 대해 토의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있다. 이는 패널 토의의 과정 중 '토의자 간 의견 교환' 과정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토의자들이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토의자 제안' 과정이다.

② 사회자가 토의 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는 것은 '토의 논제와 토의자 소개' 과정이다.

③ 사회자가 토의자와 청중의 의견을 종합하여 토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토의 마무리' 과정이다.

⑤ 청중이 논제에 맞게 질문하고, 토의자들이 이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은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이다.

패널 토의의 절차

- 사회자가 토의 논제와 토의자를 소개한다.
- 토의자들은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안한다.
-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자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는다.
- 청중은 논제와 토의의 흐름에 알맞게 질문하고, 토의자들은 이를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한다.
- 사회자는 토의자와 청중의 의견을 종합하여 토의를 마무리한다.

참고 자료

06 '나라'의 제안에 대해 '정우'는 설문 조사 결과를 들어,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들의 관심이 적는데 체험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우'의 말을 통해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사진 찍기 체험장에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라, 남학생의 관심만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③ '나라'는 '정우'의 질문에 여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 같아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남학생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④ '지민'은 사진 찍기 체험장을 제시한 '나라'의 의견에 대해 사진 찍기 체험장에서 사용할 독특한 의상과 소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묻고 있다.

⑤ '나라'는 '지민'의 질문에 대해 캐릭터 의상 대여점을 하시는 '대훈이 아버지'께서 공주 드레스와 같은 의상과 수염, 가발 등과 같은 소품을 무료로 빌려주시기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07 '수아'는 '대훈이 아버지'께 공주 드레스 외에 다른 옷도 빌릴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이에 '나라'는 더 빌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답하고 있다. '나라'가 '대훈'에게 물어보자고 한 이유는 '수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떠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훈'에게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이다.

오답인 이유 ① '다혜'는 "먹거리 가게를 운영하려면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같은 취사도구가 필요한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며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같은 취사도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③ '대훈'은 '우리가 의상과 소품을 깨끗이 쓴다면'이라는 조건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다양한 의상이나 특수 분장을 할 수 있는 재료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지민'은 '평소에 쉽게 해 볼 수 없는 경험'이라는 점을 들어 사진 찍기 체험장 운영을 찬성하고 있다.

⑤ '하은'은 '친구들과 재미있는 사진을 찍는다면 그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사진 찍기 체험장 운영에 찬성하고 있다.

08  '유미'와 '슬기'는 '어이가 없습시다.', '기가 막힙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잘못된 태도를 보인 청중이 '유미'와 '슬기'임을 썼다.	☐
'유미'와 '슬기'의 말하기 태도 측면에서 잘못된 점이나, 토의 진행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을 썼다.	☐

참고 자료

토의 참여자가 주의할 점

- 다른 사람의 말에 이의가 있더라도 그것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이나 조소를 보내서는 안 된다.
- 토의 논제에서 벗어나거나 불필요한 말, 확실한 증거가 없는 말,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남의 말을 가로막으면 안 되며, 혼자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는다.
- 다른 참여자와의 의견 충돌을 피하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09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또한 청중의 토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토의자 간의 의견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에서는 청중의 질문과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말하며 청중의 토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10 패널 토의는 각 의견의 대표자가 청중 앞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의를 하고, 이후 청중이 질의하며 참여하는 토의 유형이다. 따라서 청중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해결책을 이끌어 내야 할 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소수의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 유형인 원탁 토의가 적절하다.

②, ④ 주로 학술적인 문제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난 뒤,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토의 유형인 심포지엄이 적절하다.

③ 전문성이 있는 토의자가 발표한 뒤,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토의 유형인 포럼이 적절하다.

11 토의 주제는 토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의 관심사여야 하며,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야 하고, 토의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 반드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를 정할 필요는 없다.

오답인 이유 ① 토의를 할 때에는 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말해야 한다.

② 토의를 할 때에는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④, ⑤ 자신과 생각이 다른 토의자들에게도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한다. 또 협력적으로 다른 의견을 수용해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2 (라)에서는 청중인 '수아'의 질문에 토의자인 '나라'가 답변하고 있고, 옷을 대여해 주기로 한 '대훈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훈이'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토의자가 답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청중과 토의자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수아'가 토의자가 아님은 (가)를 통해 알 수 있다.

대단원 평가



214~217쪽

- | | | | |
|--|-------------|------------------|-------------------------|
| 01 ⑤ | 02 ① | 03 사회적 약속 | 04 ③ |
| 05 ③ | 06 ③ | 07 ④ | 08 언어의 역사성 |
| 09 ⑤ | 10 ④ | 11 ① | 12 ④ 13 ③ |
| 14 우리 반은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한다. | | | |
| 15 ② | | | |

01 같은 뜻을 지닌 말이 나라마다 다르고, 또 같은 언어권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말이 다르다. 따라서 언어의 말소리와 뜻 사이에는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필연적 관계가 없으며 어떤 말소리가 특정 뜻을 가지게 된 이유도 없다. 이

렇게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마음대로 연결되는 본질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한편, 언어의 기호성은 언어가 일정한 내용(의미)을 일정한 형식(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오답인 이유 ① 언어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한다.

②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02 '아빠'와 '딸'이 '은하수'를 보면서 이를 '밀키 웨이', '갤럭시'라고도 부른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대상이라도 이를 표현하는 말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마음대로 연결되는 언어의 본질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오답인 이유 ② 언어의 사회성은 언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특성이다.

③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특성이다.

④ 언어의 창조성은 이미 알고 있는 낱말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낱말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다는 특성이다.

⑤ 언어의 기호성은 언어는 의미라는 내용과 말소리 혹은 문자라는 형식이 결합된 기호로 나타난다는 특성이다.

03 **어휘형** <보기>는 언어의 사회성을 설명하고 있다. 말과 뜻이 자의적으로 연결됨에도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책상은 책상이다」- 페터 빅셀

이 소설은 언어의 사회성을 부정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한 남자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언어의 뜻과 말소리의 결합은 자의적이지만,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지면 언어를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음을 보여 준다.

04 언어의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해 가는 특성을 말한다. ㉡ '안녕'이라는 말을 배운 다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 등의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이 아니라,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하는 예이다.

05 '나비'라는 뜻을 지닌 말이 나라마다 다른 소리로 표현된다는 것은 언어의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오답인 이유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휘'가 '뿌리'로 바뀐 것이므로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② 같은 낱말로 끊임없이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므로 언어의 창조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④ '학교'를 개인의 마음대로 '책상'이라고 바꾸어 말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⑤ '배'라는 동음이의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 관계라면 동음이의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06 이 글의 ‘닉’은 ‘펜’이라는 말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다. ‘닉’이 가게에 가서 ‘아주머니’에게 ‘프린들’을 달라고 한 이후, ‘닉’의 친구들도 똑같은 가게, 똑같은 아주머니에게 가서 ‘프린들’을 달라고 한다. 이에 처음엔 ‘프린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던 ‘아주머니’도 나중에는 ‘프린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즉, ‘닉’과 ‘닉’의 친구들은 각자 다른 가게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게에 가서 ‘프린들’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07 (라)에서 ‘선생님’은 ‘닉’에게 ‘펜’이라는 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말하면서, 언어의 사회성을 지켜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특성이므로, ‘선생님’의 말이 ‘프린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② ‘펜’이라는 말은 한 사회의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인데, ‘닉’은 이를 ‘프린들’로 바꾸어 부르면서 언어의 사회성을 어기고 있다.

③ ‘닉’은 ‘펜’의 어원이 되는 ‘피나’ 역시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하면서, ‘프린들’에도 문제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닉’은 언어의 뜻과 말소리 사이에 필연성이 없음을 근거로 ‘프린들’이라는 말을 창조한 것이다.

⑤ ‘선생님’은 ‘펜’을 ‘프린들’이라고 부르는 문제가 커져서 학교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선생님’이 이로 인한 혼란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8 **서술형** ㉠은 ‘말이란 건 원래 변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언어의 본질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해 가는 특성인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09 제시된 글은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라는 논제로 진행된 패널 토의이다. 토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10 벼룩시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모을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정우’이다. ‘나라’는 벼룩시장에 대해 친구들의 흥미를 높일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사회자’의 말을 통해 이 토론의 논제가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지민’은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돈이 들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절약 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벼룩시장을 열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③ (나)에서 ‘정우’는 축제는 재미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먹거리 가게를 제안하고 있다.

⑤ (다)에서 ‘나라’는 벼룩시장에 친구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며 벼룩시장에 대한 친구들의 흥미를 높일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지민’은 벼룩시장 홍보물을 만들 것이고, 축제 기간에 경품 추첨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1 이 토의의 ‘사회자’는 (가)에서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라는 토의 논제와 토의자인 ‘지민’, ‘정우’,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다)에서는 세 토의자의 의견을 들은 후 토의자끼리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 이는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한 것이다.

12 이 토의에서 알 수 있듯이,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에서 청중들은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토의자들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각 토의자들은 청중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응답한다.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토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완자쌤의 풀이

‘패널 토의’의 절차인 ‘토의 논제와 토의자 소개 → 토의자 제안 → 토의자 간 의견 교환 → 청중과의 질의응답 → 토의 마무리’를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 기억하도록 해.

13 이 토의에서 청중들은 토의자들의 발표를 경청한 뒤, 질의응답 순서인 (가)에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고, (나)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④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일, 토의자들이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고 규칙을 준수할 것을 유도하는 일은 사회자의 역할로 볼 수 있다.

⑤ 자신의 의견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은 다른 토의자나 청중의 질문에 대비해야 하는 토의자의 역할이다.

14 **서술형** (다)에서 사회자가 토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받은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며 토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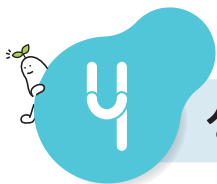
평가 기준	확인 ☒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썼다.	☐
결정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썼다.	☐

15 ㉠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우’의 발언이다. 이는 올바른 토의 태도를 보여 주는 말로,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토의 참여자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어 최선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준다. 토의는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므로 토의가 다수결에 의해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완자쌤의 풀이

다수결이란 회의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을 말하는데, 토론이나 토의에서 대화나 타협, 설득이나 양보 등으로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야. 하지만 제시된 토의에서는 다수결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합의점에 이르고 있어.



성장으로 가는 길

(1) 문학 작품을 통한 삶의 성찰

학인 문제

• 225~233쪽

1 225쪽	1 ⑤	2 ①	3 빨간 호리병박
2 227쪽	4 ⑤	5 ①	
3 229쪽	6 ③	7 ②	
4 231쪽	8 ⑤	9 ③	
5 233쪽	10 ⑤	11 ④	12 ③

1 '뉴뉴'는 '완'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완을 쳐다볼 때에도 무관심한 척한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완'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 모습을 들켜고 싶지 않은 '뉴뉴'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2 '완'은 '뉴뉴'가 자신을 쳐다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차게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뉴뉴'를 의식한 행동으로, '뉴뉴'에게 관심이 있어 잘 보이려고 하는 '완'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3 **서술형** 이 작품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는 '빨간 호리병박'이다. '빨간 호리병박'은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으로 '푸른 물'과 대비되어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완자뽕의 풀이

소설이나 극에 나타난 갈등은 대부분 중심 소재를 중심으로 드러나 있어, 소설을 읽을 때 갈등의 중심이 되는 소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중심 소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4 '뉴뉴'는 작대기를 이용해서 강가에 있는 마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뒤 마름 열매를 따고 있다. 즉 '뉴뉴'는 마름 열매를 따는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뉴뉴'가 '완'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 마름 열매를 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전개-①'에서 '완'이 강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혼자 하루종일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② '전개-①'에서 '완'은 물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뉴뉴'가 강가에 나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전개-④'에서 '뉴뉴'가 '엄마'의 부름에 어쩔 줄 몰라하는 것으로 보아, '뉴뉴의 엄마'는 '뉴뉴'가 '완'과 어울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④ '전개-④'에서 '뉴뉴'가 '엄마'의 부름에도 고개를 돌려 완을 쳐다보는 것으로 보아, '완'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완'은 마름 열매를 따기 어려워하는 '뉴뉴'에게 마름 열매를 따 주고 있다. 그리고 '뉴뉴'가 마름 열매를 받아 들자 '완'의 눈동자가 감격으로 빛났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뉴뉴'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6 '완'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뉴뉴'를 설득하다가 '뉴뉴'를 향해 물세례를 퍼붓는다. '완'의 물세례로 몸에 차가운 물방울이 닿은 후 '뉴뉴'는 조금씩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완'은 '뉴뉴'가 물속에 들어오도록 돕기 위해 물세례를 퍼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뉴뉴'가 물에 들어오자 '완'은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며, 더 이상 해엄을 치지 않고 '뉴뉴'를 보호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고 하였다.

② '완'은 물에 들어오는 것을 망설이는 '뉴뉴'에게 "무서워할 것 없어. 내가 있잖아."라고 하며 '뉴뉴'를 안심시키려고 하였다.

④ '완'은 '뉴뉴'에게 물속이 얼마나 상쾌하고 편안한지를 보여 주기 위해 한껏 애쓰고 있고, '뉴뉴'는 이를 보며 물에 들어갈지 망설이고 있다.

⑤ '뉴뉴'가 물에 들어가면서 '물은 두 아이 사이의 낯설과 거리감을 모두 녹여 버렸다.'라고 하였고, '뉴뉴'와 '완'은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관계가 한층 친밀해지고 있다.

7 '완'은 아이들이 놀아 주지 않는다는 '뉴뉴'의 질문에 우울한 낯빛을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완'은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립무원'은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이라는 뜻으로, '완'의 외로운 처지를 잘 나타내는 한자 성어이다.

오답인 이유 ① '동병상련(同病相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③ '자화자찬(自畫自讚)'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금상첨화(錦上添花)'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죽마고우(竹馬故友)'는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을 가리키는 말이다.

8 '뉴뉴'와 '완'은 함께 물놀이를 하며 가까워졌다. 어느 날 '완'은 '뉴뉴'가 호리병박 없이도 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영하던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고, 이에 '뉴뉴'가 물에 빠지게 된다. '뉴뉴'는 '완'이 자신을 속였다고 오해하고, '완'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한 채 둘의 사이가 멀어진다. 따라서 '뉴뉴'와 '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계기는 '완'이 수영하던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은 사건이다.

9 '완'은 '뉴뉴'가 호리병박 없이도 수영할 수 있음을 알려 주려고 호리병박을 빼앗았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와 달리 '뉴뉴'가 물에 빠지자 당황하며,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민

있던 '뉴뉴'에게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서글프고 속상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④ '완'은 계획과 달리 '뉴뉴'가 물에 빠지고, '뉴뉴'의 엄마까지 나타나자 당혹스럽고 죄를 지은 듯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② '완'은 '뉴뉴'와의 추억이 깊은 작은 섬의 '집'을 불사르면서 절망감과 서러운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⑤ '완'은 '뉴뉴'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며 '뉴뉴'와 즐겁게 놀고 있으므로, 귀찮은 감정은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10 '뉴뉴'는 외할머니에게서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외할머니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기 위해 외할머니를 일부러 물에 빠뜨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에 '뉴뉴'는 '완'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영할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 일부러 호리병박을 빼앗고 자신을 물에 빠뜨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뉴뉴'는 '완'을 만나기 위해 당장 집으로 돌아간다.

오답인 이유 ① '뉴뉴'는 '외할머니'의 경험담을 듣고 '완'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므로 '완'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내용을 깨닫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뉴뉴'는 '완'이 자신이 수영을 할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 일부러 호리병박을 빼앗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 '완'이 자신을 남몰래 좋아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 ③ '뉴뉴'는 이미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수영 실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완'의 도움 없이 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외할머니의 아버지는 외할머니가 스스로 헤엄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 한가운데에서 '외할머니'의 나무 대야를 뒤집은 것이므로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외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물에 빠진 이후 다시는 강가로 나가지 않던 '뉴뉴'는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완'을 오해하였음을 깨닫게 된다. '뉴뉴'는 곧장 강가로 달려가 '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이러한 행동의 이유는 '완'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므로 '완'에게 사과하고 싶어서라고 볼 수 있다.

12 '완'이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뉴뉴'는 빨간 호리병박을 강에 풀어 준다. 빨간 호리병박은 '뉴뉴'가 수영할 때 갖고 있던 도구이자, '완'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다. 따라서 이를 풀어 주는 것은 '뉴뉴'가 혼자 힘으로 수영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완'과의 추억을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픈 경험을 통해 '뉴뉴'가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성장 소설의 특징

성장 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숙의 과정을 그려 낸다. 즉,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 인물이 자아의 미숙함을 딛고 일어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치와 세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로 형상화한다.

참고 자료

소단원 평가



244~247쪽

01 ⑤	02 ③	03 ①	04 빨간 호리병박
05 ⑤	06 마름 열매	07 ④	08 ③
09 ④	10 ①	11 '뉴뉴'가 스스로 수영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다.	12 ⑤
		13 ②	14 ④

01 이 글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사춘기 소녀인 '뉴뉴'가 소년 '완'을 만나 순수한 우정과 사랑, 아픔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낸 소설이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 낸 이야기이다.

오답인 이유 ① 희곡에 대한 설명이다. ②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시에 대한 설명이다. ④ 기행문에 대한 설명이다.

소설의 특성

- 허구성: 소설은 현실에서 소재를 가져와 내용을 꾸민 것으로,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어 낸 이야기임.
- 개연성: 소설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룸.
- 진실성: 소설은 인생의 참된 모습과 진실을 표현하고자 하며, 삶의 진실과 바람직한 인간상을 추구함.
- 산문성: 소설은 운율이 없는 줄글 형식으로 내용을 표현함.
- 서사성: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사건을 전개함.
- 예술성: 소설은 예술의 한 형식으로 이야기를 통해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음.

참고 자료

02 이 글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인공 '뉴뉴'와 '완'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때 주인공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나타나지 않으며, 소년과 소녀의 경험과 성장을 묘사하는 따뜻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중국 농촌의 한 마을, 특히 큰 강을 끼고 마을에서 외따로 있는 두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추보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사춘기 소녀인 '뉴뉴'와 또래 소년인 '완'을 주인공으로 삼아 둘의 우정과 사랑, 아픔을 그려 내고 있다. ⑤ 이 글은 큰 강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소년과 소녀가 순수하게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문체로 그려 내고 있다.

03 '뉴뉴'는 '완'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고, '완'은 '뉴뉴'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면서도 아는 체하지 않고 수영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뉴뉴'와 '완'은 처음 본 사이로 서로에게 호감이 있으면서도 선뜻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린아이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② (가)와 (다)에서 '뉴뉴'는 '완'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며 눈을 떼지 못하고 있으므로, '완'이 수영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③ (다)에서 '완'은 '뉴뉴'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힘차게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라)에서는 '뉴뉴'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따라서 '완'은 '뉴뉴'를 의식하며 '뉴뉴'에게 잘 보이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에 따르면, '완'은 '뉴뉴'를 만나기 전까지 작디작은 섬에서 혼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뉴뉴'는 '완'을 쳐다보면서도 표정은 언제나 무관심을 가졌다고 하였고, (라)에서는 숨어서 '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뉴뉴'는 '완'에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이를 들키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다.

04 서술형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빨간 호리병박'이다. '빨간 호리병박'은 도시 아이들의 튜브 같은 것으로 실수로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물건이다. 호리병박에 새빨간 칠을 해 둔 것도 눈에 잘 띄어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05 '뉴뉴'는 백양나무들을 친구 삼아 노는 '완'의 모습을 보며 '완'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우울한 빛으로 얼굴을 돌린 '완'의 모습에서 그가 울고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뉴뉴'는 '완'의 외로움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완'에게 부담을 느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글에서 '뉴뉴'와 '완'은 강가에서 함께 놀며 서로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뉴뉴'가 '완'을 멀리하려고 한다고도 볼 수 없다.

06 서술형 '뉴뉴'와 '완'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지만 누구도 먼저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완'이 마름 열매를 따기 어려워하는 '뉴뉴'에게 마름 열매를 따 주면서 '뉴뉴'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먼저 드러낸다.

07 '뉴뉴'는 '완'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선불리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다. 이에 '완'은 '뉴뉴'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내고 물에 들어오는 것을 돕기 위해 '뉴뉴'에게 물세례를 퍼붓고, 물이 몸에 닿은 뒤에 '뉴뉴'는 조심조심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08 '완'이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아서 '뉴뉴'가 물에 빠질 뻔한 이후, '완'은 '뉴뉴'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에 '완'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친구를 잃었다는 절망감에 빠져 '뉴뉴'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불태운다. 여기서의 '집'은 '완'이 살던 집이 아니라 '뉴뉴'와 '완'이 만든 것이다.

09 '뉴뉴'는 외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완'이 호리병박을 빼앗은 것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영할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즉 '뉴뉴'는 자신이 '완'의 행동을 오해했음을 깨닫고 '완'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완'을 더욱더 원망했을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완'의 의도와 달리 '뉴뉴'는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완'이 '뉴뉴'를 건져 주었을 때 '뉴뉴'는 '완'을 '사기꾼'이라고까지 부른다. 이런 상황을 겪은 후, '완'은 (다)에서 '뉴뉴'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불태운다. 이때 '완'은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는 절망과 외로움, '뉴뉴'가 물에 빠졌던 것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의도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글픔 등을 느꼈을 것이다. '집'을 완전히 불태운 것으로 보아, ①과 같이 자신의 진심이 통하기를 기다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이 느꼈을 심정과는 거리가 멀다.

11 서술형 '완'이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은 이유는 (라)의 '뉴뉴'의 외할머니의 경험담과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외할머니는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나무 대야를 뒤집어서 물에 빠진 뒤 수영을 할 수 있었다. '완' 역시 외할머니의 아버지처럼 '뉴뉴'가 호리병박 없이도 수영할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 ㉠에서 호리병박을 빼앗았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완'이 '뉴뉴'가 스스로 수영할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2 '뉴뉴'는 '완'이 자신의 빨간 호리병박을 빼앗자 '완'이 자신을 물에 빠뜨리려 했다고 오해하여 '완'에게 ㉡과 같이 말하며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3 이 시에는 주로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며, '항기롭다'에서 후각적 심상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귀로 듣는 것처럼 표현한 청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자연물인 '풀잎'과 '꽃잎'이 상처가 있고, 손을 흔든다고 하여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③ 각운이란 구나 행의 끝에 규칙적으로 같은 운의 글자를 다는 일을 말한다. 이 시에서는 '-다'로 시행을 끝맺고 있고, '~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타나 있다.

④, ⑤ 이 시는 상처를 극복하고 이룬 내면의 아름다움과 서로 상처를 위로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노래하고 있다.

14 이 시의 '풀잎'과 '꽃잎'은 한없이 약한 존재지만, 다른 고달픈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존재이다. 즉, 상처를 극복하여 내면의 성숙과 아름다움을 이루어 낸 존재이다. 따라서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는 표현은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를 뜻하며 고통받는 이웃들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완자뻐의 풀이

시어는 일상어와 달리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시의 문맥을 통해 시어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해 봐. 시어에 대한 화자의 태도, 시어와 시어 간의 관계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

(2) 경험을 바탕으로 글 쓰기

소단원 평가



262~263쪽

-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5 소아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06 ③
07 ③ 08 ② 09 ②

01 이 글은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을 진솔하게 담은 수필이다. 수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아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수필은 특정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쓰는 글로, 글쓴이의 독특한 개성이 잘 드러난다.

④ 수필은 글쓴이가 직접 겪은 경험과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므로,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⑤ 수필은 글쓴이가 글 속에서 '나'로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글이다.

수필의 특성

참고 자료

자유로운 형식	수필은 형식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음.
비전문적	수필은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음.
자기 고백적	수필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글쓴이의 솔직한 느낌이 담겨 있음.
신변잡기적	수필은 글쓴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음.
개성적	수필은 글쓴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는 문학이므로 글쓴이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남.

02 이 글은 글쓴이가 장애로 인해 어린 시절 겪어야 했던 차별과 불편, 그 속에서 어머니가 주신 사랑과 용기 등을 일상적인 어휘를 활용하여 진솔하게 그려 내고 있다. 이 글에는 글쓴이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학교에 다니는 과정은 드러나지만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이 글에서 글쓴이는 어린 시절의 일기와 그 시절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불편을 진솔하게 그려 내고 있다.

③ 이 글에서 글쓴이는 전문 용어나 한자어와 같은 어려운 어휘보다는 일상적인 어휘를 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과 그에 대한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글쓴이는 짐을 정리하다가 어린 시절에 쓴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그 시절의 기억들을 회상하며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03 (라)에 따르면, 글쓴이는 장애를 가진 자신에 대한 아이들의 놀림을 걸으로는 무시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보조기 구둑

발 소리를 크게 내고 걷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글에 글쓴이가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어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글쓴이는 일기장을 보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

② (다)에서 글쓴이의 가족은 다리가 불편한 글쓴이를 위하여 항상 글쓴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다리가 불편한 글쓴이를 글쓴이의 어머니가 업고 오다가 추운 겨울에도 땀을 흘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⑤ (라)에서 장애가 있는 글쓴이를 쫓아다니며 글쓴이의 불편한 걸음 걸이를 흉내 내던 아이들을 글쓴이의 어머니가 혼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완자샘의 풀이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과 가치관이 담긴 글이잖아. 그러므로 수필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다. 수필에 관한 문제에서 꼭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글쓴이이자 수필 속 '나'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파악하며 수필을 읽는 습관을 가져 봐.

04 글쓴이는 소아마비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처지이다. 글쓴이는 이로 인해 겪었던 불편과 차별을 회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준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05 **서술형** (나)를 통해 글쓴이는 소아마비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여 학교에 등교하는 과정이 매우 고되고 어려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소아마비, 혹은 장애가 있는 글쓴이의 처지로 인해 등교가 어렵다는 점을 썼다.	☐
완결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썼다.	☐

06 글쓴이는 자신을 업고 걷느라 추운 겨울에도 땀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 같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엄마의 눈물'은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7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 또한 경험이 담긴 글을 통해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쓴다고 해서 좀 더 유려한(글이 거침없이 미끈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는 수식이나 화려한 표현보다는 진솔하고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08 즐겁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들었던 일도 자신에게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을 떠올려 글을 쓰는 것이 좋다.

09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글감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즉, 경험한 내용을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생각이나 느낌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하며, 글의 구성 단계에 맞추어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개요를 쓸 때 내용이 떠오르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내용이 떠오르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쓰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의 ‘글감 마련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참고 자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조직할 때 유의해야 할 점

- ‘처음 – 가운데 – 끝’으로 구성 단계에 맞추어 개요를 작성해야 함.
- 글의 내용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제목을 정하고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해야 함.
-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면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대단원 평가



270~274쪽

- 01** ⑤ **02** ⑤ **03** ‘완’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04** ② **05** ②
06 ㉠: ‘뉴뉴’의 수영 실력이 향상되었음, ㉡: ‘뉴뉴’가 ‘완’과의 추억을 떠나보내는 것 **07** ④ **08** ④ **09** ④
10 ⑤ **11** ③ **12** ① **13** ③ **14** ②
15 ②

01 이 글은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인물인 ‘뉴뉴’와 ‘완’의 순수한 사랑과 우정을 그려 더욱 맑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소설의 배경

- 개념: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이 행동하거나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 분위기 등을 의미한다.
- 역할: 작품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물의 심리나 사건을 암시한다. 경우에 따라 주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02 ‘완’과 ‘뉴뉴’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다가 (라)에서 ‘완’이 먼저 ‘뉴뉴’에게 마음 열매를 주며 ‘뉴뉴’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오답인 이유 ① ‘뉴뉴’는 ‘완’의 아버지가 근방에서 유명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이 글에 ‘뉴뉴’가 ‘완’의 아버지를 만나거나 ‘완’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당부를 들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서 ‘완’은 ‘뉴뉴’가 자신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고 ‘뉴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영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③ (다)에 따르면 ‘완’은 강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는 외로운 처지이다.

④ (다)에서 ‘완’은 ‘뉴뉴’가 강가로 나오지 않자 ‘뉴뉴’의 관심을 끌어 ‘뉴뉴’를 강가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 물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03 **서술형** ‘완’이 수영하는 모습과 이것 때문에 생기는 아름다운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뉴뉴’의 모습을 통해 ‘뉴뉴’가 ‘완’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뉴뉴’는 ‘완’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완’에게 관심이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완’과 ‘뉴뉴’는 (가)와 (나)에서 소중한 우정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한다. 그러다가 (다)에서 ‘완’이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았는데, (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완’이 ‘뉴뉴’가 혼자서도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호리병박을 빼앗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완’이 처음부터 ‘뉴뉴’의 호리병박을 탐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완’과 ‘뉴뉴’는 물놀이를 하며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다.

③ (나)를 통해 ‘완’이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완’에게 ‘뉴뉴’는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다)에서 ‘뉴뉴’는 물에 빠지고, (라)에서 ‘완’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에서 ‘완’은 ‘뉴뉴’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이사를 간다. 이를 통해 볼 때 ‘뉴뉴’가 물에 빠질 뻔한 일이 ‘뉴뉴’와 ‘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⑤ (마)를 통해 ‘완’이 ‘뉴뉴’가 혼자서도 수영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려고 호리병박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뉴뉴’가 물에 빠지고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불렀을 때 ‘완’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05 (다)에서 ‘뉴뉴’는 ‘완’이 호리병박을 빼앗아 물에 빠지고, (라)에서 ‘완’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다. 즉 ‘뉴뉴’는 ‘완’이 호리병박을 빼앗았기 때문에 ㉠과 같이 말하고 있다.

06 **서술형** ‘뉴뉴’가 빨간 호리병박을 풀어 주는 결말은 호리병박이 필요 없을 만큼 ‘뉴뉴’의 수영 실력이 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빨간 호리병박이 ‘완’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임을 고려한다면 이 결말은 ‘완’과의 추억을 떠나

보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이 글의 결말에서 ‘뉴뉴’는 ‘완’과의 경험을 통해 수영 실력도 늘고 마음도 성장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③와 ⑥ 둘 다 뉴뉴가 주제가 되는 내용으로 썼다.	☐
쓴 내용을 ③와 ⑥에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썼다.	☐

07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담긴 수필이다. 이와 같이 경험이 담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④와 같이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어났던 주제와 다수의 의견을 떠올려 보는 것도 의미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08 글쓴이는 (가)에서 짐을 풀다가 우연히 어린 시절에 쓴 일기를 발견하고 읽어 본다. 글쓴이는 이를 계기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장애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불편, 어머니가 주신 사랑과 용기, 그리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써 내려가고 있다.

09 글쓴이의 가족은 글쓴이를 학교에 가게 하기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고, 어머니는 직접 지은 바지를 글쓴이에게 입히고, 세수, 아침 식사, 보조기를 신기면서 ‘학교 가기’ 전무를 하였다. 따라서 비나 눈이 오는 날에 어머니의 염려로 인해 글쓴이가 학교에 가기 어려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㉔은 ‘필사적인 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힘겨운 준비를 마치고 학교에 갔다는 의미이다.

오답인 이유 ① 「엄마의 눈물」이라는 일기의 제목, 12월 15일이라는 일기의 구체적 날짜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끄는 한편, 뒤에 이 일기와 관련된 내용이 이어질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하며 글쓴이를 업고 오느라 엄마가 흘린 땀을 ‘눈물’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이는 글쓴이에 대한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글쓴이가 소아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업혀 다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글쓴이가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소아마비를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글쓴이의 긍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⑤ 글쓴이의 어머니가 소아마비로 불편한 글쓴이 다리의 혈액 순환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직접 지어 아랫목에 데워 글쓴이에게 입히는 것에서 글쓴이의 다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엿볼 수 있다.

10 (다)를 통해 어머니는 글쓴이의 앞에서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어머니가 실제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가슴 속으로 흘리는 눈물을 알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느낀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글쓴이가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철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적어도 겉으로는 그 놀림을 무시할 수 있었다.’라고 서술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가)의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나를 업어서 데려다주셨’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어머니가 글쓴이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업어서 학교까지 데려다주셨지만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두 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야 했다.’라고 서술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다)의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가 있다고 하여 입학시험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던 학교들…….’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11 이 글의 글쓴이는 소아마비 때문에 겪었던 불편과 차별을 회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준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12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거나 감동을 느꼈던 가치 있는 경험을 선정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담는 것이 좋다.

오답인 이유 ②, ④ 경험이 담긴 글을 쓸 때에는 매체에서 소재를 수집하거나 상상력으로 글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일을 소재로 써야 한다.

③, ⑤ 경험이 담긴 글을 쓸 때에는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을 찾아 일상적인 언어로 진솔하게 쓰는 것이 좋다.

13 문학 작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삶이 담겨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문학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되새겨 보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통해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문학 작품 속 인물은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므로, 이를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나)의 ‘풀잎’이나 ‘꽃잎’은 작고 여린 존재로,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 아픔을 지닌 이웃을 의미한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15 (가)에서 ‘뉴뉴’는 ‘극도의 공포가 극도의 원망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라고 하였으며, ‘완’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뉴뉴’가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완’은 자신을 오해하는 ‘뉴뉴’와 ‘뉴뉴의 엄마’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모두 강가를 떠날 때까지 혼자 계속 강가에 서 있다. 이런 모습에서 ‘완’이 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문학 작품에서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해. (가)에서 ‘뉴뉴’와 ‘완’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봐.



01 ①	02 ②	03 ④	04 ⑤	05 ③
06 ④	07 사회성, 역사성	08 ①	09 ⑤	
10 ⑤	11 유미, 슬기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②	17 '뉴뉴'가 호리병박	
이 없어도 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18 ⑤	19 ①	20 ④	21 ⑤	
22 ②	23 ①	24 ⑤	25 ②	

01 (가)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대상에 대해 '은하수', '밀키웨이', '갤럭시'처럼 말소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은 언어의 자의성에 해당한다.

02 (나)에서는 '딸'이 마음대로 단어를 바꾸어 부르려고 하자 '아버지'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언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며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인 '책상'을 '의자'라고 바꾸어 부르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 예이다.

오답인 이유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가 바뀌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의 예에 해당한다.

③, ⑤ '배'와 같이 동음이의어가 있는 것과 '하늘'이라는 단어를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의 예에 해당한다.

④ 어린아이가 단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의 예에 해당한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 소리는 같으나 의미는 전혀 관계없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예 풀이. 쌀이나 밀가루 따위의 전분질에서 빼낸 끈끈한 물질. / 풀02. 초본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다의어(多義語):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대응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 중심적 의미에서 뻗어나간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한다.

예 중심적 의미-손(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 주변적 의미-손(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03 (다)에서 '아버지'와 '딸'은 사라진 고유어인 '온'과 '즈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해 가는 특성인 언어의 역사성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는 사라지기도 하고, 뜻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말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말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고유어와 한자어는 서로 경쟁하여 고유어가 살아남기도 하고 한자어가 살아남기도 했단다. 이는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사례지.

04 '딸'은 자신이 아는 낱말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낱말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낱말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언어의 창조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05 '나비'라는 뜻을 지닌 말을 한국어와 영어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언어의 말소리와 뜻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주는 예에 해당한다. 만약 언어와 말소리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면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칭해야 할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다슬기'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의 예에 해당한다.

②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컴퓨터'라는 말을 임의로 바꾸어서 '달력'이라고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 주는 예에 해당한다.

④ '어어쁘다'라는 말의 의미가 변화한 것은 언어의 역사성의 예에 해당한다.

⑤ '희망'이라는 낱말을 사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의 예에 해당한다.

06 이 글에서 '닉'은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하고 '펜'이라는 말을 '프린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문제가 커진 것 같다고 말하는 '선생님'에게 "말이란 건 원래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라고 하며, 언어의 역사성을 근거로 언어는 변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닉'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⑤ '닉'은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펜'이라는 말을 '프린들'이라고 바꾸어 부른다. 그러면서 원래 '펜'의 어원인 '피나'도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만든 말일 뿐이므로 '프린들'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② '닉'은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인 '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임의로 '프린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닉'과 친구들은 '펜'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따라서 '프린들'은 '닉'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앞에서 배웠던 언어의 본질인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창조성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닉'이 언어의 본질 중 어떤 것과 관련된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07 **서술형** 이 글에서 '선생님'은 '닉'이 임의대로 '펜'을 '프린들'이라고 바꾸어 부르자, 언어의 사회성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선생님의 염려를 듣고 '닉'은 말이라는 건 원래 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것이다.

08 토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다. 따라서 토의가 필요한 상황은 ‘공통의 문제 상황’이 있어야 하고, 토의를 통해 협력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①은 방법용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토론의 논제로 적절하며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토의가 필요한 상황

- 집단 구성원들의 주장과 의견이 다를 때
-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 자료

09 토의에서 사회자는 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고 토의자 간의 의견 조정을 유도하며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이때 사회자는 주로 토의 진행을 담당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10 ‘나라’는 사진 찍기 체험장이 여학생들의 참여는 매우 높을 것 같지만, 남학생들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나라’가 사진 찍기 체험장의 참여율이 남녀 모두 높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우를 설득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사회자’는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라는 주제로 토의한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정우’는 사진 찍기 체험장에 남학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지민’은 벼룩시장을 열 것을 제안하면서 잘 쓰지 않는 물건을 재활용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친구들에게 절약 정신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정우’는 ‘먹거리 가게는 우리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다른 가게보다 훨씬 재미있고 추억에 남을 것’이라고 하였다.

11 **서술형** 이 토의에서 ‘유미’와 ‘슬기’의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방해가 된다. 토의를 할 때 토의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또한 토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12 패널 토의는 ‘토의 논제와 토의자 소개 - 토의자 제안 - 토의자 간 의견 교환 - 청중과의 질의응답 - 토의 마무리’의 절차로 진행된다. (다)는 토의자 간 의견 교환 단계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자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토의 논제와 토의자 소개’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② ‘토의자 제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③ ‘토의 마무리’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⑤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13 (라)에서 ‘사회자’는 정해진 방안과 다른 의견을 냈던 ‘정우’의 생각을 묻고 있고, 이에 ‘정우’는 ㉠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우’의 말은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토의 참여자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어 최선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완자쌤의 풀이

토의는 여러 사람이 공통의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므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의를 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 기억하도록 해.

14 이 글은 큰 강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춘기 소녀 ‘뉴뉴’와 소년 ‘완’을 주인공으로 삼아 이들의 아픔과 성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내고 있다. 이처럼 한 인물이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을 성장 소설이라고 한다.

15 (가)를 통해 ‘완’이 ‘뉴뉴’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뉴뉴’를 의식하여 더욱 힘차게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완’과 ‘뉴뉴’는 함께 수영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③ ‘뉴뉴’는 실제로 수영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완’에게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말한 것일 뿐, ‘완’에게 자신의 수영 실력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다.

④ (가)에서 ‘뉴뉴’가 ‘완’의 빨간 호리병박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 것은 ‘완’이 수영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⑤ ‘뉴뉴’는 ‘완’이 전학을 간 이후 호리병박을 강에 풀어 주며 ‘완’과 함께한 추억을 떠나보낸다.

16 (가)를 통해 ‘뉴뉴’와 ‘완’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뉴뉴’와 ‘완’이 함께 물놀이를 하며 물가를 뛰어다니고, 깊은 물속까지 들어가 얼굴만 내밀고 마주서 있어 보기도 하는 등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다.

17 **서술형** (다)에서 ‘완’은 ‘뉴뉴’에게 “사실 지금도 넌 수영할 수 있어. 네가 겁을 먹어서 못할 뿐이지.”라고 말하고 있다. 즉 ‘완’은 이미 ‘뉴뉴’가 수영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에서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아 ‘뉴뉴’가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려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뉴뉴’가 혼자 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
‘~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썼다.	☐

18 ‘뉴뉴’가 ‘완’과의 추억이 있는 빨간 호리병박을 강에 풀어주는 행위는 첫째, 뉴뉴의 수영 실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

고, 둘째, '뉴뉴'가 '완'과의 추억을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뉴뉴'의 마음이 성장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 <보기>의 시는 상처를 극복하고 이룬 내면의 아름다움과, 서로 상처를 위로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다고 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20 이 글은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을 담은 수필이다. 이 글에는 장애로 인해 글쓴이가 어린 시절 겪어야 했던 차별과 불편, 이러한 일상에서 깨달은 어머니가 주신 사랑과 용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21 이 글의 (나)를 보면, 장애로 인해 걷는 것이 불편한 글쓴이를 위해 눈이 왔을 때 어머니께서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연탄재를 깔아 놓았기에 글쓴이는 그 위로 걸으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고 하였다.

22 이 글의 글쓴이는 소아마비 때문에 겪었던 불편과 차별을 회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준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

23 (다)에서 글쓴이의 어머니는 글쓴이를 화장실에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학교로 뛰어오셨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과 가장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의미의 '노심초사(勞心焦思)'이다.

오답인 이유 ②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④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이르는 말이다.

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24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의 좋은 점은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경험을 글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진솔한 표현이 특징이므로 일상적인 경험을 특별한 것처럼 꾸며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5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거나 감동을 느꼈던 일상의 경험을 써야 한다. 또한 이때 화려한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언어로 진솔하고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오답인 이유 ㄴ.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에는 과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ㄷ.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슬프고 힘들었던 일 위주로 쓸 필요는 없다. 일상의 평범한 경험 속에서도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기말고사 2회



281~286쪽

01 ③	02 ④	03 (다)	04 ②	05 ④
06 ④	07 ㄴ-ㄷ-ㄱ-ㄱ	08 ③	09 ①	
10 축제(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				11 ④
12 ③	13 ②	14 ④	15 ④	16 호리
병박	17 '뉴뉴'와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18 ③		
19 ④	20 ③	21 ②	22 ④	23 ②
24 ③	25 (나)			

01 말소리와 뜻이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소리와 뜻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마음대로(임의대로) 연결되는데, 이와 같은 언어의 본질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02 (가)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어여쁘다'라는 말의 뜻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나 뜻이 달라진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② 동음이의어는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⑤ 언어의 창조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03 **서술형** 지역마다 같은 대상을 다른 소리로 칭하는 지역 방언이나, 하나의 소리가 여러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는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준다. 자의성에 관한 설명은 (다)에 제시되어 있다.

04 (가)~(라)는 각각 언어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해 가는 특성인 역사성, (나)는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회성, (다)는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마음대로 연결되는 특성인 자의성, (라)는 새로운 낱말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인 창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특성을 이해하면 일상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05 말소리와 뜻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이 마음대로 연결되는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언어의 본질 때문에 '닉'이 '펜'을 '프린들'로 마음대로 바꾸어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06 이미 사회적으로 약속된 말인 '펜'을 '프린들'로, '은하수'를 '사랑강'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쓰면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다.

07 **서술형** 토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토의가 필요한 문제들을 탐색하고 이 중 하나를 골라 논

제의 형태로 진술하는 ‘논제 정하기(ㄴ)’ -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토의 내용 마련하기(ㄷ)’ - 각자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토의하기(ㄴ)’ - 토의 과정과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토의 내용 정리하기(ㄷ)’

08 제시된 토의는 각 의견의 대표자가 청중 앞에서 토의 주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후 청중이 토의자에게 질의하며 참여하는 패널 토의(배심 토의)이다.

오답인 이유 ① 심포지엄에 대한 설명이다.

②, ⑤ 세미나에 대한 설명이다.

④ 원탁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09 토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다. 이러한 토의를 통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살피볼 수 있으며,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다. 하지만 토의는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는 토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0 **서술형** 이 토의가 패널 토의(배심 토의)이며, 세 명의 토의자(패널)가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각자 준비해 온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 토의의 논제는 “축제(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지가 논제임을 썼다.	☐
의문문의 형태로 썼다.	☐

11 (가)에서 ‘정우’는 먹거리 가게를 제안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재미있고 추억에 남을 것이며, 배가 불러야 축제를 잘 즐길 수 있고, 맛이 좋은 음식으로 친구들의 배도 채워 주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12 ㉠은 ‘나라’가 다른 토의자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자신이 다른 토의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능동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말은 토의 참여자 간에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오답인 이유 ① ㉠은 자신이 제안한 ‘벼룩시장’의 정의를 내린 것이다.

② ㉠은 속담을 통해 자신의 근거를 강조한 것이다.

④ ㉠은 ‘주민’이 ‘정우’의 질문에 벼룩시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모을 수 있다고 응답하기 위하여 기부받을 수 있을 만한 물건의 예를 든 것이다.

⑤ ㉠은 토의자인 ‘정우’의 의견에 대해 청중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13 ㉠에서 사회자는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고 있으

며, 토의자 간의 의견 교환을 안내하며 의견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14 이 글은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를 통해 뉴뉴와 완의 행동, 사건이 진행되는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사춘기 소년·소녀인 ‘완’과 ‘뉴뉴’의 맑고 순수한 우정과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이 사라진 현실에 대한 비판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작가가 현실 세계에 일어날 법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 쓴 소설이며, 작가의 경험을 진솔하게 쓴 글은 수필이다.

③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은 1960~70년대의 중국이지만, 공간적 배경은 중국의 농촌으로, 도시가 아니다.

⑤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모두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글이다. 한편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15 ‘뉴뉴’는 ‘완’의 진심을 오해하고, 소중한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것을 미안해하며 한층 더 성숙하게 되었다. ‘뉴뉴’는 ‘완’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호리병박을 강물에 풀어 주는 행위는 ‘완’과의 추억을 떠나보내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완’과 있었던 모든 일을 잊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서술형** ‘완’이 ‘뉴뉴’의 호리병박을 낚아챈 이유는 ‘뉴뉴’가 호리병박 없이도 충분히 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뉴’는 아직 자신이 호리병박이 없이는 수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완’의 행동을 오해하여 ‘완’을 원망하게 된다.

17 **서술형** ‘뉴뉴’와 ‘완’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만, 누구도 먼저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완’이 ‘뉴뉴’에게 마름 열매를 따 주면서 ‘뉴뉴’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먼저 드러낸다.

평가 기준	확인 ☒
‘완’의 행동에 ‘뉴뉴’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음을 썼다.	☐
‘~ 때문이다’의 형태로 썼다.	☐

18 (다)에서 ‘완’이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은 것은 ‘뉴뉴’가 호리병박 없이도 스스로 수영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려는 것일 뿐, ‘뉴뉴’에게 분노를 표현한 행동이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뉴뉴’는 ‘완’이 헤엄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도, ‘완’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 무관심한 척하였다.

② ‘완’은 언제나 혼자 수영을 하는 등 친구가 많지 않다. ‘완’이 이렇듯 외로운 처지인 것은 ‘완’의 아버지가 근방에서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완’은 겁에 질려 자신을 원망하는 ‘뉴뉴’를 보며 미안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모두 느꼈을 것이다.

⑤ 빨간 호리병박은 그에 얹힌 '뉴뉴'와 '완'의 추억을 상징한다.

19 집은 '뉴뉴'와 '완'이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과 추억이 깃든 장소이지만 '완'은 이를 불태워 버린다. 이러한 행동에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잃은 절망감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혼자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0 이 글은 수필로, 경험이 담긴 글이다. 경험이 담긴 글을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보다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거나 감동을 느꼈던 가치 있는 경험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담아야 한다.

21 자신의 경험을 담아 글을 쓰는 것은 기록을 통해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경험을 글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 가치가 있다.

오답인 이유 **ㄷ.** 경험을 담아 쓰는 글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이므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ㄹ. 경험을 담아 글을 쓸 때는 무조건 미사여구를 쓴 화려한 문장을 쓰기보다는 일상적인 언어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22 (라)의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라는 문장을 통해 글쓴이의 어머니는 글쓴이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④는 글쓴이의 경험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라)의 '겉핥기만 했던 수술'에서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훌륭한 의사 되어 내가 엄마 업어 줄게요'에서 어린 시절 글쓴이의 꿈이 의사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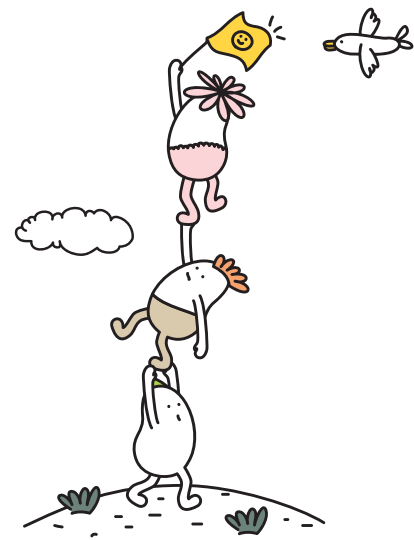
③ (다)의 '일부러 보조기 구둣발 소리를 크게 내며 앞만 보고 걷곤 했다'에서 글쓴이가 친구들의 놀림에 당당하게 대처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일기에서 글쓴이를 위해 어머니가 한 노력을 알 수 있다.

23 (나)에서 글쓴이는 몸이 불편한 자신을 업고 걷는 어머니의 땀을 보며 '엄마의 눈물' 같다고 생각했다. 즉, '엄마의 눈물'은 글쓴이가 장애로 인해 여러 불편과 차별을 겪으면서도 깨끗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해 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4 ㉠은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어머니의 속마음(심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글쓴이가 어머니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5 **서술형** 「엄마의 눈물」이라는 일기는 글쓴이가 열 살 때 적었던 일기를 말한다. (다)~(마)는 어른이 된 글쓴이가 과거를 회상하며 쓴 부분이고, (나)가 어린 시절 글쓴이가 썼던 일기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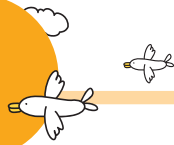






정답친해





(1)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



알짜 요약정리

02쪽

- 1 연관성 2 오류 3 정보 4 건의함
5 일반화 6 실천

어휘 시험

03쪽

- 1 ㉠ 2 ㉡ 3 ㉢ 4 ㉣ 5 논제
6 연설 7 건의 8 침해 9 공약 10 출마
11 역량 12 ㉤ 13 ㉥

1 '타당성'은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타당성이 없다.', '타당성을 검토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비판적'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는 매사에 너무 비판적이다.',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주도적'은 '주동적인 처지가 되어 이끄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다.',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4 '연관성'은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특성이나 성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논리적인 연관성', '학문과 실천은 서로 떼어 수 없는 연관성을 갖는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논제'는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을 말한다. '안건'은 '토의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사실'을 의미한다.

6 '연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이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함.'을 의미한다. '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함.'을 의미한다.

7 '건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을 내놓음. 또는 그 의견이나 희망.'을 말한다. '제의'는 '의견이나 의논, 의안을 내놓음. 또는 그 의견이나 의논, 의안.'을 의미한다. '협상 제의', '다른 회사에서 자기 회사로 오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8 시시 티브이가 사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맥락을 고려할 때 '침해'가 들어가야 한다. '침해'는 '침범하여 해를 끼

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9 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였다는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공약'이 들어가야 한다. '공약'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0 가족이 만류하는데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맥락이므로, '출마'가 들어가야 한다. '출마'는 '선거에 입후보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1 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맥락이므로, '역량'이 들어가야 한다.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2 '단합'은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침.'을 뜻하는 '단합'과 바꾸어 쓸 수 없다. '단결'은 '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침.'을, '협동'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을, '결속'은 '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단결함.'을 뜻하므로 '단합'과 바꾸어 쓸 수 있다.

13 '표상'은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을 뜻하므로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를 뜻하는 '사례'와 바꾸어 쓰기 어렵다. '예'는 '본보기가 될 만한 사물.'을, '예시'는 '예를 들어 보임.'을, '실례'는 '구체적인 실제의 보기.'를 뜻하므로 '사례'와 바꾸어 쓸 수 있다.



꼭지 시험

04쪽

- 1 비판적 2 연관성 3 ○ 4 ○ 5 ○
6 × 7 ㉤

1 다른 사람의 주장이 담긴 말을 들을 때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내용이 그릇되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즉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들어야 한다.

2 주장이 담긴 말을 들을 때에는 근거와 주장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가 없는지 판단하여 그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 한다.

3 논제는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토론에서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주장을 펼치고 있다.

4 찬성 측 토론자 중 '수미'는 청소년 연예인의 80%가 방송

일 때문에 학교 수업을 빠진 적이 있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연예인이 되면 학습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과 관련 있는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찬성 측 토론자 중 '정우'는 연예인이 된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시기에 연예인이 되면 인성이 쉽게 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우'의 친구라는 하나의 사례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6 반대 측 토론자 중 '영재'는 진로와 관련된 강연을 들은 경험을 언급하며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듯이 청소년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장과 근거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주장이다.

7 '준서'는 최근 누리 소통망(SNS) 친구들에게 학교 학생회에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세 명의 학생이 건의함을 설치해 달라고 답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학교에 건의함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근거는 세 명이라는 적은 사례를 일반화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므로, 그 의견이 학생 다수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알짜 시험

05~07쪽

- 01** ⑤ **02** ④ **03** ① **04**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 **05** ② **06** ⑤ **07** ②
08 ④ **09** 학생 수준으로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10** ④

01 여학생이 영화를 보고 실망을 한 것은 자신이 믿었던 배우의 말과는 달리 영화가 재미없었기 때문이지 해외에서 촬영한 장면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02 이 답화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지닌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의사 소통 과정인 '토론'이다.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법을 공동으로 탐구하는 과정은 '토의'이다.



완자쌤의 풀이

토의와 토론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이지만 토의가 문제의 해결 방법을 공동으로 탐구하는 데 반해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상대를 설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3 '소연'은 방황하던 중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아 성실한 학생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연예인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연예인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연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근거와 주장 간에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소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04 논제는 토론을 통해 논하고자 하는 주제로, 찬성(긍정)이나 반대(부정)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쟁점이어야 하고, '~해야 한다.' 또는 '~이다.'의 형식으로 서술해야 한다. 또한 현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찬성 측의 주장을 담아 표현해야 한다. 이 토론에서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가 논제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완전한 한 문장으로 썼다.	☐

05 이 답화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진행된 토론 답화로, '수미, 정우, 준서'는 찬성의 입장에서, '영재, 지민'은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미'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우'는 청소년 시기에 연예인이 되면 인성이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준서'는 똑똑한 '수미'의 의견에 따라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영재'는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듯이 청소년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민'은 청소년이 연예계로 진출하여 청소년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06 '지민'은 우리 사회에 각 세대에 맞는 다양한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획일화되어 가는 청소년 문화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이 답화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를 논제로 진행된 토론이므로 이 답화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수미'는 많은 청소년 연예인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정우'는 연예인이 된 후 연락이 없는 친구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청소년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영재'는 자신이 들었던 강연의 강연자들이 했던 말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듯이 청소년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청소년의 연에게 진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7 '준서'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수미'가 청소년의 연에게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에게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주장과 관계없는 '수미'와 관련된 정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08 이 담화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어느 학생의 연설이다. 연설은 한 명의 연설자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공적인 말하기이다. 대체로 청중을 설득하거나 청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09 **서술형** [A]에는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준서'의 공약이 담겨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준서'의 힘으로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이다. 연설을 들을 때에는 공약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도 판단해 보아야 하므로 학생 수준에서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라는 공약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준서'의 공약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준서'의 공약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썼다.	☐

10 ㉔은 학생 자치회가 활성화된다면 많은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고, 학생회장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타당한 공약이다. 따라서 ㉔이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에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이 학생은 청중에게 '낙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냐'고 질문을 함으로써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 선후배 간 의형제·의자매 제도를 실시하면 선후배 간의 단합을 이끌어 낼 수는 있지만 같은 반 친구들끼리 단합을 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를 고려할 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근거를 들어 공약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학교 곳곳에 건의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적은 사례를 일반화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세 명의 학생이 낸 의견이 학생 다수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⑤ 처음 부분에서 낙타 이야기를 꺼내어 학생회장으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연설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2) 인터넷 매체로 표현하기



알짜 요약정리

● 08~09쪽

- ① 블로그 ② 전자 우편 ③ 실시간 ④ 그물망
- ⑤ 문자 메시지 ⑥ 요약적 ⑦ 매체
- ⑧ 그림말 ⑨ 존중



어휘 시험

10쪽

- 1 ㉔ 2 ㉔ 3 ㉔ 4 ㉔ 5 선착순
- 6 제약 7 소집 8 출처 9 방안 10 연예
- 11 개별 12 함성 13 매체

1 '공유하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땅을 공유하고 있다.', '이 기쁨을 모든 국민과 공유하고 싶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조언하다'는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돕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학생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조언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소통하다'는 '오해가 없도록 뜻을 서로 통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는 그녀와 서로의 생각을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어 답답하였다.',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화로 자기의 생각을 소통한다.'와 같이 쓸 수 있다.

4 '활용하다'는 '충분히 잘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놀리는 땅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다.', '여가 시간을 자기 계발에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어떤 순서에 따라 공연 입장권을 나누어 준다는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먼저 와 닿는 차례.'를 뜻하는 '선착순'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6 단체 생활을 할 때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는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또는 그 조건.'을 뜻하는 '제약'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7 학생 자치회의 어떤 일정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을 뜻하는 '소집'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8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인용할 때 그 자료가 누구의 것인지

지 밝혀야 한다는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사물이나 말 따위가 생기거나 나온 근거.'를 뜻하는 '출처'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9 친구들과의 여행을 부모님께 허락받기 위한 방법을 떠올려 보았다는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을 뜻하는 '방안'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0 지수의 장래희망이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라는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대중 앞에서 음악, 무용, 만담, 마술, 쇼 따위를 공연함. 또는 그런 재주.'를 뜻하는 '연예'가 적절하다. '연예'는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을 뜻한다.

11 면접 결과를 면접 당사자들에게 각각 알려 준다는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럿 중에서 하나씩 따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개별'이 적절하다. '각별'은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한.'을 뜻한다.

12 관객이 지르는 소리에 퇴장했던 가수가 다시 나타났다는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외치거나 지르는 소리.'를 뜻하는 '합성'이 적절하다. '괴성'은 '괴상한 소리.'를 뜻한다.

13 '매체'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을 의미한다. 특히 매체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기여하는데, 발신자가 전하려는 내용을 수신자에게 담아 보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문자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이 매체의 대표적인 예이다.


꼭지 시험

1 댓글	2 그림말	3 배려	4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5 ○	6 ×	7 ○ 8 ○
9 ×	10 양방향	11 직접적	12 비선형성

11쪽

1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짧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로, 누리집 게시판의 댓글란에 자신의 생각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 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누리집 게시판은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온라인 대화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는 줄인 말이나 신조어, 그림말 등을 사용하여 문자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3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인터넷 예절을 지켜야 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써야 한다.

4 문자 메시지는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중요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전달하며, 전자 우편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부 내용까지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

5 문자 메시지와 전자 우편은 각각의 매체가 가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과 대상이 같은 글에서도 내용과 형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6 인터넷 매체는 문자, 소리,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의 혼합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7 인터넷 매체에서는 정보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누리집 게시판 또는 전자 우편에 다른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있다면 이를 클릭하여 다른 웹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다.

8 문자 메시지는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휴대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신속하게 전하거나 간결하게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다. 반면에 전자 우편은 대체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전할 때 주로 사용한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 분량의 제약으로 인해 문장 부호를 생략하고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전자 우편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제약이 없어 주로 내용을 줄글 형식으로 쓰며 문장 부호를 갖추고,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며 높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9 누리 소통망(SNS)은 특정한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사소통할 수 있게 관계망을 구축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 일기, 취재 기사 따위를 올리는 웹 사이트는 블로그이다.

10 인터넷 매체는 쌍방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정보의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나 텔레비전 매체 등과 다르게 일대일 또는 일대다의 방식으로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즉, 양방향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11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12 인터넷 매체는 정보가 하나의 선을 따라가듯이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비선형성'이라고 한다.

알짜 시험



- 01 ① 02 ④ 03 ⑤ 04 ②
 05 ① 06 ② 07 ④ 08 ⑤
 09 ④ 10 (가)는 문자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는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휴대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신속하게 전하거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전할 때 주로 이
 용한다. 반면에 (나)는 전자 우편으로 전자 우편은 대체로 컴퓨
 터를 이용하여 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전할 때 주로 사용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와 (나)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다
 르게 나타난 것이다. 11 ⑤ 12 ④
 13 ② 14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
 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댓글을 써야 한다.

01 (가)의 누리집 게시판에 댓글을 단 사람들 중 ‘번지의 제왕’, ‘미녀와 가수’는 학생 가요제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으며, ‘백살 공주’는 학생 가요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누리 소통망에 댓글을 단 사람들 중 ‘왕자탄 백마’는 심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한편, ‘내일은 요리왕’은 가요제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수고했다며 격려하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는 모두 댓글에서 정보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가)는 누리집 게시판, (나)는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여 글을 올린 것이다. 두 매체는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학생 가요제 관련 공지로, 공적인 목적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학생 가요제에 참여한 친구들의 영상을 자신의 누리 소통망에 올린 것으로,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친교와 같은 사적인 목적으로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는 주로 줄글의 형식을 취하고 높임말을 사용하는 등 격식을 갖추어 표현하고 있으나, (나)는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이므로 소수에게 공개된다고 할 수 없다.

02 (가)는 학교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학생 가요제 참가 신청 안내를 위한 공지이다. 여러 사람이 안내문에 댓글을 달면서 궁금한 점을 묻거나 기대감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모두 자신의 실제 이름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고 있다.

03 ㉠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를 비방하고 있다.

04 (가)는 온라인 대화이고, (나)는 블로그이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 매체로, 인터넷 매체는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05 (가)의 온라인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근데난’, ‘노래를

못해서’, ‘나갈수 없지만’ 등처럼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술까말(술직히 까놓고 말해서)’, ‘강추(강력 추천)’ 등과 같이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어법에 맞지 않는 줄인 말을 사용하고 있다.

③ ‘ㅇㅈ(인정)’과 같이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낱말의 초성자만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ππ, ^^, (▽▽)v, \ (^o^)/’와 같이 그림말을 사용하고 있다.

⑤ ‘레알’은 ‘진짜’, ‘정말’이라는 뜻으로, ‘리얼(real)’을 재미있게 발음한 것에서 비롯된 말이다. ‘더럽’은 ‘사랑’이라는 뜻으로, ‘더 러브(the love)’를 빠르게 발음한 형태로 표기한 것이다.

06 온라인 대화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문자를 중심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표정이나 몸짓을 보여 주거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07 어법에 맞지 않는 줄인 말이나 신조어, 그림말 등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언어 파괴 현상이 심해져서 줄인 말이나 신조어, 그림말 등을 잘 모르는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대화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므로, 상대방에게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나)에서는 예선에 16개 조가 참가하여 8개 조가 예선을 통과했다고 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학교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달라며 하이퍼링크로 학교 누리집 게시판을 연결하고 있다.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하이퍼링크를 통해 학생 가요제 참가자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② (가)의 ‘행복중학교 가요제예선통과’, ‘일시: ○월 ○일 오후 4시’, ‘장소: 3층 학생회실’을 통해서 가요제 예선 통과를 알리며 예비 소집의 일시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역시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것은 김유진, 정상호 학생이 학생 가요제 예선을 통과했음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월 ○○일 오후 4시, 3층 학생회실에서 본선 예비 소집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가요제 예선 통과를 알리며 예비 소집의 일시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는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반해 (나)는 ‘안녕하세요? 김유진, 정상호 학생’, ‘행복중학교 학생 자치회입니다.’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

④ (가)에는 예선 통과 조의 수와 본선 예비 소집 때 할 일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에 반해 (나)에서는 ‘이번 예선에는 총 16개 조가 참가하였는데 그중 8개 조가 예선을 통과했어요.’라고 예선 통과 조의 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가요제 무대에 오를 순서를 정하고, 본선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본선 예비 소집 때 할 일을 안내하고 있다.

09 (가)는 항목별로 내용을 짧게 쓰고, 문장 부호를 생략하였다. 또한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에 반해 (나)는 내용을 줄글 형식으로 길게 쓰고 있다. 또한 문장 부호를 모두 갖추고,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며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가)가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반말을 써서 친근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10 **서술형** (가)는 문자 메시지로 휴대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고, (나)는 전자 우편으로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용한 기기는 전달하는 메시지 또는 정보의 양과 형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와 전자 우편의 내용과 형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와 (나)에서 사용한 매체의 종류와 특성을 썼다.	☐
매체의 차이점으로 (가)와 (나)의 내용과 형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

11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글에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12 (가)를 통해 글의 목적이 친구들에게 자전거 타기라는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글의 개요를 통해 자전거의 종류, 자전거의 구조, 자전거 타는 방법 및 유의점을 블로그에서 다루려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계 도시별 공유 자전거 설치 현황'은 (가)에 제시된 글의 목적, 주제, 주요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인 이유** ① '자전거 구조도 사진'은 자전거의 구조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종류를 간단히 정리한 영상물'은 자전거의 종류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③ '보호 장비의 착용 방법을 보여 주는 사진'은 자전거의 보호 장비 착용법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⑤ '관절을 지키며 건강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소개한 신문 기사'는 자전거 타는 법을 설명할 때 일부 내용을 인용할 수 있다.

13 (나)에 제시된 글, 사진, 배경 음악 등을 통해 블로그가 문자, 소리,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ㄱ). 또한 (나)의 댓글을 통해서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ㄷ).

14 **서술형** '나'는 '지민 여신'이 쓴 댓글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지민 여신'에게 도움이 된 것 같고 말투도 상냥하고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고 댓글을 달 때에는 글을 올린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고 썼다.	☐
완전한 한 문장으로 썼다.	☐

(3) 책 읽고 영상으로 표현하기



알짜 요약정리

● 16~17쪽

- ① 자막 ② 청각적 ③ 분위기 ④ 기획안
 ⑤ 이야기판 ⑥ 감독 ⑦ 경험



어휘 시험

18~19쪽

- 1 상영 2 클로즈업 3 NAR. 4 ② 5 ①
 6 ② 7 ① 8 촬영 9 영상 10 대본
 11 자막 12 편집 13 잔잔 14 선정 15 공감
 16 제작 17 앞뒤 18 거꾸로 된 순서

1 '상영'은 '극장 따위에서 영화를 영사(映寫)하여 공개하는 일'을 뜻하므로 문맥상 '상영'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상연'은 '연극 따위를 무대에서 하여 관객에게 보이는 일'을 뜻한다.

2 '클로즈업 샷'은 '대상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을 뜻하므로 문맥상 '클로즈업 샷'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웨이트 샷'은 '대상의 머리부터 허리까지가 화면에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3 'NAR.'은 시나리오 용어로,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설명 형식의 대사'를 의미하므로 문맥상 'NAR.'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E.'는 '이펙트(effect, 효과음)'로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를 활용한 효과음'을 의미한다.

4 '분담'은 '나누어 맡음'을 의미하므로 ②에 '분담'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에는 '전문적으로 맡거나 혼자서 담당함'을 나타내는 '전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 '섭외'는 '연락을 취하여 의논함'을 의미하므로 ①에 '섭외'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에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을 나타내는 '교섭'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6 '배치'는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둠'을 의미하므로 ②에 '배치'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에는 '서로 맞서서 버팀'을 나타내는 '대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7 '수여'는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줌'을 의미하므로 ①에 '수여'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에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임'을 나타내는 '수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8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을 의미하는 말은 '촬영'이다.

9 '영사막이나 브라운관, 모니터 따위에 비추어진 상.'을 의미하는 말은 '영상'이다.

10 '연극의 상연이나 영화 제작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글.'을 의미하는 말은 '대본'이다.

11 '영화나 텔레비전 따위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비추는 글자로 표제나 배역, 등장인물의 대화, 설명 따위를 보여 주는 말.'은 '자막'이다.

12 '일정한 방침 아래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신문, 잡지, 책 따위를 만드는 일. 또는 영화 필름이나 녹음테이프, 문서 따위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일.'을 의미하는 말은 '편집'이다.

13 '소리가 조용하고 나지막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은 '잔잔하다'이다.

14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은 '선정하다'이다.

15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다.'라는 뜻을 지닌 말은 '공감하다'이다.

16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다.'라는 뜻을 지닌 말은 '제작하다'이다.

17 '전후'는 '앞과 뒤'를 나타내는 말이다. '몸을 전후로 흔들다.'와 같이 쓸 수 있다.

18 '역순'은 '거꾸로 된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번에는 역순으로 다시 불러 봐라.'와 같이 쓸 수 있다.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데, 이야기판을 통해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촬영이나 편집의 방향을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3 시각 이미지는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 중 시각적 요소로, 촬영기로 촬영한 화면이다. 시각 이미지는 촬영기와 대상의 거리, 촬영기와 대상의 각도 등을 조절하여 표현한다.

4 영상을 제작할 때 촬영한 영상에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넣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편집'의 역할이다. '감독'은 연기,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을 한다.

5 선생님의 모습을 위엄 있게 보이려면 선생님을 우러러보도록 장면을 잡아야 한다. 따라서 촬영기를 대상보다 낮은 위치에 놓고 촬영해야 한다.

6 '민우'와 친구들 앞으로 '여름'이 지나가는 상황을 보여 주려면 멀리서 장면을 넓게 잡아야 한다. 따라서 촬영기와 대상의 거리를 멀게 하여 촬영해야 한다.

7 '자막'은 영상을 보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내는 글자로, 시각적 요소이다. '자막'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자에게 전하려는 바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효과음'은 장면을 실감 나게 보여 주기 위하여 넣는 소리로, 청각적 요소이다.

8 영상에서 '음악'은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거나 장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9 영상에서 '자막'은 영상을 통해 전하려는 바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청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10 영상에서 '효과음'은 장면을 실감 나게 보여 주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11 영상 언어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각각 개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12 '대사'는 등장인물의 말로, 현재 상황과 감정 등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이는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청각적 요소이다.

13 일정한 줄거리가 없거나 사실성을 강조하는 일부 영상은 시나리오나 이야기판 없이 촬영하기도 한다.

14 영상의 기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고려하고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영상을 본격적으로 촬영하기 전에 계획해야 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꼭지 시험**

20~21쪽

1 이야기판, 편집하기	2 이야기판	3 거리	4 편집
5 낮은	6 멀게	7 시각적, 청각적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앵글	16 E.	17 기획안 작성하기
18 ㉣	19 ㉤		

1 영상 제작은 '계획하기 → 기획안 작성하기 → 시나리오 및 이야기판 작성하기 → 촬영하기 → 편집하기 → 감상하고 평가하기'의 과정을 거친다.

2 이야기판에는 장면을 세분화하여 표현한 그림과 장면 설명, 촬영 방법,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촬영할 장면과 순서를 파악하는 데

15 ‘앵글’은 대상과 촬영기의 각도를 의미한다. 촬영기를 대상의 눈높이와 수평을 이루게 놓고 촬영하는 방법을 ‘눈높이 앵글’, 촬영기를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 놓고 촬영하는 방법을 ‘하이 앵글’, 촬영기를 대상보다 낮은 위치에 놓고 촬영하는 방법을 ‘로 앵글’이라고 한다.

16 ‘E.(effect)’는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음을 말한다.

17 기획안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제목, 기획 의도, 갈래, 상영 시간, 주요 내용, 역할 분담, 제작 일정 등을 정리하면서 계획한 내용을 구체화한다.

18 함께 읽을 책을 고르는 방법으로는 영상 제작 과정을 고려하여 평소 읽고 싶었던 소설 떠올리기, 도서관 방문하기, 주변 인물에게 추천받기,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등이 있다.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 소설책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소설의 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오로지 학급 문고에 배치된 책 중 여분이 많은 소설책을 고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영상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 영상을 시청할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갈래로 표현할 것인지 등을 정한다. 영상 제작 시 각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기획안 작성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알짜 시험



22~23쪽

- 01** ① **02** ⑤ **03** ⑤ **04** ⑤ **05** ③
06 촬영할 장면과 순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촬영 및 편집의 방향을 공유할 수 있다.
07 ③ **08** ⑤

01 ‘민우’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의 영상 화면은 시각 이미지로, 시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반면 ‘민우’의 내레이션과 ‘선생님’의 말은 ‘대사’, ‘교실 안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밝고 경쾌한 음악’은 ‘배경 음악’,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학생들이 서둘러 의자에 앉는 소리’는 ‘효과음’에 해당하므로 모두 청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02 (가)에서 학생들은 영상제에 출품하기 위해 중학생의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단편 영화를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재’는 중학생의 첫사랑을 주제로 단편 영화를 만들자는 ‘나라’의 의견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니 영화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작할 단편 영화가 친구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지 친구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홍보 영상이 아닌 단편 영화를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03 (나)는 영상 제작 과정 중 기획안 작성하기에 해당한다. 기획안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계획한 내용을 구체화한다. ‘역할 분담’을 할 때에는 각 역할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람이 맡을 수 있게 한다. (나)에서 보듯이 역할 분담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감독, 촬영, 미술, 시나리오, 연기, 편집 등의 각 부분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연기자에게 시나리오상의 인물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기자의 대사나 동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람이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영상을 제작할 때 감독은 연기,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을 한다.

오답인 이유 ①은 연기 담당자, ②는 촬영 담당자, ③은 미술 담당자, ④는 편집 담당자의 역할이다.

05 (가)에서는 ‘민우의 빨라진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린다.’를 통해, (나)에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통해 ‘여름’에게 반한 ‘민우’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효과음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 모두 ‘선생님’의 대사를 제시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민우’의 내레이션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④ (가)의 ‘S# 5’를 (나)에서는 ‘S# 5-1, S# 5-2, S# 5-3, S# 5-4’의 네 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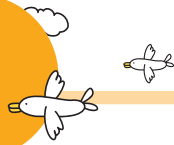
⑤ (가)는 구체적인 장면의 촬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나)에서는 ‘반 전체 분위기가 드러나게 촬영함’, ‘선생님의 상반신을 촬영함’과 같이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6 **서술형** 이야기판에는 장면을 세분화하여 표현한 그림과 장면 설명, 촬영 방법,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촬영할 장면과 순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야기판을 통해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촬영이나 편집의 방향을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야기판이 필요한 까닭을 두 가지 모두 썼다.	☐
이야기판이 필요한 까닭을 한 가지만 썼다.	☐

07 (다)에서는 ‘여름’을 보고 반한 ‘민우’의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촬영기와 대상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촬영하는 ‘클로즈업 샷’을 사용하고 있다.

08 편집에서는 촬영한 영상에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넣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따라서 제작한 영상이 ‘편집상’을 받았다면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와 같은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1) 요약하며 읽기



알짜 요약정리

● 24~25쪽

- 1 원천강 2 사계절 3 잊가지 4 여의주 5 인용
6 주체 7 문제와 어려움 8 주장과 근거



어휘 시험

26~27쪽

- 1 ㉠ 2 ㉡ 3 ㉢ 4 ㉣ 5 요약
6 초청 7 축원 8 추진 9 ㉤ 10 ㉥
11 ㉦ 12 배필 13 대안 14 하직
15 만년 영화 16 관계망 17 담화
18 적막 19 협상국 20 움

1 '정히'는 '진정으로 꼭.'을 뜻한다. '정히 가시려면 가시오.'와 같이 쓸 수 있다.

2 '유대'는 '끈과 띠라는 뜻으로, 둘 이상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런 관계.'를 뜻한다. '그 두 사람은 친형제 이상으로 유대가 깊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밀거름'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기초가 되는 요인.'을 뜻한다. '그동안의 경험을 밀거름으로 하여 더욱 공부에 정진하십시오.'와 같이 쓸 수 있다.

4 '고령화'는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나타나는 일.'을 뜻한다. '농촌 사회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이 소설은 사건이 복잡하여 줄거리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맥락임으로,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림.'을 뜻하는 '요약'이 적절하다. '요지'는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의미한다.

6 동아리 모임에 나오라고 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맥락이므로, '사람을 청하여 부름.'을 뜻하는 '초청'이 적절하다. '신청'은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리려 청구함.'을 의미한다.

7 그가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빌었다는 맥락이므로, '신적 존재에게 자기의 뜻을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빌다.'라는 뜻인 '축원'이 적절하다. '축하하다'는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인사하다.'라는 뜻이다.

8 학교에서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실시했다는 맥락이므로,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다.'라는 뜻을 지닌 '추진하다'가 적절하다. '추천하다'는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하다.'라는 뜻이다.

9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다.'를 나타내는 말은 '거역하다'이다. '거절하다'는 '상대편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다.'를, '거부하다'는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다.'를, '물리치다'는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다.'를 의미한다.

10 '주동적인 처지가 되어 이끌다.'를 나타내는 말은 '주도하다'이다. '주동하다'는 '어떤 일에 주장이 되어 움직이다.'를, '술선하다'는 '남보다 앞장서서 먼저 하다.'를, '통솔하다'는 '무리를 거느려 다스리다.'를 의미한다.

11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를 나타내는 말은 '보완하다'이다.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를, '충족하다'는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하다.'를, '충원하다'는 '인원수를 채우다.'를 의미한다.

12 그 사람이 자신의 첫사랑을 배우자로 받아들였다는 맥락이므로, '부부로서의 짝.'을 뜻하는 '배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정부가 미세 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안(궁리하여 내놓은 생각이나 계획.)을 대신하는 안.'을 뜻하는 '대안'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떠나면서 인사를 건넸다는 맥락이므로, '먼 길을 떠날 때 웃어른께 작별을 고함.'을 뜻하는 '하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5 고전 소설은 주로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난다는 맥락이므로, '몸이 귀하게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이 세상에 빛남.'을 뜻하는 '만년 영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6 누리 소통망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맥락이므로,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어 그물처럼 얽혀 있는 조직이나 짜임새.'를 뜻하는 '관계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7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는 뜻을 지닌 말은 '담화'이다.

18 '고요하고 쓸쓸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은 '적막하다'이다.

19 ‘모양이나 상태가 매우 거칠고 험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은 ‘험상궂다’이다.

20 빈칸에는 ‘옴’이 들어가야 한다. ‘옴’은 ‘풀이나 나무에 새로 돌아 나오는 싹.’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관용구 ‘옴을 지르다’는 ‘자라기 시작하는 세력이나 힘 따위를 꺾어 버리다.’라는 뜻이다. ‘지금 막 일어나는 불법 단체들의 옴을 지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힘을 키워 전혀 손을 쓸 수 없게 돼 버린다.’와 같이 쓸 수 있다.

꼭지 시험

28쪽

1 비범한	2 옥황상제	3 흰모래 마을
4 ×	5 ○	6 × 7 ○
8 원천강	9 사계절	10 ④

1 이 글은 신화로, 신화는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존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이 글에서는 ‘오늘이’의 출생과 외모, ‘오늘이’를 돌봐 주는 학의 존재를 통해 ‘오늘이’의 신성함,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2 ‘오늘이’의 부모님은 원천강을 지키는 신관과 선녀로,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원천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이’를 남겨 두고 떠나왔으나, 학을 보내 ‘오늘이’를 돌봐 주게 하였다.

3 ‘오늘이’는 ‘마을’에서 출발하여 ‘흰모래 마을 별충당’에서 ‘장상’이라는 도령을 만나고, ‘연화꽃’으로 가 ‘연꽃 나무’를 만난다. 그 다음 ‘청수 바다 모래밭’으로 가 ‘큰 뱀’을 만나며, ‘길가 별충당’에서 ‘매일이’를 만난 후 ‘길 옆 우물가’에서 선녀들을 만난다. 끝으로 ‘원천강’에 도착하여 부모님과 만나게 된다.

4 이 글은 우리 민족 사이에 말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 설화 가운데, 신성성을 지닌 인물과 장소가 등장하며 자연 현상이나 국가의 기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화이다.

5 이 글은 사건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며, 문제와 문제 해결의 구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문제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도 있다.

6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두레박에 큰 구멍이 뚫려서 우물물을 퍼내지 못하고 있는 선녀들을 만난다. ‘오늘이’는 땀방울을 흘리며 뚫려서 두레박의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서 틈을 막아 물이 새지 않게 하여 선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7 ‘오늘이’는 부모님을 찾아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만난 대상들에게 여러 부탁을 받는다. 원천강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된 ‘오늘이’는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부탁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시 길을 돌아가기로 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이’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이 이야기에서 원천강은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초월적인 공간이자, 신관과 선녀가 지키는 신성한 공간이다.

9 원천강의 내부에는 문이 네 개 있고, 그 문 안에는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이 펼쳐진다. 그리고 ‘이 세상 사계절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원천강의 네 문은 사계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0 ‘백씨 부인’은 원천강을 지키고 있는 ‘오늘이’의 부모님을 꿈에서 만나고 ‘오늘이’에게 흰모래 마을의 도령에게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라고 한다. 따라서 ‘백씨 부인’은 ‘오늘이’가 길을 떠나기 전에 만난 인물이므로 원천강으로 가던 중에 만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꼭지 시험

29쪽

1 마을학교	2 중심 내용	3 공동체	04 마을 주민(들)
5 삶의 질	6 ㉠	7 ㉡	8 ㉢ 9 ㉣
10 (1) 삶의 문제와 어려움 (2) 마을학교			

1 이 글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자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공간인 ‘마을학교’의 개념과 역할을 설명한 글이다. ‘마을학교’의 개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면서 ‘마을학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2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등의 요약 규칙에 따라 문단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처음 -가운데 - 끝’의 구성 단계별로 중심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최근에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한 경쟁에 치진 현대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았던 옛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4 이 글에서 공간으로서의 ‘마을학교’란 주민 센터나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찻집, 도서관, 식당, 놀이터 등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면 모두 ‘마을학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을학교’의 활동 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임을 알 수 있다.

5 ‘마을학교’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복합적인 관계망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6 요약의 규칙 중, ‘삭제’는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 예로 든 내용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7 요약의 규칙 중, '선택'은 문단에서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심 문장을 찾는 것을 말한다.

8 요약의 규칙 중, '일반화'는 문단에서 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이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9 요약의 규칙 중, '재구성'은 문단에서 글의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0 이 글에서는 비유를 통해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비'는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우산'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막아 주는 '마을학교'를 가리킨다.

알짜 시험



- 01** ④ **02** ③ **03** 원천강은 초월적인 공간이자 신성한 공간이다. **04** ② **05** ④ **06** 원천강의 네 개의 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의미한다.
07 ④ **08** ② **09** ⑤ **10** '비'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의미하고, '우산'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막아 주는 '마을학교'를 의미한다. **11** ② **12** ④

01 이 글은 우리나라의 설화 가운데, 신성성을 지닌 인물과 장소가 등장하는 신화이다. 신화에서는 초현실적인 존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이 글은 부모님을 찾아 길을 떠난 '오늘이'가 사계절을 전하는 선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02 (라)에서 '오늘이'는 하늘나라 선녀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④, ⑤ 처음 만나는 대상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오늘이'의 모습을 통해 '오늘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상냥하고 친절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혜롭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부모님을 찾아 홀로 낯선 길을 떠나는 '오늘이'의 모습을 통해 '오늘이'의 용감하고 독립심이 강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03 **서술형** 이 글에서 원천강은 '오늘이'의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초월적인 공간이자, 신관과 선녀가 지키고 있는 신성한 공간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원천강이 초월성과 신성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썼다.	☐
완전한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오늘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으로 원천강을 돌보며 사계절의 소식을 알리는 선녀가 되었다. 하늘나라 선녀가 된 것은

'오늘이'이므로 '매일이'가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라)는 '오늘이'가 '장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매일이'를 '장상'에게 소개해 주어 둘이 부부의 연을 맺게 도와주는 부분으로, '오늘이'가 '장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이다.

06 **서술형** 원천강의 내부에는 문이 네 개 있고, 그 문 안에는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이 펼쳐진다. 그리고 '이 세상 사계절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원천강의 네 문은 사계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원천강의 네 개의 문이 사계절을 의미한다고 썼다.	☐
완전한 한 문장으로 썼다.	☐

07 이 글에서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자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공간인 '마을학교'의 개념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마을학교'의 개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마을학교'와 '마을학교'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마을학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마을학교'가 발전해 온 과정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나)의 중심 내용은 마지막 문장이다. 따라서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 마지막 문장을 선택하고 예(주민 센터나 학교 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찻집, 도서관, 식당, 놀이터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중심 내용은 마지막 문장에 직접 드러나므로 중심 내용이 드러나는 마지막 문장을 선택해서 요약할 수 있다.

③ (다)의 중심 내용은 마지막 문장이다. 따라서 중심 내용이 드러나는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④ (라)는 '마을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이며, '마을학교'에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요약할 수 있다.

⑤ (마)에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용한 인물의 말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요약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다)에 따르면 공간으로서의 '마을학교'란 주민 센터나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찻집, 도서관, 식당, 놀이터 등 마을 주민이 활동하는 공간이면 모두 '마을학교'가 될 수 있다.

10 **서술형** (마)에서는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쓴 경험에 비유하여 '마을학교'가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막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비'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우산'은 이를 막아 줄 수 있는 '우산'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비'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의미하고, '우산'이 '마을학교'를 의미한다고 썼다.	☐
완전한 한 문장으로 썼다.	☐

11 이 글은 농촌 문제와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시사 평론이다. 시사 평론은 주장하는 글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하거나 글을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조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글의 특성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은 달라져. 이야기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고, 설명하는 글은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글과 같이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어.

12 (라)에서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고, 그래서 농민들은 제 가격에 농산물을 팔기가 어렵고, 소비자는 농산물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2)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하기



알짜 요약정리

● 34~35쪽

- | | | |
|---------|-----------|---------|
| 1 상담 | 2 면담 준비하기 | 3 허락 |
| 4 주제 | 5 요리 예술사 | 6 전자 우편 |
| 7 활동 영역 | 8 체력 관리 | |



어휘 시험

36~37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쫓아가다 |
| 6 승화하다 | 7 요청 | 8 전공 | 9 지루하다 | 10 노출 |
| 11 또래 | 12 편식 | 13 보람 | 14 양성 | 15 치중 |
| 16 간결 | 17 투자 | 18 ㉤ | 19 모양새 | 20 귀를 기울여 들음. |

1 '면담'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낱말이다. '면담을 요청하다.', '단독 면담'과 같이 쓸 수 있다.

2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라는 의미를 지닌 낱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와 같이 쓸 수 있다.

3 '소소하다'는 '작고 대수롭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낱말이다. '소소한 문제', '작고 소소한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와 같이 쓸 수 있다.

4 '운용하다'는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관리하고 운용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낱말이다. '기업체를 운영하다.', '언니는 학원을 운영한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쫓아가다'는 '남의 말이나 뜻을 따라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쫓아가다'는 '어떤 대상을 만나기 위하여 급히 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6 '승화하다'는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승진하다'는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오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7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한. 또는 그런 청'을 말한다. '간청'은 '간절히 청함. 또는 그런 청'을 의미한다.

8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를 말한다. '정통'은 '어떤 사물을 깊고 자세하게 앎.'을 의미한다.

9 '지루하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같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따분하고 싫증이 나다.'라는 뜻이다. '남루하다'는 '옷 따위가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라는 뜻이다.

10 여름이 되니 어떤 옷차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맥락이므로,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냄.'을 뜻하는 '노출'이 들어갈야 한다.

11 어떤 사람들과의 나이를 비교하는 맥락이므로, '나이가 수준이 서로 비슷한 무리.'를 뜻하는 '또래'가 들어갈야 한다.

12 어떤 식품관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가려서 즐겨 먹음.'을 뜻하는 '편식'이 들어갈야 한다.

13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 힘들어도 어떤 가치가 있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일의 가치.'를 뜻하는 '보람'이 들어갈야 한다.

14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 내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양성하다'이다.

15 '어떠한 것에 특히 중점을 두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치중하다'이다.

16 '간단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간결하다'이다.

17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투자하다'이다.

18 제시된 문장에서 '지원하다'는 '어떤 일이나 조직에 뜻을 두어 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의

‘지원하다’ 역시 ‘의과 대학의 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제시된 문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ㄴ’의 ‘지원하다’는 ‘지지하여 돕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9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을 지닌 말은 ‘모양새’이다. ‘모양새’는 ‘모양’이라는 명사에 모양, 상태,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사 ‘-새’가 결합한 말이다.

20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들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 사람들은 경청을 안 하는 듯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꼭시 시험
38~39쪽

1 면담	2 목적	3 질문	4 목적	5 있다
6 (가): ④, (나): ③, (다): ②			7 ㉠	8 ㉡
9 ㉢	10 ×	11 ○	12 ○	13 ④
14 ④	15 ④			

1 ‘면담’은 특정 대상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2 면담의 목적에는 정보 수집, 상담, 평가, 설득 등이 있는데, 면담의 목적에 따라 설득을 위한 면담, 상담을 위한 면담, 평가를 위한 면담, 정보를 얻기 위한 면담으로 나눌 수 있다.

3 면담의 목적에는 정보 수집, 상담, 평가, 설득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면담의 목적에 따라 질문할 내용이 달라진다.

4 면담의 목적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담 질문지를 준비할 때는 목적에 맞지 않는 질문을 골라내야 한다.

5 면담 대상이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면담 대상이 대답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 간 질문 이외에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면담 대상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어 낼 수 있다.

6 (가)는 커피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 학생과 커피 전문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커피 전문가의 면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면담의 목적은 정보 수집이다.
 (나)는 학생 1이 독서 토론 동아리에 지원한 까닭을 묻고 학생 2가 이에 대답함으로써 학생 1이 학생 2가 독서 토론 동아리에 들어오는 것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면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면담의 목적은 평가이다.
 (다)는 상담 선생님이 ‘지수’에게 고민이 있는지 묻고 ‘지수’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으며 상담하고 있는 면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면담의 목적은 상담이다.

7 면담의 절차 중 면담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면담의 목적과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담 대상과 면담 약속을 정한 후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면담에서 물어볼 면담 질문지를 작성한다.

8 면담의 절차 중 면담 진행하기 단계에서는 면담 대상과 만나, 준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

9 면담의 절차 중 면담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면담 내용을 정리하며, 면담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내용을 골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10 면담 대상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면담 질문지를 전자 우편을 통해 보내 놓거나 면담 대상과 면담 약속을 정하며 대략 어떠한 내용을 질문할 것인지를 면담 목적과 함께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면담 대상에게 질문할 때는 면담 대상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질문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 면담 대상의 답변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2 면담을 할 때는 면담 대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면담 대상의 답변을 경청하며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하며, 녹음이나 촬영을 할 때에도 미리 면담 대상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13 ‘정우’와 ‘나라’는 요리 예술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요리 예술사를 면담 대상으로 섭외하였다.

14 제빵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면담이므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야 한다. 지역별 유명 빵집 지도는 제빵사가 되기 위한 방법과 관련이 없다.

15 면담 계획서는 면담을 하기 전에 면담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면담 목적, 면담 대상,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준비물, 면담 시 면담 대상에게 할 질문 내용 등이 면담 계획서에 포함된다.

알짜 시험
40~43쪽

01 ②	02 ④	03 면담 목적은 학교 신문에 마을 신문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면담 대상은 마을 신문 편집장이다.		
04 ①	05 ②	06 ③	07 ①	08 ④
09 ④	10 ⑤	11 ③	12 호기심, 색깔과 요리에 대한 기본 감각, 열정과 성실성, 식재료에 대한 이해 등	
13 ③	14 ④			

01 면담은 일상 대화와 달리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02 <보기>는 딸이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하는 면담 상황이다. ④ 역시 콘서트에 가는 것을 어머니께 허락받기 위해 어머니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면담의 목적이 설득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은 평가, ②는 정보 수집, ③, ⑤는 상담을 위한 면담에 해당한다.

03 (가)에서 '지민'이 "마을 신문 편집장님과 면담을 해서 학교 신문에 소개하면 어떨까?"라고 말한 것에서 마을 신문 편집장님을 대상으로 면담하여 학교 신문에 마을 신문을 소개하고자 면담을 진행하려 함을 알 수 있다.

04 (나)의 '준서'는 지호 어머니를 만나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기 위한 면담을 하고자 한다. '준서'는 주변 사람에게 별 까닭 없이 자꾸 짜증을 내는 것에 대하여 면담을 진행하고자 한 것인데,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은 면담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5 "잡지에 나왔던 요리 예술사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면 어떨까?"라는 '지민'의 말에 대해 '준서'는 "좋은 생각이야. 그럼 먼저 그분께 허락을 받아야지. 잡지에 있는 전자 우편을 보내 보자."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생들은 전자 우편을 통해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정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나)에서 '정우'가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선생님 작업실로 찾아가 선생님을 직접 뵈었으면 하는데요."라고 쓴 것에서 면담 장소가 요리 예술사님의 작업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어서 "언제가 좋을지 선생님께서 편하신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세요. 그럼 그 시간에 맞추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쓴 것에서 면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제가 이렇게 전자 우편을 드리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전자 우편을 보낸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우연히 잡지에서 선생님의 직업인지 더 알고 싶어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면담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④ "요리 예술사가 하는 일은 궁금한 점이 무척 많습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⑤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선생님 작업실로 찾아가 선생님을 직접 뵈었으면 하는데요."라고 말하면서 면담 수락 여부를 묻고 있다.

07 앞으로 진행될 면담은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면담인데, 3번 질문은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따라서 면담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되었을 것이다.

08 면담을 할 때 주제나 목적에 어긋난 질문을 해서는 안 되며, 면담에 필요한 질문과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면담의 목적과 주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더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

09 이 면담에서는 면담 대상인 요리 예술사를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 우편으로 말씀드렸듯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자 우편을 통해 면담 전에 면담 요청을 하고 면담과 관련된 개괄적인 정보를 제시하였을 뿐 전자 우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 요리 예술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정우'의 질문에 대해 요리 예술사는 기본적으로 음식이나 식재료와 관련된 공부를 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음식 모양새를 꾸미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 음식이나 식재료를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1 ㉔에서 요리 예술사는 자신의 직업을 '요리를 예술로 승화하는 요리 예술가'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실제 식사 또는 광고 촬영을 위해 음식이나 각종 식기를 배열하여 테이블 공간을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일 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12 **서술형** "요리 예술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라는 '나라'의 질문에 대해 요리 예술사는 호기심이 많고 색깔과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있으면 좋다고 말하였다. 또한 시장의 빠른 변화를 쫓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열정과 성실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식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호기심, 색깔과 요리에 대한 기본 감각, 열정과 성실성, 식재료에 대한 이해 등 '요리 예술사'에게 필요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요리 예술사에게 필요한 능력 세 가지 이상을 썼다.	☐

13 면담을 평가할 때는 '면담의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하였는가?', '면담 질문이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였는가?', '면담 과정에서 면담 대상에게 예의를 지켰는가?'와 같은 기준으로 면담을 평가할 수 있다. 유명한 전문가를 섭외하였는가보다는 면담의 목적에 맞는 대상을 섭외하였는지, 면담 대상이 놀랄 만한 예리한 질문을 하였는지보다는 면담의 목적에 맞는 질문이었는지, 면담 대상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간결한 질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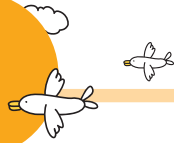
14 '커피 전문가라는 직업의 장단점'과 관련된 내용은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커피 전문가가 설 자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정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② "커피 전문가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라고 정리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커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독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커피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체"라고 정리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1) 언어의 본질



알짜 요약정리

● 44~45쪽

- ① 필연적 ② 약속 ③ 의사소통 ④ 시간
- ⑤ 끊임없이(무한히) ⑥ 자의성 ⑦ 사회성

어휘 시험

46~47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창조 |
| 6 기발하다 | 7 모퉁이 | 8 혼란 | 9 어엿하다 | 10 ㉤ |
| 11 ① | 12 ② | 13 실천 | 14 요원 | 15 미처 |
| 16 상황 | 17 ③ | 18 ③ | | |

- 1 '본질'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이라는 뜻이다.
- 2 '활용'은 '충분히 잘 이용함.'이라는 뜻이다.
- 3 '특성'은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이라는 뜻이다.
- 4 '필연적'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다.
- 5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을 뜻하는 낱말은 '창조'이다. '창의'는 '새로운 의견을 생각하여 냄, 또는 그 의견.'이라는 뜻이다.
- 6 '유달리 재치가 뛰어나다.'를 뜻하는 낱말은 '기발하다'이다. '특별하다'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라는 뜻이다.
- 7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를 뜻하는 낱말은 '모퉁이'이다. '언저리'는 '둘레의 가 부분.'이라는 뜻이다.
- 8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을 뜻하는 낱말은 '혼란'이다. '분란'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움.'이라는 뜻이다.
- 9 '행동이 거리낌 없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다.'를 뜻하는 낱말은 '어엿하다'이다. '의젓하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라는 뜻이다.
- 10 '자의적'은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로,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임의적'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수동적'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고, '부정적'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하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며, '자발적'은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자기 스스로 나아가 행하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다.

11 '재촉하다'는 '어떤 일을 빨리하도록 조르다.'라는 뜻이므로, '일이나 행동 따위를 빨리 끝내려고 몰아치다.'의 뜻을 지닌 '다그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참견하다'는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일이나 말 따위에 끼어들어 쓸데없이 아는 체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다.'라는 뜻이고, '부탁하다'는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다.'라는 뜻이며, '도와주다'는 '남을 위하여 애써 주다.'라는 뜻이다.

12 '맹세하다'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다.'를 뜻하는 말로, '맹세하고 약속하다.'라는 뜻의 '서약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계약하다'는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두다.'라는 뜻이고, '결정하다'는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다.'라는 뜻이며, '실행하다'는 '실제로 행하다.'라는 뜻이다.

13 계획대로 행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빈칸에는 '실천'이 들어 가야 한다. '실천'은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이라는 뜻이다.

14 사건을 전담할 사람을 의미하므로 빈칸에는 '요원'이 들어 가야 한다. '요원'은 '어떤 기관에서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인원.'이라는 뜻이다.

15 '~지 못하셨던'과 호응이 되는 말이 필요하므로, 빈칸에는 '미처'가 들어가야 한다. '미처'는 흔히 '못하다', '않다', '없다' 따위와 함께 쓰여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16 '불리하다'와 관련지어 볼 때 빈칸에는 '상황'이 들어 가야 한다. '상황'은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나 형편.'이라는 뜻이다.

17 '누리꾼'은 세상을 의미하는 고유어인 '누리'와 접사인 '-꾼'이 결합된 말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파생어이다. '안팎'은 '안'과 '밖'이 결합된 말이고, '오누이'는 '오빠'와 '누이'가 결합된 말이며, '여단다'는 '열다'와 '닫다'가 결합된 말이다. '안팎', '오누이', '여단다'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18 ③의 '굳어지다'는 '점점 몸에 배어 아주 자리를 잡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①의 '굳어지다'는 '그의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②의 '굳어지다'는 'ㄷ의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긴장으로 딱딱하

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④의 '굳어지다'는 ㄴ의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꼭지 시험
48쪽

1 자의성 2 역사성 3 창조성 4 사회성 5 ×
6 × 7 ○ 8 언어 9 언어의 역사성
10 언어의 자의성

- 1 언어의 자의성은 말소리와 뜻의 연결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 즉 자의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 2 언어의 말소리나 뜻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 3 새말을 만들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한다.
- 4 한 언어가 널리 사용되다가 사회적 약속으로 한번 정해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정해진 말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없는 특성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 5 '은하수'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소리가 나라마다 다른 것은 말소리와 뜻이 임의적으로 연결되는 언어의 자의성 때문이다.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 6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창조성은 단어나 문장을 새롭게 만들거나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 7 사회적으로 약속된 말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8 언어는 말소리에 뜻을 담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 9 백(百)을 뜻하는 '온'이나 천(千)을 뜻하는 '즈문'은 오늘날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 10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꼭지 시험
49쪽

1 펜 2 서약서 3 사회성 4 ○ 5 ×
6 ○ 7 × 8 언어의 자의성
9 언어의 역사성 10 언어의 사회성

- 1 '닉'과 그 친구들은 페니 팬트리 가게에서 펜을 '프린들'이라고 부른다. 이는 '닉'과 친구들이 '펜'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 2 '닉'과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펜'을 '프린들'로 바꾸어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펜'이라는 말 대신에 '프린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함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 3 '그레인저 선생님'은 '펜'을 '프린들'로 바꾸려는 '닉'의 계획으로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고 그 계획을 그만두라고 한다. '그레인저 선생님'은 언어의 사회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닉'의 계획을 염려한 것이다.
- 4 '닉'은 언어의 뜻과 말소리 사이에 필연성이 없음을 알고 '프린들'이라는 새로운 말을 창조하였다.
- 5 '닉'과 '자넷'이 함께 길을 걸을 때, '자넷'이 펜을 떨어뜨리자 '닉'은 그 펜을 주워 '자넷'에게 건네며 '프린들'이라고 말한다. 이에 '자넷'은 '바보 아냐?' 하는 눈빛으로 '닉'을 쳐다본다. 이로 보아 '자넷'은 '닉'이 '프린들'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6 '닉'과 그 친구들은 팬트리 가게에 가서 일부러 '펜'이라는 말 대신에 '프린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는 '프린들'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행동이다.
- 7 '그레인저 선생님'은 '닉'의 계획을 알고 염려를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미 '닉'의 계획이 실행된 이후이다.
- 8 '닉'은 낱말의 말소리와 뜻 사이에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펜'을 '프린들'로 바꾸어 부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펜'과 '프린들' 모두 필기도구로서의 펜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말소리와 뜻이 임의적으로 연결됨을 보여 주는데 이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의 말소리와 뜻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 9 '피나'가 '펜'으로, '펜'이 '프린들'로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은 언어의 역사성이다. 즉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닉'과 그 친구들이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진 말인 '펜' 대신에 자기를 마음대로 '프린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학교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말을 개인이 마

음대로 바꿀 수 없는 특성인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알짜 시험

50~53쪽

- 01 ③ 02 ⑤ 03 ① 04 언어의 말소리와 뜻은 필연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다. / 언어의 말소리와 뜻은 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05 ② 06 ②
07 ① 08 ⑤ 09 ③ 10 ③ 11 ④
12 ㉞: 자의성, ㉟: 사회성, ㊱: 역사성, ㊲: 창조성 13 ⑤

01 (가)에서는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이 아닌 자의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밝히며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언어의 사회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다. (라)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낱말을 활용하여 새로운 낱말이나 새로운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하고 있다.

02 ㉠은 '어리다'라는 말의 뜻이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바뀐 것으로, 뜻이 변한 예에 해당한다. ㉡에서 '어여쁘다'도 말의 뜻이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로 바뀌었으므로, 뜻이 변한 예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④ 있던 말이 사라진 예에 해당한다.

②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말이 생겨난 예에 해당한다.

③ 말의 형태가 변한 예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언어의 의미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뜻도 변하는데, 그 양상을 보면 의미 축소, 의미 확장, 의미 전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미 축소는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봄'이라는 말이 조선 시대에는 일반적인 남자를 나타내었으나 오늘날에는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의미 확장은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지갑'이 원래는 종이를 만든 것만을 가리켰는데 오늘날에는 돈을 집어넣는 모든 것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의미 전성은 기존의 의미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는 것으로, '어리다'라는 말이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바뀐 것이 그 예이다.

03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기면 그에 맞는 새말이 생겨나는데, 이때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에 해당하는 말소리가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의로 말소리를 연결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사물의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②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면서 그에 맞는 새말을 만들어 낸 것이므로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한다.

③ 새로운 사물을 나타내는 말은 갑자기 어디선가 생겨난 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말을 가지고 조합하거나 기존의 말에 담긴 뜻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

④ 새말이 만들어졌어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말은 쓰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새말도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져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말이 될 수 있다.

⑤ 기존에 없던 '컴퓨터, 공정 무역, 누리꾼'과 같은 말이 생겨난 것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말이 생기면서 언어가 변하는 언어의 역사성이 나타난다.

04 **서술형** <보기>를 보면, '다슬기'라는 하나의 대상(뜻)을 나타내는 말소리가 지역에 따라 '올갱이', '데사리', '골배'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임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필연적 관계가 아니다'나 '자의적(임의적) 관계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5 (라)에서는 기존의 낱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에서 '바람'과 '분다'라는 두 낱말로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언어의 창조성을 보여 준다.

오답인 이유 ① '미르'라는 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진 예이므로,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③ 나라마다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소리가 다른 것을 보여 주는 예로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④ 개인이 마음대로 '학교'를 '책상'으로 바꾸어 사용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⑤ '배'는 소리는 같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이 다른 예로, 말소리와 뜻이 자의적으로 연결되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06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민지'처럼 개인이 마음대로 '은하수'를 '사랑강'으로 바꾸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랑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버지'는 그러한 상황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07 ㉠은 백(百)을 나타내는 '온'과 천(千)을 나타내는 '즈믄'이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온', '즈믄'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것이다. ㉡의 설명이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②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④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08 (가)와 (나)를 통해 '프린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프린들'이라는 말은 '닉'이 새롭게 만들어

넌 말로, 어떤 말에서 유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나)를 통해 '닉'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이 '존, 피트, 데이브, 크리스, 자넷'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는 '데이브, 크리스, 피트, 존, 자넷'이 차례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아주머니'에게 '프린들'을 달라고 말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닉'이 계획을 실행한 방법을 알 수 있다. '닉'은 '프린들'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펜을 '프린들'로 부르게끔 하고 있다.

③ (다)에서 '프린들' 문제가 너무 커진 것을 염려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닉'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를 통해 '펜'이라는 말이 깃털이라는 뜻의 라틴어 '피나'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09 (다)에서 '닉'은 “말이란 건 원래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 선생님! 그러셨잖아요.”라고 말한다. '닉'은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말이라고 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근거로 들어 '프린들'도 어엿한 낱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닉'이 언어가 변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에서 '자넷'과 '아주머니'가 '닉'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닉'이 사회적으로 약속되지 않은 단어인 '프린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② (가)와 (나)에서 '닉'은 언어의 뜻과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이해하고 '펜'이라는 말을 '프린들'이라고 자의적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

④ (나)에서 '닉'은 그의 계획대로 여러 사람들이 '펜' 대신에 '프린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프린들'이 이제 펜을 가리키는 어엿한 낱말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가게 안에서는 '프린들'이 펜을 지칭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생겨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⑤ (다)에서 '선생님'은 '닉'의 행동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여기고 '닉'에게 계획을 그만두라고 설득하고 있다.

10 '닉'은 '펜' 대신에 '프린들'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말이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자넷'에게 '프린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계획은 시작된다. 이러한 계획은 '닉'의 친구들이 매일 한 명씩 팬트리 가게에 가서 펜을 사면서 '프린들'을 달라고 말하는 과정을 거쳐 실행되어 결국 '아주머니'가 '프린들'이라는 말을 알아듣게 된다. 따라서 '닉'의 친구들은 한 명씩 가게에 간 것이지 다 같이 간 것은 아니므로, '닉'의 친구들이 매일 다 같이 팬트리 가게에 가서 '프린들'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1 ㉠에서는 언어가 변하는 성질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에서도 '피나'라는 말이 '펜'이 되는 변화를 거쳤음을 말하며 언어가 변하는 성질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와 ㉡는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성질인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은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말소리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만들어 낸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마음대로 연결된다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또한 ㉣는 새로운 낱말이 생겨나는 현상이므로 언어의 창조성과도 관련이 있다.

12 **서술형** ㉣는 같은 의미의 말임에도 말소리가 다른 예이므로,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말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예이므로, 언어의 사회성에 해당한다. ㉡는 언어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예이므로,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한다. ㉢는 '아이기'와 '잔다'라는 두 낱말이 들어간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므로,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각각의 예에 맞는 언어의 본질을 정확하게 썼다.	☐
각각 한 단어로 썼다.	☐

13 웅알이는 아기들이 혼자 하는 말로, 각 소리에 어떤 뜻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 아니므로, 아기가 웅알이를 하여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알짜 요약정리

● 54~55쪽

- | | | | |
|---------|--------------|----------|------|
| 1 해결 방안 | 2 제안 | 3 근거 | 4 협력 |
| 5 축제 장터 | 6 버룩시장 | 7 먹거리 가게 | 8 기부 |
| 9 학급비 | 10 사진 찍기 체험장 | | |



어휘 시험

56~57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판매 |
| 6 가치 | 7 토의 | 8 기부 | 9 ㉠ | 10 ㉣ |
| 11 흥미 | 12 대책 | 13 소품 | 14 대여 | 15 교환 |
| 16 사회자 | 17 경청 | 18 ㉠ | 19 ㉢ | 20 ㉣ |
| 21 ㉢ | | | | |

1 '운영'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영하고 경영함.'이라는 뜻이다.

2 '제안'은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음. 또는 그 안이나 의견.'이라는 뜻이다.

3 '동의'는 '의사나 의견을 같이함.'이라는 뜻이다.

4 '질의응답'은 '의심나는 점을 묻고 물음에 대답을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5 '상품 따위를 팔.'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판매'이다. '소비'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6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가치'이다. '용도'는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이라는 뜻이다.

7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토의'이다.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이라는 뜻이다.

8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기부'이다. '기여'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이라는 뜻이다.

9 '수익'은 '이익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이익.'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음.'을 뜻하는 낱말은 '유익'이고, '일한 결과로 얻은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뜻하는 낱말은 '소득'이며, '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또는 그 돈이나 물품.'을 뜻하는 낱말은 '수입'이다.

10 '특이하다'는 '보통 것이나 보통 상태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다르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다.'를 뜻하는 낱말은 '이상하다'이고, '꽤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를 뜻하는 낱말은 '훌륭하다'이며, '남보다 월등히 훌륭하거나 앞서 있다.'를 뜻하는 낱말은 '뛰어나다'이다.

11 관심이나 좋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흥미'가 들어가야 한다. '흥미'는 '흥을 느끼는 재미.'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12 저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 '대책'은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13 연극에서 사용할 것들을 확인하고 준비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소품'이 들어가야 한다. '소품'은 '연극이나 영화 따위에서, 무대 장치나 분장에 쓰는 작은 도구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14 자전거를 빌려서 놀았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대여'가

들어가야 한다. '대여'는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 줌.'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15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바꾸거나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교환'이 들어가야 한다. '교환'은 '서로 바꿈.'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16 '모임이나 예식에서 진행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사회자'이다.

17 '귀를 기울여 들음.'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경청'이다.

18 제시된 문장에 사용된 '취사'는 ㉠의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림.'을 뜻한다.

19 제시된 문장에 사용된 '취사'는 ㉡의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만드는 일.'을 뜻한다.

20 제시된 문장에 사용된 '조리'는 ㉢의 '말이나 글 또는 일이나 행동에서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를 뜻한다.

21 제시된 문장에 사용된 '조리'는 ㉣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림.'을 뜻한다.

 **꼭지 시험** 58~59쪽

1 ×	2 ○	3 ○	4 ×	5 논제
6 논제, 토의자	7 경청	8 근거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 토의는 토의 참여자들이 협력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찬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의사소통 과정은 토론이다.

2 패널 토의는 토의자들이 의견을 교환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토의이다. 따라서 토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의견을 제안하고 교환하는 토의자, 토의를 듣고 질문을 하는 청중 등이 패널 토의의 참여자가 된다.

3 패널 토의의 절차는 첫 번째로 사회자가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한다. 두 번째로 토의자들이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자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는다. 네 번째로 청중은 주제와 토의의 흐름에 알맞게 질문하고, 토의자들은 이를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한다. 다섯 번째로 사회자는 토의자와 청중의 의견을 종합하여 토의를 마무리한다.

4 토의자가 토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하면 토의의 흐름을 깰 수 있으므로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은 삼가야 한다.

5 토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제시한 주제를 논제라고 한다.

6 패널 토의를 시작할 때 사회자는 먼저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토의 논제를 밝힌 후 토의자들을 소개한다.

7 토의에서 청중은 토의자들이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지, 토의자들의 의견에 문제나 허점이 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등을 판단하며 경청해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8 토의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자신의 의견이 타당하며 합리적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자신의 의견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9 토의에서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고, 토의자 간의 의견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회자이다.

10 토의자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할 경우 토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청중이다.

11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하여 다른 토의 참여자의 질의에 대비하는 사람은 토의자이다.

12 각 의견의 대표자가 곧 패널이다. 따라서 패널이 청중 앞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의를 하고, 청중이 질의하며 토의에 참여하는 토의 종류는 패널 토의이다. '포럼'은 전문성이 있는 토의자가 발표한 뒤,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토의이다. '심포지엄'은 주로 학술적인 문제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난 뒤,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토의이다. '원탁 토의'는 소수의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이다.

13 토의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단계는 '토의자 제안' 단계이다. '토의자 간 의견 교환'은 다른 토의자들의 제안에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토의자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14 '사회자'는 '토의자 간 의견 교환' 단계임을 밝히며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15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는 축제 장터에서 우리 반이 무엇을 운영할지에 대한 토의이다. 토의에서는 '벼룩시장, 먹거리 가게, 사진 찍기 체험장'이 제안되었는데, '대훈이의 아버지'가 다양한 의상과 소품을 빌려주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토의 참여자들이 '나라'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16 토의는 협력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될 수 있

다. 그런데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는 '그렇다'라고 찬성하는 측과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사형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토의의 주제가 아닌 토론의 주제로 적절하다.

알짜 시험



60~63쪽

- | | | | | |
|----------------------------|------------------|------|----------------------------|--|
| 01 ⑤ | 02 ⑤ | 03 ① | 04 ② | 05 ⑤ |
| 06 • (가)와 (나): 토의자 간 의견 교환 | • (다): 청중과의 질의응답 | 07 ② | 08 • 논제: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 | • 토의 결과: 우리 반은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 09 ④ | 10 ⑤ | 11 ④ | 12 ② | 13 ④ |
| 14 청중의 토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 | | | |

01 토의는 여러 사람이 협력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02 (가)에서 사회자는 토의 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지민이, 정우, 나라의 순서로 준비해 온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토의자의 발언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토의자끼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토의의 절차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와 (다)에서 사회자가 토의자의 의견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발언은 나타나 있지 않다.

03 '지민'이 벼룩시장을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벼룩시장에서 판매할 물건들이 집에서 쓰던 것이어서 준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과 재활용 측면에서 환경 보호의 가치가 있다는 것, 친구들에게 절약 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벼룩시장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4 (가)에서 '지민'은 "장터 수익금은 학생회에서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한다던데……. 그러면 우리 반 학급비가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라며 '정우'의 제안은 학급비가 하나도 안 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학급비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지, 수익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질문한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나라'는 "벼룩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팔기만 해서 다른 가게에 비해 친구들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요. 대책은 있나요?"라며 벼룩시장이 친구들의 흥미를 끌지 못할 수 있는데 이에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즉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③ '정우'는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들이 사진 찍기 체험장에 관심이 적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진 찍기 체험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고 있다.

- ④ 사회자는 “지금까지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중의 질문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라며 토의 절차에 따라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⑤ ‘민재’는 “벼룩시장 행사가 끝나고 남은 물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라며 벼룩시장 운영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05 (나)에서 ‘정우’는 사진 찍기 체험장에 관심이 적은 남학생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라’는 여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 사진 찍기 체험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남학생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여학생 위주로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6  (가), (나)에서는 토의자인 ‘나라’, ‘정우’, ‘지민’이 서로 질문하고 이에 대해 답하며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는 토의자 간의 의견 교환 단계이다. (다)의 ‘토의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중의 질문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한 사회자의 말을 통해서 (가), (나)가 토의자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자의 이 말을 통해서 (다)는 청중의 질문과 의견이 제시되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 (나)와 (다)의 토의 단계를 구분해서 썼다.	☐
(가), (나)와 (다)의 단계를 패럴 토의 절차에 맞게 썼다.	☐

07 <보기>는 토의자 간의 의견 교환 단계이다. (가)에서 토의자는 ‘지민’, ‘정우’, ‘나라’라고 하였고, 이들 간의 질문과 답변이 나타나는 부분은 (나)이므로, <보기>에서 설명한 토의자 간의 의견 교환 단계는 (나)이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사회자가 토의의 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는 단계이다.

③, ④ (다)는 먹거리 가게에 대한 청중과의 질의응답이고, (라)는 사진 찍기 체험장에 대한 청중과의 질의응답이다.

⑤ (마)에서 사회자가 토의를 마무리하며 토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마)는 토의 결과를 제시하는 단계인 토의 마무리 단계이다.

08  토의 논제는 (가)에서 사회자가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라는 주제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토의 결과는 (마)에서 사회자가 “우리 반은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토의 논제와 결과를 정확하게 찾아 각각 썼다.	☐
토의 논제와 결과를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09 토의자 간의 의견 조정을 유도하고, 토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토의자가 아니라 사회자의 역할이다.

10 먹거리 가게에서 김밥이나 샌드위치, 토스트 등과 같은 음식을 판매할 생각이라는 ‘정우’의 의견에 ‘유미’와 ‘슬기’는 짜증 섞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고(ㄷ),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토의의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ㄹ).

11 (라)에서 ‘지민’은 “저도 생각해 보니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해 보는 것이 평소에 쉽게 해 볼 수 없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나라’가 제안한 사진 찍기 체험장 운영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수아’가 “대훈이 아버지께 공주 드레스 외에 다른 옷도 빌릴 수 있나요?”라고 묻은 것은 의상과 소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라’가 “자세한 것은 ‘대훈이’에게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요?”라고 한 것은 ‘대훈이’의 의상 대여와 관련한 답변을 해 주면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어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③ ‘하은’은 ‘대훈’의 말을 듣고 ‘나라’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 처음부터 계속 ‘나라’의 제안을 지지했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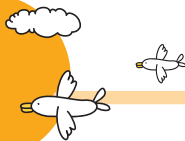
⑤ ‘정우’는 자신이 제안한 먹거리 가게 운영을 못하게 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사진 찍기 체험장 운영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정우’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모습을 보일 뿐, 소수 의견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12 다음 토의에서 다룰 내용은 (마)에서 사회자가 “지금까지 토의한 결과, 우리 반은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운영 계획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자의 말을 통해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음 토의에서 다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논제로 나타내면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어떻게 운영할까?’가 가장 적절하다.

13 ㉠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상대가 지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발언이다. 이 발언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말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b). 결국 이러한 발언들은 토의 참여자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d).

14  토의에서 사회자는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며, 토의자 간의 의견 조정을 유도하고,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은 토의자의 제안에 대해 청중의 질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청중의 참여 유도’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 문학 작품을 통한 삶의 성찰



알짜 요약정리

● 64~65쪽

- 1 빨간 호리병박 2 관심 3 마음 열매 4 추억
5 수영 6 성찰 7 성장



어휘 시험

66~67쪽

- 1 ㉞ 2 ㉠ 3 ㉡ 4 ㉢ 5 과시
6 발치 7 환상 8 결단 9 ㉤ 10 ㉣
11 ㉢ 12 아득히 13 인기척 14 의미심장
15 감격 16 거리감 17 ㉣ 18 ㉠ 19 덩굴
20 며칠 21 무지개빛

- 1 '가장하다'는 '태도를 거짓으로 꾸미다.'라는 뜻이다.
- 2 '만끽하다'는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다.'라는 뜻이다.
- 3 '매혹하다'는 '남의 마음을 사로잡아 호리다.'라는 뜻이다.
- 4 '경이롭다'는 '놀랍고 신기한 데가 있다.'라는 뜻이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와 같이 사용한다.
- 5 '자랑하여 보임.'을 뜻하는 말은 '과시'이다. '허세'는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라는 뜻이다.
- 6 '발이 있는 쪽.'을 뜻하는 말은 '발치'이다. '발꿈치'는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볼록한 부분.'이라는 뜻이다.
- 7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뜻하는 말은 '환상'이다. '허상'은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 8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을 뜻하는 말은 '결단'이다. '결정'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이라는 뜻이다.
- 9 '그럴듯하게 괜찮다.'를 뜻하는 말은 '근사하다'이다. '수수하다'는 '물건의 품질이나 겉모양, 또는 사람의 옷차림 따위가 그리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제격에 어울리는 품이 어지간하다.'라는 뜻을, '무난하다'는 '이렇다 할 단점이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을, '한결같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꼭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0 '정신이 헛갈리거나 생각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데가 있다.'를 뜻하는 말은 '당혹스럽다'이다. '엉뚱하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뜻을, '황당하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라는 뜻을, '터무니없다'는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1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를 뜻하는 말은 '대비하다'이다. '조치하다'는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피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하다.'라는 뜻을, '처리하다'는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짓다.'라는 뜻을, '마련하다'는 '헤아려서 갖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2 멀리 설악산이 보인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아득히'가 들어야 한다. '아득히'는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희미하고 매우 멀게.'라는 뜻이다.

13 누가 온 것 같은 느낌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빈칸에 '인기척'이 들어가야 한다. '인기척'은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기색.'이라는 뜻이다.

14 어떤 성격의 말을 남겼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의미심장'이 들어가야 한다. '의미심장'은 '의미심장하다'의 어근인데, '의미심장하다'는 '뜻이 매우 깊다.'라는 뜻이다.

15 우순한 것에 대한 정서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빈칸에 '감격'이 들어가야 한다. '감격'은 '마음에 깊이 느끼어 크게 감동함. 또는 그 감동.'이라는 뜻이다.

16 '친근감'과 반대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빈칸에 '거리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거리감'은 '어떤 대상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느낌.'이라는 뜻이다.

17 '이번 일'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호가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계기'의 풀이로 알맞은 것은 ㉣이다.

18 강에 생긴 물결을 의미하므로 '파문'의 풀이로 알맞은 것은 ㉠이다.

19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를 뜻하는 말은 '덩굴'이다. '덩굴'은 잘못된 표현이며, '덩굴'과 비슷한 말로 '넝쿨'이 있다.

20 '그달의 몇째 되는 날.', '몇 날'을 뜻하는 말은 '며칠'이다. '몇일'은 잘못된 표현이다.

21 '무지개와 같이 여러 빛깔로 아롱져 보이는 색.'을 뜻하는 말은 '무지개빛'이다. '무지개빛'은 잘못된 표현이다.

꺾지 시험

68~69쪽

- 1 빨간 호리병박 2 수영 3 × 4 ×
5 × 6 ○ 7 마름 열매 8 빨간 호리병박
9 ③ 10 ② 11 ①

1 호리병박은 도시 아이들이 사용하는 튜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고장의 아이들은 실수로 물에 빠질 것을 대비해서 호리병박을 손에 쥐고 수영을 하였다.

2 '뉴뉴'가 용기를 내어 물에 들어오고 '완'에게 수영을 배우며,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3 '뉴뉴'는 강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느끼긴 했지만, 선뜻 강에 들어갈 용기를 못 내고 있었다. '완'은 이런 '뉴뉴'를 안심시키며 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자연스럽게 수영을 가르쳐 주었다.

4 '뉴뉴'는 '완'의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완'과 어울려 놀았다.

5 작은 섬의 백양나무에 학교 친구들의 이름을 새긴 것은 '완'이다. '뉴뉴'는 백양나무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6 '완'은 '뉴뉴'가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이 수영을 잘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 호리병박을 빼앗은 것이다.

7 '완'은 '뉴뉴'가 마름 열매를 따려고 하지만 제대로 따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뉴뉴'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마름 열매를 따다가 '뉴뉴'에게 주었다.

8 '뉴뉴'는 '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완'에게 사과하려고 강가로 돌아오지만 '완'은 멀리 이사를 가고 없었다. 결국 '뉴뉴'는 '완'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인 빨간 호리병박을 강물에 풀어 주며 추억을 떠나보낸다.

9 '완'은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지냈다. 그래서 작은 섬의 백양나무에 친구들의 이름을 새기며 외로움을 달랜 것이다.

10 '완'은 '뉴뉴'가 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내고 수영을 하기 바라는 의도에서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았다. '뉴뉴'는 이러한 '완'의 행동을 오해하게 되는데, 외할머니의 경험담은 이러한 '뉴뉴'의 경험과 비슷한 내용이다. '뉴뉴'는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완'을 오해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11 '뉴뉴'는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완'에 대해 오해했음을 깨닫고 '완'에게 사과하기 위해 강으로 곧장 달려간 것이다.

꺾지 시험

69쪽

- 1 풀잎, 꽃잎 2 손 3 향기롭다 4 ○ 5 ○

1 시의 1~2행에서 '꽃잎'과 '풀잎'이 상처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후 시행에서 '꽃잎'과 '풀잎'이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여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2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 들길에 앉아 저녁놀을 바라보면 /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에서 손을 흔드는 행위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3 '상처 많은 꽃잎들이 / 가장 향기롭다'라고 하여 상처 많은 존재가 상처를 극복하고 내면의 성숙과 아름다움을 이루어 낸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4 '풀잎'과 '꽃잎'은 상처가 있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룬 존재이기도 하다.

5 1행, 2행, 5행, 7행의 끝에서 '-다'를 반복하여, 즉 각운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들길을 걸으면', '저녁놀을 바라보면'과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알짜 시험



70~73쪽

- 01 ② 02 ③ 03 '뉴뉴'와 친해지고 싶은 '완'의 마음을 나타낸다. 04 ④ 05 ① 06 '뉴뉴'가 강 한가운데에서도 수영할 실력이 됨을 깨닫고 물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헤엄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07 ①
08 ③ 09 ② 10 ⑤ 11 ④ 12 ③

01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등장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겪는 사건과 그 심리까지 전달하고 있다. 1인칭 시점은 '나'가 서술자로 등장한다.

오답인 이유 ① '완'과 '뉴뉴'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해지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③ 이 글에는 사춘기에 접어든 인물인 '완'과 '뉴뉴'가 등장한다.

④ 이 글은 강가를 배경으로 '완'과 '뉴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⑤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며 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년과 소녀가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2 (마)에 '뉴뉴'가 물에 들어오자 '완'이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뉴뉴'가 '완'에게 자신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완'을 쳐다보면서도 표정은 언제나 무관심을 가졌지만 말이다.'에서 '뉴뉴'가 '완'에게 관심은 있지만 이를 표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의 '완은 강가에 있는 한 쌍의 눈동자가 언젠가는 자신을 쳐다보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에서 '완'이 '뉴뉴'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의 '이제 그는 더 이상 해염을 치지 않고 뉴뉴를 보호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에서 '완'이 물에 들어온 '뉴뉴'에게 책임감을 느껴 '뉴뉴'를 보호하려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의 '물은 두 아이 사이의 낯섦과 거리감을 모두 녹여 버렸다.'에서 '완'과 '뉴뉴'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서술형 '완'은 '뉴뉴'를 위해 마름 열매를 따다 주는데, 마름 열매는 '뉴뉴'와 친해지고 싶은 '완'의 마음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뉴뉴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정확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뉴뉴'는 자신이 강 한가운데에서는 수영할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여전히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완'이 빨간 호리병박을 빼앗아 가자 '뉴뉴'는 두려움이 더욱 커졌고 물에 빠질 위기에까지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뉴'가 '완'에게 호리병박을 돌려받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았고 믿었던 친구의 거짓말로 자신이 죽을 뻔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서럽게 운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완'은 '뉴뉴'가 수영을 할 줄 아는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수영 실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뉴뉴'는 강의 멀리까지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③ '뉴뉴'는 호리병박을 빼앗아 자신을 물에 빠지게 만든 '완'을 원망하고 있다.

⑤ '뉴뉴'는 '완'을 오해했음을 깨닫고 '완'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강가에 앉아서 '완'을 기다린 것이다.

05 빨간 호리병박은 '뉴뉴'와 '완'이 물에서 함께 놀며 수영을 하던 추억이 담긴 물건이다(ㄱ). 또한 '완'이 '뉴뉴'의 빨간 호리병박을 빼앗아 '뉴뉴'가 물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결국 '뉴뉴'와 '완'이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ㄴ).

오답인 이유 ㄷ. 빨간 호리병박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도와주는 도구일 뿐, '뉴뉴'와 '엄마' 사이의 의미 있는 물건은 아니다.

ㄹ. 외할머니가 왜 뉴뉴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06 서술형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한 행동은 '완'이 '뉴뉴'에게 한 행동과 유사하며, 그 의도 또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완'은 '뉴뉴'가 큰 강 한가운데에서도 수영할 실력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기 위해 빨간 호리병박을 빼앗았다.

평가 기준	확인 ☒
'수영 실력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와 '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수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가)~(라)에는 '뉴뉴'가 '완'에게 상처받고 갈등하며, 나중에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는 상처를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루자는 주제를 상처 많은 '풀잎'과 '꽃잎'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마)의 말하는 이는 (가)~(라)의 '뉴뉴'에게 상처를 극복하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강조할 것이다.

08 (마)에서 '들길에 앉아 저녁놀을 바라보면 /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고 하였다. 손을 흔드는 것은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것이다. 저녁놀을 바라보면 손을 흔드는 풀잎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저녁놀'을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녁놀'을 수많은 좌절의 상황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호리병박을 '완'에게 빼앗긴 '뉴뉴'는 물에 빠진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강가로 구조된 이후에 공포가 진정되자 자신의 호리병박을 빼앗은 '완'에 대한 원망이 몰려와 '완'에게 ㉠과 같은 말을 한 것이다.

10 ㉡은 혼자 남게 된 '완'이 서글픔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황과 연결되는 배경으로, '완'의 외로운 처지와 우울한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11 <보기>로 보아 작은 섬에 있는 '집'은 '뉴뉴'와 '완'이 함께 만든 추억의 집이다. '완'이 이러한 집을 태워 버린 것은 자신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뉴뉴'에 대한 서운함,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 '뉴뉴'를 잃게 된 상황에 대한 절망감, 혼자 남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 때문이다. 그런데 '뉴뉴'는 '완'을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하며 대하였다. 다만 '완'이 호리병박을 빼앗으며 자기를 속였다고 오해하여 '완'에게 화를 낸 것이다.

12 '빨간 호리병박'은 '뉴뉴'와 '완'의 여름날 추억이 있는 물건으로, '뉴뉴'가 이를 떠나보냈다는 것은 '완'과의 추억을 떠나보냈음을 의미한다(ㄱ). '뉴뉴'는 이제 수영 실력이 늘었고, 큰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호리병박이 필요가 없어 빨간 호리병박을 풀어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ㄷ).

오답인 이유 ㄴ. '완'이 멀리 떠난 것을 '뉴뉴'가 확인하였고, '완'이 떠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완'이 떠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빨간 호리병박을 풀어 주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ㄹ. '뉴뉴'가 멀리 떠난 '완'과의 만남을 바라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빨간 호리병박이 '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뉴뉴'의 마음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2) 경험을 바탕으로 글 쓰기



알려 요약정리

● 74~75쪽

- | | | | | |
|------|------|------|------|------|
| 1 희생 | 2 감사 | 3 기억 | 4 성장 | 5 생성 |
| 6 개요 | 7 표현 | 8 개성 | 9 공감 | |

어휘 시험

76~77쪽

- | | | | | |
|--------|-------|-------|-------|--------|
| 1 ㉠ | 2 ㉡ | 3 ㉢ | 4 눈총 | 5 조신하다 |
| 6 기동력 | 7 버겁다 | 8 ㉤ | 9 ㉥ | 10 ㉦ |
| 11 투쟁 | 12 실행 | 13 악필 | 14 결의 | 15 억척 |
| 16 태곳적 | 17 ㉧ | 18 ㉨ | | |

- 1 '필사적'은 죽을힘을 다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 2 '방치되다'는 '내버려 두어지다.'라는 뜻이다.
- 3 '불가피하다'는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 4 '눈에 독기를 띠며 쏘아보는 시선.'을 이르는 말은 '눈총'이다. '눈치'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또는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라는 뜻이다.
- 5 '몸가짐이 조심스럽고 얹전하다.'를 이르는 말은 '조신하다'이다. '조용하다'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하다.'라는 뜻이다.
- 6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능력.'을 이르는 말은 '기동력'이다. '민첩성'은 '재빠르고 날쌔는 성질.'이라는 뜻이다.
- 7 '물건이나 세력 따위가 다루기에 힘에 겹거나 거북하다.'를 이르는 말은 '버겁다'이다. '무겁다'는 '무게가 나가는 정도가 크다.'라는 뜻이다.
- 8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차일피일'이 가장 적절하다. '차일피일'은 '이날 저 날 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지지부진'은 '매우 더디어서 일 따위가 잘 진척되지 아니함.'을, '유구무언'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을, '백년하청'은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 9 거짓말이 탄로 날까 걱정하는 상황이므로, 빈칸에 '노심초사'가 들어가야 한다. '노심초사'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이라는 뜻이다. '좌충우돌'은 '이리저리 마구 찌르고 부딪

침.'을, '동분서주'는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살신성인'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을 의미한다.

10 일을 쉽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빈칸에 '누워서 떡 먹듯이'가 들어가야 한다. '누워서 떡 먹기'는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빛 좋은 개살구'는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는 '별안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우물에 가 송냥 찾는다'는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11 자신과의 싸움이 힘들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투쟁'이 들어가야 한다. '투쟁'은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뜻이다.

12 방안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실행'이 들어가야 한다. '실행'은 '실제로 행함.'이라는 뜻이다.

13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쓴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악필'이 들어가야 한다. '악필'은 '잘 쓰지 못한 글씨.'라는 뜻이다.

14 '영수'가 굳게 마음을 먹고 주장을 밀고 나가기로 결심한 내용이므로, 빈칸에 '결의'가 들어가야 한다. '결의'는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이라는 뜻이다.

15 어머니가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깨끗하게 키웠다는 내용이므로 '억척스럽게'가 적절하다.

16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신앙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태곳적'이 적절하다.

17 선녀들의 아름다움조차도 '그녀'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 문장의 '무색하다'는 '본래의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잘것없다.'를 의미한다.

18 상대방이 공격을 시작했다는 의미이므로 이 문장의 '개시'는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을 의미한다.



족자 시험

78쪽

- | | | | | |
|-------|-------|-----|-----|-----|
| 1 눈물 | 2 응원 | 3 × | 4 ○ | 5 × |
| 6 일기장 | 7 연탄재 | 8 ㉠ | 9 ㉡ | |

1 글쓴이는 추운 겨울임에도 자신을 업고 미끄러운 길을 돌아오는 어머니가 흘린 땀이 눈물같이 느껴졌다고 하였다.

2 「엄마의 눈물」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는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3 「엄마의 눈물」의 앞부분에서 글쓴이의 어머니가 글쓴이의 물건을 모아 두었던 것과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아끼던 '보물 상자'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글쓴이가 소중한 물건을 모으던 습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4 글쓴이는 초등학교 시절에 자신을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항상 두 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셨다고 하였다.

5 글쓴이는 자신을 흉내 내거나 놀리는 아이들을 걸으려는 무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6 글쓴이는 자료를 찾기 위해 다락방의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을 보고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7 겨울에 눈이 내리면 글쓴이의 어머니는 글쓴이가 미끄럽지 않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집에서 학교까지 연탄재를 깔아 놓는 수고를 하였다.

8 '동생들과 싸워 가면서 모았던 예쁜 구슬', '이제는 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야지'로 보아 글쓴이가 어린 시절 동생들과 종종 싸우면서 자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형제들 간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로, 글쓴이의 장애로 발생한 일은 아니다.

9 '학교 가기 전투', '필사적인 투쟁', '용맹스러운 투쟁'은 글쓴이와 어머니가 학교에 가기 위해 치러야 했던 어려움을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세상을 의미한다.

꼭지 시험

79쪽

1 내용 생성하기

2 개요

3 고쳐쓰기

4 ○

5 ×

6 ○

7 ㉠

8 ㉡

9 ㉢

10 ㉠

11 ㉠

1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 글의 제재가 되는 가치 있는 경험을 찾아보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2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글의 구성 단계에 맞추어 대략적인 내용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을 '개요'라고 한다.

3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후에는 글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글을 다 쓴 후에는 글의 내용이나 표현의 적절성을 점검하며 고쳐쓰기를 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4 사진첩이나 일기장에는 남겨 두고 싶은 것, 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 또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경험 등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첩이나 일기장을 활용하면 가치 있는 경험을 좀 더 쉽게 떠올릴 수 있다.

5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쓰는 것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로 올바른 글쓰기 태도가 아니다.

6 경험을 담은 글을 읽고 평가할 때에는 그 글에 담긴 내용이 공감할 만한 것인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7 가치 있는 경험을 떠올리고, 떠올린 내용 중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글감을 마련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이다.

8 경험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보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이다.

9 조직한 내용을 한 편의 글로 표현하는 단계는 '표현하기'이다.

10 경험을 담은 글을 쓸 때에는 누구나 아는 내용을 쓰기보다는 일상적인 것을 다루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미 있는 내용, 가치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누구나 아는 내용은 사람들의 공감이나 감동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11 경험을 담은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어 자기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을 담은 글을 쓴다고 해서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려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근거가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알짜 시험

80~83쪽

01 ㉠

02 ㉢

03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

04 ㉡

05 ㉠

06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나의 어머니와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응원을 보내기 위해서

07 ㉢

08 ㉢

09 ㉢

10 ㉣

11 ㉢

12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글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13 ㉣

14 ㉠

01 (다)의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닿았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가 글쓴이를 힘들게 업고 왔음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어머니의 강인한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 (가)에서 다락방에 있는 짐들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다)의 일기를 통해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③ (나)의 '문득 12월 15일 자의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에서 일기의 제목과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고 있다.

④ (가)에서 '동생들과 싸워 가면서 모았던 예쁜 구슬, 이런저런 상자들, 내가 좋아했던 만화가들의 만화를 훔쳐 내 그린 그림들, 그리고 맨 바닥에는 '3학년 7반 47번 장영희'라고 쓰인 일기장' 등을 나열하여 순수했던 글쓴이의 어린 시절을 드러내고 있다.

02 (다)에는 장애가 있는 딸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런 어머니의 수고를 알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글쓴이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 그러나 (다)에 가난한 시절의 아픔에 대한 내용이나 극복 의지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03  (다)의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다.'를 통해 '엄마의 눈물'이 비유하고 있는 대상이 '엄마의 땀'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엄마의 땀'이라는 내용을 썼다.	☐
(다)에서 정확하게 찾아 5어절로 썼다.	☐

04 (가)에서 글쓴이를 놀리는 아이들을 향해 어머니가 날카롭게 "그만두지 못해! 애가 너한테 밥을 달라던, 옷을 달라던!"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는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을 걸으려는 무시했지만, 글쓴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날카롭게 대꾸하였다.

오답인 이유 ① (나)의 '걸핏하면 했던 수술과 수술 후 두세 달씩 이어졌던 병원 생활'에서 잦은 수술로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반복한 글쓴이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가 있다고 하여 입학시험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던 학교들'에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글쓴이가 장애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두 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야 했다.'에서 글쓴이의 어머니가 두 시간마다 학교에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에서 글쓴이의 어머니가 글쓴이 앞에서 운 적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나)의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워 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래도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에서 글쓴이의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06  글쓴이는 자신의 어머니는 물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헌신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의 어머니'와 '세상 모든 어머니들', '사랑과 응원' 등을 포함하여 썼다.	☐
'~위해서'로 끝을 맺는 형식으로 썼다.	☐

07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글뿐만 아니라 모든 글을 쓸 때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은 담지 말아야 한다.

08 이 글에서 글쓴이가 유학을 다녀온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유학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다)의 '우리 집은 항상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학교까지는 고작 이, 삼백 미터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것도 내게는 버거운 거리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라)의 '비가 오면 한 손으로는 딸을 받쳐 없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 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되는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라)의 '눈이 오면 눈 위에 연탄재를 깔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다리 혈액 순환이 잘되라고 두꺼운 솜을 넣어 직접 지으신 바지를 아랫목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 입히시는 일에서 시작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09 ㉠, ㉡, ㉢, ㉣은 학교에 가기 위해 글쓴이와 어머니가 함께 고생했던 일을 의미한다. 반면, ㉤은 글쓴이를 포함한 여섯 형제가 학교에 가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0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화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가 아니라 '표현하기' 단계이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개요로 작성한 내용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구체화한다.

11 경험을 담은 글을 쓰는 것이므로, 글의 내용은 개인적 경험을 제재로 삼아야 한다.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과 관련된 추억'은 개인적 경험과 관련되므로 경험을 담은 글의 제재로 적절하다.

12  경험을 담은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과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경험을 찾아보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이 선정한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할 수도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경험을 담아 글을 쓰는 것의 장점 두 가지를 썼다.	☐
경험을 담아 글을 쓰는 것의 장점을 한 가지만 썼다.	☐

13 <보기>에 제시된 고민은 경험을 담은 글을 쓰려고 하는데, 가치 있는 경험이 잘 떠오르지 않아 이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경험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사진첩이나 일기장을 보며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볼 수도 있다.

14 일반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은 경험과 깨달음이 나타난다.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험과 깨달음 중 어느 것을 먼저 제시할지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